

# 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

## 할망본풀이

천왕불도(天皇佛道) 할마님 지왕불도(地皇佛道) 할마님 인왕불도(人皇佛道) 할마님 석가산은 석가여래 산불도 할마님.

할마님은 인간 탄싱(誕生)할 때, 정월(正月) 초사흘날 탄싱 허난, 삼월은 삼진(上辰)날 노각산 조부줄로<sup>1)</sup> 인간땅더레 도노립데다. 입서월덜(四月) 초파일날은 놉이 나라 부체 훈착<sup>2)</sup> 갈라단 우리나라 동동절을 설련할 때<sup>3)</sup> 할마님도 성 안내도 예순 업게<sup>4)</sup> 성베끼디<sup>5)</sup> 예순 업게 놀어 놀어 성을 들러 일칭경(一層格) 이칭경 삼칭경 별총당(別草堂)을 무어 샅데다.

할마님, 낮인 내난가위 마련허고, 밤이는 불선가위 마련허영 동양은 삼국 서양은 각국 줄에 팔만십이제국을 다 돌아 뎡기명<sup>6)</sup> 생불(生佛)을 주는데,

흐를날은<sup>7)</sup> 인간 생불 할마님 이구산에 도올르난, 흥신국 대별상이 할마님 낳은 애긴 생불 주고, 해산(解産) 시경<sup>8)</sup> 훈 설<sup>9)</sup> 두 설 열다섯 십오 세 안내 할마님 내온 애기 정 고치레 내립데다.

정 고치레 내리난,

“어평헌 여인이 대인(大人)이 가는다<sup>10)</sup> 질을<sup>11)</sup> 갈람수쨌?”

허난, 난 인간 생불 할마님이 뉘옵니덴 허난, 할마님 생불 준 애기 정 고치레 내림수덴 허난.

계건 우리 집이 가민 훈 일곱 살 난 애기가 잇이난, 은준지<sup>12)</sup> 늦준지 아랑준지 흐썩만<sup>13)</sup> 지어똥<sup>14)</sup> 가렌 허난, 할마니 그말 곱아두고<sup>15)</sup> 내난가위 불선가위 생불 주래 다니단 집이오란 보난,

흥신국 대별상이 준지 흐썩만<sup>16)</sup> 지어똥 가렌 허난, 닷말 닷뉘<sup>17)</sup> 뿌려 불엇구나. 닷

1) 노각산 조부줄: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로서 잡고 오르내리는 줄인 듯.

2) 훈착: 한쪽.

3) 설련할 때: 마련할 때.

4) 예순 업게: 업저지

5) 베끼디: 밖에.

6) 뎡기명: 다니면서.

7) 흐를날은: 하룻날은.

8) 시경: 시켜서.

9) 훈 설: 한 살.

10) 가는다: 가는데.

11) 질을: 길을.

12) 준지: 진주(眞珠). 여기서는 그 모양이 마마자국과 같다고 해서 쓰임. 둥근 것. 두드러기 같은 것.

13) 흐썩만: 아주 조금만.

14) 지어똥: 지어 두고. 있게 하고.

15) 곱아두고: 말해두고.

16) 흐썩만: 조금만.

말 닷뉘 뿌려부난 엮거든<sup>18)</sup> 시질마나, 시건 엮질마나, 엮고 시고, 비틀어지고 뉘와지고, 훈 번을 보민 다시 또 훈 번을 볼 수가 엇게 멘들앗구나.<sup>19)</sup> 할마님은 생불을 주영 좋은 얼굴 좋은 체대(體大) 내와 주영<sup>20)</sup> 이젠 어떻허민 좋을고 문을 잡아 누엇구나.

할마님은 문을 잡아 누난, 느진덱이 정하님이 하루 이틀 멧날 메칠<sup>21)</sup> 기다리단  
“할마님.”

문을 올안<sup>22)</sup>

“할마님아, 할마님아. 문을 잡아 누민 어떻헉네까?”

“게민 어떻 허느니? 고운 얼굴 고운 체대 흥신국 대별상이 엮고시고 비틀어지게 멘들아부난, 오랑,<sup>23)</sup> 손이 발이 뉘게, 발이 손이 뉘게 삭삭 빌게 헉셴.”

허난, 할마님은 귀가 쫑긋 헤엿구나.

“어찌허민 그렇게 뉘겟느냐?”

“할마님아, 훈일은<sup>24)</sup> 알고 두일 모릅네까?”

“어떻허민 좋으느니?”

허난,

“흥신국 대별상 부인에 생불을 주어근에 헤산을 시기지 맙셔.”

할마님,

“올다. 그걸 생각지 못허엿구나.”

흥신국 대별상 부인에 생불을 주어 훈 달<sup>25)</sup> 두 달 열 달을 넘영 스물넉 달이 뉘여가도 어멍 애기 굽 갈르질<sup>26)</sup> 못허난, 어멍 애기 다 죽게 생겟구나.

흥신국 대별상은 옥황더레 축술 허난, 인간 생불 할마님 노염을<sup>27)</sup> 갖엇이난, 생불 할망 노염을 푼셴 허난,

“아이고, 이젠 어떻허민 좋으리오.”

흥신국 대별상이 저 올레로 누람지<sup>28)</sup> 폐와 놓고<sup>29)</sup> 상불 피와<sup>30)</sup> 놓고 연차물<sup>31)</sup> 떠 놓고 손이 발이 뉘게. 비가 오난 눈이 오나 굽영<sup>32)</sup> 종금종금 할마님 방안 문앞이 ? 지<sup>33)</sup> 오난,

17) 닷말 닷뉘: 다섯 말, 다섯 뉘.

18) 엮거든: 마마 자국이 생기게 하거든.

19) 멘들앗구나: 만들엇구나.

20) 내와 주영: 만들어 주어서.

21) 멧날 메칠: 멧날 며칠.

22) 올안: 열어서.

23) 오랑: 와서.

24) 훈일은: 한가지 일은.

25) 훈 달: 한 달.

26) 굽 갈르질: 금(그릇) 가르지를. 여기서는 어머니 몸에 있는 아기를 낳는 것을 뜻함.

27) 노염을: 노여움을.

28) 누람지: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

29) 폐와 놓고: 퍼 놓고.

30) 피와: 피워.

31) 연차물: 차물(茶水). ‘연-’은 접두사.

32) 굽영: 굽어서.

할마님아, 할마님아. 노염을 품센 허여가난, 어평헌 양반이 우리신디 소인신디 빙니 켜 허난,

“할마님아, 과연 잘못헤엿수다.”

할마님이,

“너 즈순은<sup>34)</sup> 아깝고 놈이 즈순 아니 아깝느냐? 나 즈순 좋은 얼굴 내여노라. 좋은 메치<sup>35)</sup> 내여노라.”

“할마님, 과연 잘못헤엿우다.”

다시 은준지 늦준지 메울만이 메와보쿠덴 허여근. 고운 얼굴을 멘드난, 솜솜들이 얽긴 얽어도 흥귀인이 더 돋았구나.<sup>36)</sup> 그만허민 쓸 만허다. 어서 강 기다리렌 허난에, 인간 생불 할마님 물멩지(水泂紳) 치메<sup>37)</sup> 강멩지 치메, 멩지 즐장옷<sup>38)</sup> 열두 단추 돌곡<sup>39)</sup> 허연. 입어앗어<sup>40)</sup> 모리 뒷날 소오시가 뉘여가난, 물멩지 강멩지 즐장옷 벗언 간지<sup>41)</sup> 걸어두고, 치멘 벗언에 곤지에 걸어두고 애기어멍 가심으로<sup>42)</sup> 솔솔허게 찢언<sup>43)</sup> 열두 구에문<sup>44)</sup> 열려근 어멍 애기 곱 갈르난, 눈도 코도 엇인 애기 낱데다.

“아이고, 할마님아, 할마님아. 어평허난 눈도 코도 엇인 애기 낱수쨌?”

허난,

“느만 두불<sup>45)</sup> 재주 부리느냐, 나도 두불 재줄 부린다.”

은고췌<sup>46)</sup> 내여노난, 콧물을 알로 조로록 탄난<sup>47)</sup> 앞니명엔<sup>48)</sup> 해님 곱은<sup>49)</sup> 애기씨로구나. 뒷니명엔 들님<sup>50)</sup> 곱은 애기씨로구나. 곱닥헌 애기씨가 탄싱(誕生) 허난, 흥신국 대별상이 허는 말이,

“할마님아, 할마님아. 나 재주가 좋덴 헤여도 할마님 재줄 뜨라갈<sup>51)</sup> 수가 잇입니 켜.”

허난에, 할마님은 부정헌 디 덩기난 브름 알로, 날랑 브름 위로.

옛날은 애기 열다섯 십오 세가 뉘여가민 마누라 허여근, 일주일 피곡 일주일은 들

33) 문앞에 꺾지: 문앞에 까지.

34) 즈순은: 자손은.

35) 메치: 맵시.

36) 흥귀인이 돋았구나: 마마가 나아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뜻임.

37) 물멩지 치메: 좋은 명주 치마.

38) 즐장옷: 외투로 쓰거나 수의로 쓰는 옷.

39) 돌곡: 달고서

40) 입어앗어: 입고서.

41) 간지: 화. 옷을 걸어 놓거나 물건을 올려 놓거나 닭 따위를 앉히기에 좋게 걸쳐 놓거나 매달아 놓은 긴 대나 막대]

42) 가심으로: 가슴으로.

43) 찢언: 찢어서.

44) 구에문: 궁(宮)의 문. 여성 생식기를 뜻함.

45) 두불: 횡수를 나타내는 말로 ‘두 번째’나 ‘두 번째의’의 뜻을 나타내는 말.

46) 은고췌: 은가위.

47) 탄난: 트니.

48) 앞니명엔: 앞 이마에는.

49) 해님 곱은: 해님 같은.

50) 들님: 달님.

51) 뜨라갈: 따라갈.

어가곡. 부름이 뉘여가민 마누라 베송 헤여근, 네 귀에 풍경 돌리곡<sup>52)</sup> 허영 구쟁기 딱살에<sup>53)</sup> 은준지 늦준지 아랑준지 은전만랑 잘 시꺼근, 이 삼 소(四) 월 뉘여가민 보 리밧더레 놓아, 강<sup>54)</sup> 마누라 베송<sup>55)</sup> 내여주는 법이 뉘엿습네다.

훈반 일반 좌정허영. 할마님은 애기 열다섯 십오 세 안네 그늘 엷고 흥신국 대별상은 얼굴 츠지협네다.

이젠, 훈반 일반 헤영. 할마님, 인간 생불 할마님 천왕불도 지왕불도 인왕불도 석가산 석가여래 산불도 멩진국 할마님은 인간 즈순들 이거 생불환생 주는 법을 마련헤엿우다.

짓알로 도노리민<sup>56)</sup> 동이용궁 할마님, 아방국은 동이용궁 어멍국은 서이와당<sup>57)</sup> 메화부인. 훈 설<sup>58)</sup> 두 설 아홉 설이 뉘여가난, 세 설적 날레 멩석<sup>59)</sup> 허트른 쥬목이여.<sup>60)</sup> 아버지 삼각산(三角鬚) 머릴 훤은 쥬목이여. 시염<sup>61)</sup> 훤은 쥬목이여. 어머니م 젓가심 두드린 쥬척을 마련허영 무쇄설갑<sup>62)</sup> 띠완, 동이와당더레<sup>63)</sup> 띠와불엇구나.

동이와당더레 띠와부난, 물 아래도 연삼년 물 우이도 연삼년 흥당망당 떠 뎅기단<sup>64)</sup> 해녀물가에 올랐구나. 임모루주 임박사가 부베간이<sup>65)</sup> 입장갈림<sup>66)</sup> 허영 이십 스물 삼십 서른이 넘어도 애기 엷언<sup>67)</sup> 호호탐복을<sup>68)</sup> 협네다. 산천 기도를 가도 애기 엷고, 절간 법당 기돌 가도 애기가 엷고,

흐를 날은 해녀물가에 불공을 가난 무쇄설갑이 올랐구나. 무쇄설갑을 올리난, 무쇄설갑을 올안 보난, 꽃 곱은<sup>69)</sup> 애기씨가 잇엇구나. 누계가 뵈네끼엔 허난, 아방 눈엔 시찌나고<sup>70)</sup> 어멍 눈에 굴리난<sup>71)</sup> 인간생불 할마님으로 인간더레 나가젠 행 오락젠 허난,

아이고, 우리 애기 엷언 호호탐복 허염수다. 치메통에 담안오란 궤<sup>72)</sup> 우이<sup>73)</sup> 모삿구나.<sup>74)</sup> 포테(胞胎)를 주엇구나.

---

52) 돌리곡: 달리고.

53) 구쟁기 딱살에: 소라 딱살에.

54) 강: 가서.

55) 마누라 베송: 마누라는 마마의 방언. 마마를 앓을 때에 마마신을 청하여 곱게 마마를 시켜 주기를 빌고, 그 마마신을 후히 대접하여 치송하는 의례이다.

56) 짓알로 도노리민: 아래로 내려서면.

57) 서이와당: 서해바다.

58) 훈 설: 한 살.

59) 날레 멩석: 곡식을 햇볕에 말리려고 멩석에 넣어놓은 것.

60) 쥬목이여: 죄목이여.

61) 시염: 수염.

62) 무쇄설갑: 무쇠 석갑(石匣).

63) 동이와당더레: 동해바다에.

64) 뎅기단: 다니다가.

65) 부베간이: 부부가.

66) 입장갈림: 혼인.

67) 엷언: 없어서.

68) 호호탐복을: 근심. 걱정을.

69) 꽃 곱은: 꽃 같은.

70) 시찌나고: 거슬리고.

71) 굴리난: 거슬리고.

72) 궤: 나무로 상자처럼 짜서 옷 같은 것을 보관 하는 것.

73) 우이: 위에.

흔 덜 두 덜 열 덜 넘고, 열두 달이 넘어 배속에선 던데적 마니적<sup>75)</sup> 헤여도 어멍 애기 곱 갈르지 못허연. 애기 어멍 죽을 스경(死境) 다돌으난<sup>76)</sup> 어멍허민 조코, 이젠 이구산에 도올르저.

이구산에 도올르난, 흔짜<sup>77)</sup> 손엔 금바랑을<sup>78)</sup> 심곡 흔쪽 손엔 옥바랑을 심언 옥황더레 축수를 허난, 옥황상전님이 만주대신을 내어놓아근.

“인간더레 굶어보라. 어느 누계가 저렇게 처량허게 금바랑 소리를 내느냐? 옥바랑 소리를 내느냐?”

허난, 임모루주 임박사가 애기 엇언 호호탐복 허난, 인간더레 생불 할마님을 처급(處給) 시켜줍센 헤연. 밤인 원불(願佛), 낮인 수륙(水陸)을<sup>79)</sup> 올림수덴 허난,

“아이고, 어느 누계가 인간생불 할마님이 뉘겠느냐?”

“멩전대왕 뜨님애기 총명 허난 인간생불 할마님으로 내보넵서.”

노각산 조부줄로 인간더레 도노립데다. 인간더레 도노리난, 애기 어멍 죽을스경 다 돌았구나. 할마님 열두 줄장옷 벗언 간지에 걸어두고 물멩지 치메는 곤지에 걸어두고 애기어멍 젓가심<sup>80)</sup> 삼세 번 찢어간다.<sup>81)</sup> 열두 구에문 열령 애기 어멍 곱 갈릅데다.

애기 날 때 동더레<sup>82)</sup> 머리 현 애긴 동부젧법(東富者法), 서더레 머리 현 애긴 서가난법(西家難法), 남더레 머리 현 애긴 남장수법(南將帥法), 북더레 머리 현 애긴 북단명법(北短命法) 마련허영 공 들이명<sup>83)</sup> 사는 법 마련헤엿우다.

업게삼승<sup>84)</sup> 불러간다. 구덕삼승<sup>85)</sup> 불러간다. 혼사흘엔 모옥메. 혼일렛 치셋메,<sup>86)</sup> 석덜은 백일메, 일 년은 돌메, 왕이자랑 왕이자랑 허노렌 허난, 동이용궁 할마님 놀려들언<sup>87)</sup>

“이년아, 저년아. 나가 생불 할망이다. 너가 생불 할망이냐?”

싸움발악 허여가난, 인간 생불 할마님 옥황더레 도올릅데다. 옥황더레 도올란, 옥황상전님신디 간. 옥황상전님아, 인간에 간보난 생불 할망이 잇입디덴 허난, 옥황상전님이 부화가 난, 철망도설을 내여놓안 인간더레 도노련 동이용궁할망 옥황더레 걸려올립데다.

“너는 누계가 뉘느냐?”

바려보난,<sup>88)</sup> 얼굴도 꼭굴아지다.<sup>89)</sup> 치세(體勢)도 꼭굴아지다. 나이도 꼭굴아지엇구

74) 모삿구나: 모셨구나.

75) 던데적 마니적: 애기가 많이 큰 형태.

76) 다돌으난: 다다르니.

77) 흔짜: 한쪽.

78) 금바랑: 금바라.

79) 낮인 수륙: 낮에 불공을 드린다는 뜻.

80) 젓가심: 젓가슴.

81) 찢어간다: 쓸어간다.

82) 동더레: 동쪽으로.

83) 공 들이명: 공 들이면서

84) 업게삼승: 업저지의 수호신.

85) 구덕삼승: 제주에서 아기들이 누웠던 요람의 수호신.

86) 혼일렛 치셋메: 한 일뤼에는(7일) 삼승할망 상에 쌀을 올린다는 뜻.

87) 놀려들언: 달려들어서.

88) 바려보난: 바라보니.

나.

“나는 아방국은 동이용궁, 어멍국은 서이와당 메화부인인디 혼 두 설 열다섯 십오 세 안내 아흙 설까지 빌흐럽<sup>90)</sup> 췌어지난 인간땅 노려 강<sup>91)</sup> 생불 할망으로 들어사렌 허연. 인간땅 노려오는 질에 생불을 처급 시기는 법은 베와도 헤산법을 못 베완 왔우 다.”

허난, 흘 수 엇구나, 계건, 네네 꽃이나 싱경<sup>92)</sup> 꽃상구나<sup>93)</sup> 허영. 번성꽃(繁盛花) 환성꽃(還生花) 허는 자랑 인간 할망<sup>94)</sup> 마련허고, 검뉴울꽃<sup>95)</sup> 허는 자랑 저싱 할망<sup>96)</sup> 마련허렌 허난, 걸랑 기영 험서.

인간 생불 할마님도 은수반(銀水盤)에 꽃을 싱급데다. 동이용궁 할마님도 은수반에 꽃을 싱급데다. 동이용궁 할마님 싱근 꽃은<sup>97)</sup> 불리도 웨불리,<sup>98)</sup> 가지도 웨가지 검뉴울꽃이 뒤여지고,

인간생불 할마님 싱근 꽃은 불린 웨불리 가진 소만오천육백가지. 동더레 번은 가진 동청목(東靑木) 똤데다. 서드레 번은 가지는 서백금(西百金) 똤데다. 남더레 번은 가지는 남적화(南赤火), 북더레 번은 가지는 북혜수(北黑水) 보록보록 혼번을 불 것 곱으민<sup>99)</sup> 천년이나 살 듯, 혼번을 불 것 곱으민 만년이나 살 듯 영 험데다.

“너네 저싱 할망 인간 할망 곱 갈르라.”

동이용궁 할망이랑 저싱 할망 마련허고, 인간생불 할망이랑 인간생불 할망 멩진국 할망 마련허렌 허난, 동이용궁 할망 부화가 난, 꽃을 하나 꺾음데다.

“그건 무사 꺾영 감시니?”

허난, 나도 살 도량을 헤삽니켤. 아무탈 엇이민 인간 즈순덜 할마님신디 등장(等狀)을 못 헐거난, 인간 살명 석 덜만이 꺾여가고 피로 흘르게 허고, 나근엔<sup>100)</sup> 혼일뤼에 늦인 거, 혼 사흘에 브튼 거,<sup>101)</sup> 정세정풍 망경징(증) 불려주고, 보다근<sup>102)</sup> 다글다글<sup>103)</sup> 걸어가민 물러레도 빠정 등경<sup>104)</sup> 저싱더레 가게 허고, 빌흐럽 췌여지고, 아들만 나게허곡 톨만 나게 허여가민, 어디 강 들으민 구할망에 걸렸우다. 구천낭에 걸렸우다. 영 허민 할망맛이 허영.

동이용궁 할마님, 애기 어멍 단치메도 벗어놓고 단저고리도 벗어놓고, 인정 하영 내

89) 꼭굴아지다: 똑같아지다.

90) 빌흐럽: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흥흥 거리는 짓.

91) 노려 강: 내려 가서.

92) 싱경: 심어서.

93) 꽃상구: 꽃 심기 내기.

94) 인간할망: 인간 세상의 삼승할망(産神)

95) 검뉴울꽃: 시들어가는 꽃.

96) 저싱할망: 저승에서 죽은 아기의 혼을 관장하는 여신. ‘구할망’ ‘구삼싱’ ‘구천낭할망’ 등이라 부름.

97) 싱근 꽃은: 심은 꽃은.

98) 웨불리: 한 뿌리.

99) 곱으민: 같으면.

100) 나근엔: 낳은 후엔.

101) 브튼 거: 짧은 것. 모자란 것.

102) 보다근: 보다가.

103) 다글다글: 어린애가 귀엽게 뒤똥거리며 걸어다니는 것을 나타내는 말.

104) 등경: 당겨서.

여근, 췌뚱<sup>105)</sup> 좋고 물뚱<sup>106)</sup> 좋은 터진 생가지방으로<sup>107)</sup> 잘 방송(放送)허영 인정 반앙  
굽 갈릅센 헤영. 송엄<sup>108)</sup> 주지 맵센 헤영. 저싱할망 이싱할망 굽 갈르는 법을 마련헤  
엿우다.

저싱 할망은, 저싱 할망 날은 초하루 열나흘에 스무아흐레 초나흘 초아흐레 열나흘  
열나흘에 스무나흘 할망날을 마련허고,

인간생불 할망 날은 초사흘 초일뤼 열사흘 열일뤼 스무사흘 스무일뤼 할망날을 마  
련허연. 할마님에 등장 들어근 모두 저싱 할망 이싱 할망 굽 갈르는 법입네다.

헌 설적 두 설적 열다섯 십오세 안내 간 애기덜, 밥 먹던 애기덜, 젓 먹던 애기덜,  
동이용궁 할마님 채고 가고, 인간생불 할망은 열다섯 십오세 안내에 그늘낵<sup>109)</sup> 줍네  
다. 이 즈순덜 이제 모두 열다섯 십오세 안내에 낵은 애기덜 문<sup>110)</sup> 그늘낵 성인시경  
전대전손(全隊傳孫) 만대유전(萬代遺傳) 혈 즈순덜<sup>111)</sup> 문 나습서.

---

105) 췌뚱: 소뚱.

106) 물뚱: 말뚱.

107) 생가지방으로: 큰구들과 고평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108) 송엄: 흥엄.

109) 그늘낵: 잘 보호하며 보살펴 주다.

110) 문: 모두.

111) 즈순덜: 자손들.

## 칠성본풀이

옛날 옛적 장나라 장설룡 대감님 사옵데다. 송설룡 부인님이 사옵데다.

부베간이<sup>112)</sup> 입장갈림<sup>113)</sup> 해연 살아가는 게. 애긴 엇언 호호탐복<sup>114)</sup> 허난, 동계남은중절(東觀音殿在寺) 서계남 금법당(西觀音金法堂) 낭게 상상 메양<sup>115)</sup> 올란. 한동절에 부처 지컨<sup>116)</sup> 대서님이,

“집 안으로 들어서멍 짓알로 도노리멍<sup>117)</sup> 소송 절이 뵈옵네다.”

시권제삼문을 내어놓데다.

“높이 들렁 알려레 시르륵 시르륵 비옵서. 흐 방울이 떨어지민 멩도 복도 떨어지는 법입네다.”

높이 들렁 알려레 시르륵 시르륵 비우난,

“대서님아, 대서님아. 단수육갑(單數六甲)이나 짚어봅서. 오용팔괘(五行八卦)나 짚어봅서. 우리 부베간 조식<sup>118)</sup> 엇언 호호탐복 해엿우다.”

“장설룡 대감 송설룡 부인님아, 우리 절간법당에 오랑 원수륙(願水陸)이나 드러봅서.”

원수륙을 올리난, 백 근을 채우난, 아흔아홉 근이로구나. 흐 근량이 모자란 뜰 성불 백이 못 처급(處給)허쿠다. 뜰 성불도 좋수덴 해연. 밤인, 부베간이 합궁날(合宮日) 합궁시(合宮時) 천상베필(天上配匹) 무으난,<sup>119)</sup> 아방 몸에 석 덜 열흘, 어멍 몸에 석 덜 열흘. 아호 열 덜 가마 준삭(準朔) 창<sup>120)</sup> 낳는 건 보난, 장설룡 딱님<sup>121)</sup>애기가 솟아났구나.

흐 설 두 설 일곱 설이 뒤편가난, 장설룡 대감님은 장서 베실<sup>122)</sup> 살레옵서. 송설룡 부인님이랑 송서 베실<sup>123)</sup> 살레옵서.

“늦인덱이 정하님아. 우리 장서 베실 송서 베실 살앙 음 동안,<sup>124)</sup> 궁기로<sup>125)</sup> 밥을 주고 궁기로 물을 주멍 키암시라.”

“결랑 기영협서.”

장설룡 대감님광 송설룡 부인님 가멧부출에<sup>126)</sup> 애기씨 뜰랑 가당<sup>127)</sup> 묵은<sup>128)</sup> 각

112) 부베간이: 부부가.

113) 입장갈림: 혼인.

114) 호호탐복: 근심 걱정.

115) 메양: 매 번. 늘.

116) 지컨: 지킨.

117) 짓알로 도노리멍: 아래로 내리면서.

118) 조식: 자식.

119) 무으난: 맺으니.

120) 창: 차서.

121) 딱님: 따님.

122) 장서 베실: 장서 벉슬.

123) 송서 베실: 송서 벉슬.

124) 음 동안: 오는 동안.

125) 궁기로: 고망으로.

126) 가멧부출에: 가마 가상자리 나무에.

127) 뜰랑 가당: 따라서 가다가.

단<sup>129)</sup> 새 각단 밧디 강<sup>130)</sup> 털어지난 동서더레 질이<sup>131)</sup> 낫구나. 동더레도 걸어가고, 서더레도 걸어간 세비낭<sup>132)</sup> 가시에, 범지리 가시에<sup>133)</sup> 옷은 다 찢어지었구나.<sup>134)</sup> 피는 찰찰 낫구나. 동서더레 질이 나난,

집이선 애기씨 감감무레 뒤텔었구나.<sup>135)</sup> ‘장설룡 대감님아, 장서 베실 그만 살앙 흔저<sup>136)</sup> 읍서. 송설룡 부인님아, 송서 베실 그만 살앙 흔저 읍서. 애기씨 감감무레 뒤텔었우다.’

애기씨 감감무레 뒤텔젠 허난, 장서 베실 흔저 살앙 왔구나. 송서 베실 흔저 살앙 왔구나.

완 보난, 애기씨 백방(百方)으로 좃아도<sup>137)</sup> 엇었구나.

애기썸 이제 동서더레 질이 나난,

“앞이 오는 대서님아, 날 살립서.”

눈도 아니 거듭 뜬다.

“두 번째 오는 대서님아, 날 살립서.”

눈도 아니 거듭 뜬다.

“세 번째 오는 대서님아, 날 살립서.”

“아이고, 우리 절간법당에 강 수록 드령 난 장설룡 뜯님 애기로구나.”

상가메를<sup>138)</sup> 일곱 번을 찢어부난,<sup>139)</sup> 애기썸 깜빡깜빡 일곱 번을 놀래었구나. 아이고, 옷은 다 찢어져 불고, 피는 별경케<sup>140)</sup> 나고, 썸<sup>141)</sup> 비언<sup>142)</sup> 주지<sup>143)</sup> 멘들안,<sup>144)</sup> 주지 씨완. 애기썸 싱근들어 물팡돌<sup>145)</sup> 아래 놓아두고,

“짚알로 도노리멍 소송 절이 웹네다.”

장설룡 대감님광 송설룡 부인님 시권제삼문(勸濟三文) 내어주멍 허는 말이

“대서님아, 대서님아, 당신 절간법당에 강 수록 들영 난 애기 감감무레 뒤텔이난 단 수옥갑이나 짚어봅서. 오용팔과나 짚어봅서.”

“아이고, 부르민 들을만 현 디<sup>146)</sup> 잇우다. 웨민 웹 소리<sup>147)</sup> 들을만 현 디 잇우다.”

128) 목은: 오래된. 현.

129) 각단: 길이가 짧은 띠. 주로 ‘집가제’를 지르거나, ‘집줄’감으로 쓰임.

130) 밧디 강: 밧에 가서.

131) 질이: 길이.

132) 세비낭: 짚레.

133) 범지리 가시에: 실거리 나무 가시에. 앞은 아카시아 비슷하고, 온 몸에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나고, 노란 꽃이 피는 콩과에 속한 나무.

134) 찢어지었구나: 찢어지었구나.

135) 감감무레 뒤텔었구나: 순식간에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136) 흔저: 어서. 빨리.

137) 좃아도: 찾아도.

138) 상가메를: 머리 꼭대기에 있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난 머리털의 자리를.

139) 찢어부난: 쓸어버리니.

140) 별경케: 빨갈게.

141) 썸: 띠는.

142) 비언: 베어서.

143) 주지: 띠를 엮어 원뿔 모양으로 만든 것.

144) 멘들안: 만들어서.

145) 물팡돌: 말을 타고 내릴 때 밟고 타고 내릴 수 있는 돌.

“이 중 저 중 필아곡절(必有曲折) 허다.”

수장남(首長男)아, 수벨감(首別監)아, 저 중 귀 잡아 네훈둘루렌<sup>148)</sup> 허난, 대서님이 축지법을 썬 브름절로 구름절로 대서님은 나고 간. 모인 구름 한 구름<sup>149)</sup> 조이점삭 시켰구나.

모인 구름 한 구름 끌어 앉안<sup>150)</sup> 바라보난, 싱근들어 물팡돌 아래 난데엇인 오제미가 잇엇구나. 오제밀 클렁 보난<sup>151)</sup> 그 소굽에<sup>152)</sup> 애기씨가 잇엇구나.

눈은 헤뜩 세는<sup>153)</sup> 멜록<sup>154)</sup> 몸은 아리롱다리롱<sup>155)</sup> 흥단(紅緞) 서단 비단 애기가 뒀엇구나. 아이고, 이 애기, 이거 바라보난,<sup>156)</sup> 벤 테독(胎毒)굴이<sup>157)</sup> 붙엇구나. 은데양에<sup>158)</sup> 세숫물을 떠 난. 은수제<sup>159)</sup> 걸천 굴메<sup>160)</sup> 바라보난, 아이고, 애기 일곱 베엿구나.

양반이 집이 소단공서(祠堂供辭) 낫구나. 앞 밧디랑<sup>161)</sup> 작수 걸라. 뒷 밧디랑 작두 걸라. 조강눔을<sup>162)</sup> 불르라. 죽일팔로 헤여가난, 장설룡 대감님 송설룡 부인님 허는 말이, “장설룡 대감님아, 우리 앞서서 어떻 애기 죽이는 꼴을 보쿠과?”

“게민 어떻허민 존느니?”

“무췌쟁이<sup>163)</sup> 불러단 무췌설갑<sup>164)</sup> 짱<sup>165)</sup> 동 바당더레 띠와불기가 어떻힙니까?”

걸랑 기영 허렌.

무췌쟁이 불러단 무췌설갑 짱 동 바당더레 띠와부난 물아레도 연삼년 흥당망당, 물우이도 연삼년 흥당망당 떠덩기단<sup>166)</sup> 제주 와당더레<sup>167)</sup> 들어오랏구나.

제주시로 들젠 허난,<sup>168)</sup> 산지 용궁(山地 龍宮) 칠머리가 췌어지어 못 들어간다. 화북(禾北)으로<sup>169)</sup> 들젠 허난, 화북 금돈지<sup>170)</sup> 알<sup>171)</sup> 들젠 허난 화북 가릿당이<sup>172)</sup> 췌어

146) 헌 디: 한 곳에.

147) 웨민 웹 소리: 큰소리 내면 그 소리.

148) 네훈둘루렌: 휘두르라고.

149) 모인 구름 한 구름: 작은 먼지. 큰 먼지

150) 끌어 앉안: 깔아 앉아서.

151) 클렁 보난: 풀어서 보니.

152) 소굽에: 속에.

153) 세는: 혀는.

154) 멜록: 혀를 입 밖으로 조금 잠깐 내미는 꼴.

155) 아리롱다리롱: 아롱다롱.

156) 바라보난: 바라보니.

157) 굴이: 같이. 처럼.

158) 은데양에: 은 대야에.

159) 은수제: 은 수저.

160) 굴메: 그림자.

161) 앞 밧디랑: 앞 발에는.

162) 조강눔을: 형 집행자를.

163) 무췌쟁이: 무쇠장이.

164) 무췌설갑: 무쇠석함.

165) 짱: 짜서.

166) 떠덩기단: 떠다니다가.

167) 와당더레: 바다로.

168) 들젠 허난: 들려고 하니.

169) 화북으로: 제주시 화북(禾北).

170) 금돈지: 화북에 있는 지명.

지어 못 들어간다. 삼양(三陽)으로 들젠 허난 시월도병서한집<sup>173)</sup>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신촌(新村)으로 들젠 허난, 큰물머리한집<sup>174)</sup>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조천(朝天)으로 들젠 허난, 조천 세콧알<sup>175)</sup>로 들젠 허난 정중아미 정중도령<sup>176)</sup>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신흥(新興)은 막게낭당한집 켜어지어 못 들어가고, 함덕(感德)은 훈물 두물 서물 한집 켜어지어 못 들어가고, 야, 동복(東福) 뒷게 낭낭선(落南船) 페도목에<sup>177)</sup> 올라온 한집<sup>178)</sup> 켜어 못 들어간다.

저, 김녕(金寧)으로 들젠 허난, 큰두한전 큰도부인, 성세기<sup>179)</sup> 삼분향, 궤네기는<sup>180)</sup> 소천국,<sup>181)</sup> 누 무리당도<sup>182)</sup> 초일뤼 켜어 못 들어간다. 월정(月汀)은 들젠 허난, 신산국 삼대왕<sup>183)</sup> 서당국 하르방 서당국 할마님<sup>184)</sup>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행원(杏源)은 나주 목서(羅州牧使) 나주판관(羅州判官) 기민들어 절츠저 궁전요왕대부인(宮殿龍王夫人)<sup>185)</sup> 오분작 하르방 오분작 할망<sup>186)</sup> 켜어지어 못들어간다.

한동(漢東)은 들젠 허난, 9월 9일 브름웃도 상원님<sup>187)</sup>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평대(坪垈) 수대기한집<sup>188)</sup>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저 갯마리<sup>189)</sup> 명동소천국<sup>190)</sup> 켜어지어 못들어간다. 저, 상세와(上細花)린 천즈 백주 금상도<sup>191)</sup>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어딜로 들리오. 저, 하도(下道) 벨방으로<sup>192)</sup> 들젠 허난, 여러불법할망<sup>193)</sup>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종달리(終達里) 들젠 허난, 장나라 장설룡 송나라 송설룡 할마님 일뤼중저 열두시구전한집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백주노산주<sup>194)</sup>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저, 시흥리(始興里) 허 씨 허천 부 씨 허천 송갑스(宋甲士) 시절 양태금문 청룡줄 백룡줄로<sup>195)</sup> 노념헌 한집 큰물머리한집<sup>196)</sup> 켜어지어 못 들어간다. 시흥리(始興里)로

171) 알: 아래.

172) 가릿당: 화북동 당신(堂神).

173) 시월도병서한집: 제주시 삼양이동(三陽二洞)의 당신(堂神).

174) 큰물머리한집: 조천읍(朝天邑) 신촌리(新村里) 당신(堂神).

175) 세콧알: 조천읍(朝天邑) 조천리(朝天里) 지명.

176) 정중아미정중도령: 조천읍 조천리 당신.

177) 페도목: 배를 만든 재목(材木)의 이름인 듯.

178) 뒷게 낭낭선 페도목에 올라온 한집: 구좌읍(舊左邑) 동복리(東福里)의 당신을 표현함. 동복리의 당신인 송씨하르바님이 제주에 들어오는 모습을 말한 것임.

179) 성세기: 김녕리(金寧里) 소재의 지명(地名).

180) 궤네기: 김녕리(金寧里)의 당(堂).

181) 소천국: 김녕리(金寧里) 하송당신(下松堂神)으로서 부신(夫神).

182) 누 무리당: 김녕리(金寧里) 소재 당신(堂神).

183) 신산국 삼대왕: 월정리(月汀里) 큰당의 신명(神名).

184) 서당국 하르방 서당국 할망: 월정리(月汀里) 서당의 신명(神名).

185) 나주목서(羅州牧使): 행원리(杏源里) 큰당의 신명(神名).

186) 오분작 하르방 오분작 할망: 행원리(杏源里) 남당의 신명(神名).

187) 9월 9일 상원님: 한동리(漢東里)의 당신(堂神).

188) 수대기한집: 평대리(坪垈里)의 일뤼당신.

189) 갯마리: 평대리(坪垈里) 바닷가의 한 지명(地名).

190) 명동소천국: 평대리(坪垈里)의 해신당(海神堂).

191) 천즈 백주 금상도: 세화리(細花里)의 당신(堂神).

192) 벨방으로: 별방(別防)으로. 하도리(下道里)의 옛 이름.

193) 여러불법할망: 하도리(下道里)의 당신(堂神).

194) 백주노산주: 종달리(終達里)의 당신(堂神).

195) 청룡줄 백룡줄: 다리인 무명을 청룡, 백룡(뱀의 뜻)으로 상징하여 표현한 것.

들젠 허난, 허 씨 허천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어딜로 들리오. 성산(城山)으로 들젠 허난, 일뤼중저한집<sup>197)</sup> 세어지어 못 들어간다. 어딜로 들코.<sup>198)</sup> 신양리(新陽里)로 들젠 허난, 신양리 본향은 하로하로산도 ㅁ섯번째 아들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신평(新豐) 삼달(三達) 고첫당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어딜로 들리오. 하천리(下川里) 신천리(新川里) 들젠 허난, 선씨일월(玄氏日月)<sup>199)</sup>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표선(表善)은 들젠 허난, 당케하르망 당케할망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저 토산(兎山)으로 들젠 허난, 일뤼한집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태흥리(泰興里)로 들젠 허난, 썬나라 썬포수 물나라 물포수 소곰막 일뤼중저<sup>200)</sup>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남원(南元)이로 들젠 허난, 웨오 들러 웬 도께비 ㄴ다 들러 ㄴ단 도께비<sup>201)</sup> 저하늘에 베레드레<sup>202)</sup> 예레드레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또 이젠, 위미리(爲美里)로 들젠 허난, 동마막 서마막<sup>203)</sup> 하로지기 고부랑 폭낭<sup>204)</sup> 삼천백메(三千兵馬) 도위관청(都位官廳) 칠오름<sup>205)</sup> 도이병서(都兵使)도 썬어지어, 허자백이 하ㅁ을<sup>206)</sup>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하효(下孝)로 들젠 허난 하훈, 조노기한집<sup>207)</sup>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저, 볼목리(甫木里)도 옷조노기 알조노기<sup>208)</sup>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서귀포로 들젠 허난, 동문관 일백제 서문관(西門關) 지산국 솔동산<sup>209)</sup> 거부용신(巨富龍神) 관청(官廳) 진안할마님 벳머리 일뤼중저한집님 썬어지어 못 들어간다.

제주 소병리(四壁里) 주위를 병병 돌아도 ㅁ을 지컨<sup>210)</sup> 본향 한집이 썬어지어 못 들어가난, 뒤고비에 채 앓언 ㅁ을마다 여마다 이름 생명 다 지와두고 함덕(咸德) 서우봉<sup>211)</sup> 알로<sup>212)</sup> 무생기 알로 무썬설갑 올랏구나.

함덕 일곱 줌수덜<sup>213)</sup> 아침이 물에 들레 가단<sup>214)</sup> 무썬설갑 봉갓구나.<sup>215)</sup>

“아이고, ㄴ가 ㄴ저<sup>216)</sup> 봉갓저. ㄴ가 ㄴ저 봉갓저.”

196) 큰물머리한집: 시흥리(始興里)의 당신. ‘큰물’은 시흥리의 지명.

197) 일뤼중저한집: 성산리(城山里)의 일뤼당신.

198) 어딜로 들코: 어디로 들어갈까.

199) 선씨일월(玄氏日月): 신천리(新川里)의 당신(堂神).

200) 썬나라 썬포수 물나라 물포수 소곰막 일뤼중저: 태흥리(泰興里)의 당신(堂神).

201) 웨오 들러 웬 도께비 ㄴ다 들러 ㄴ단 도께비: 남원리(南元里)의 당신(堂神).

202) 베레드레: 별에 달에.

203) 동마막 서마막: 동(東)마마기와 서(西)마마기. 위미리(爲美里)의 지명으로 당(堂) 소재지 임.

204) 꼬부랑 폭낭: 구부러진 팽나무.

205) 칠오름: 서귀포시(西歸浦市) 상호리(上孝里)의 오름.

206) 허자백이 하ㅁ을: 산신대왕(山神大王)의 하위 신.

207) 조노기한집: 서귀포시(西歸浦市) 하효리(下孝里)의 당신(堂神).

208) 옷조노기 알조노기: 서귀포시(西歸浦市) 보목리(甫木里)의 당신(堂神).

209) 솔동산: 서귀포시에 있는 동산 이름.

210) ㅁ을 지컨: 마을 지컨.

211) 서우봉: 함덕리에 있는 해변 이름.

212) 알로: 아래로.

213) 줌수덜: 줌수들. 해녀들.

214) 물에 들레 가단: 물질하러 가다가.

215) 봉갓구나: 주웠구나.

막 싸움발악 허염시난, 송동지 하르방 아침 불락<sup>217)</sup> 낚아단 조반 반찬 허젠 가단 보난 일곱 줌수가 느 머리, 나 머리 싸움발악 헤염구나.

“아이고, 느네 무사<sup>218)</sup> 경 싸웁디?”

“아이고, 나가 먼저 봉가신디, 요년이 먼저 봉갓젠 헤염수다.”

요년이 먼저 봉갓우덴. 나가 먼저 봉갓우덴.

“야, 니네 혼 바당에<sup>219)</sup> 물질허영 허는 아이들이 무사 경 싸웁디?”

그 소곱에 금이 드나, 은이 드나 반득이<sup>220)</sup> 일곱 줌수가 갈라주고, 그 무쇄설갑이랑 나를 주민 그 담배 초갑 허켄 허난,

“걸랑 기영 헉서.”

이젠 무쇄설갑 동숫 곱은<sup>221)</sup> 주먹으로 절로 쟁강<sup>222)</sup> 올안<sup>223)</sup> 보난,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베염이 일곱 새끼 니 꼴리 몰랴, 나 꼴리 몰랴. 소랑소랑,

“이거 은이여. 금이여. 마 먹으라.”

아끈 숨베기왓,<sup>224)</sup> 한 숨베기왓,<sup>225)</sup> 묵은 각단,<sup>226)</sup> 새 각단 밧디<sup>227)</sup> 자락허게<sup>228)</sup> 비와부난, 묵은 각단 새 각단밧더레 솔솔허게 다 들어갓구나.

그날부터 배아피여.<sup>229)</sup> 눈아피여.<sup>230)</sup> 간장염 녹막염 복망염 폐병 설레 아이고, 죽을 스경(死境)이 다 돌앗구나. 아이고, 이젠 어뎡허민 조코. 신흥(新興) 봉서신디 간 문점 허난

“웨국서<sup>231)</sup> 들어온 등세칠성 한집에 걸렸우다.”

“어뎡허민 좁네까?”

떡도 일곱, 밥도 일곱, 술도 일곱, 잔도 일곱 문 출령<sup>232)</sup> 칠성젤 쟁기알로 강 지넵 쟁 허연. 일곱 줌수가 칠성젤 지내난, 눈아피도 걷어간다. 배아피도 걷어간다. 간장염 녹막염 복막염 물비리징<sup>233)</sup> 강비리징<sup>234)</sup> 허벅지징 녹나무징 온갓 신병 다 걷연. 이 애기덜 칠성젤 지내난, 동이와당<sup>235)</sup> 대전복 서이와당 서전복 망사리 7득<sup>236)</sup> 망태 7

216) 느가 먼저: 니가 먼저.

217) 불락: 생선의 한 종류.

218) 무사: 왜?

219) 혼 바당에: 한 바다에.

220) 반득이: 기울거나 비틀어짐 없이 바르게. 반듯하게.

221) 동숫 곱은: 솔 같은.

222) 절로 쟁강: 췌문 따위가 열리는 소리.

223) 올안: 열어서.

224) 아끈 숨베기왓: 작은 숨비기 밧.

225) 한 숨베기왓: 큰 숨비기 밧.

226) 묵은 각단: 오래된 띠.

227) 새 각단 밧디: 새 띠 밧에.

228) 자락허게: 힘차게 던지거나 또는 미는 꼴.

229) 배아피여: 배앓이여.

230) 눈아피여: 눈앓이여.

231) 웨국서: 외국서.

232) 문 출령: 모두 차려서.

233) 물비리징: 물기가나는 옴의 증상.

234) 강비리징: 마른 옴의 증상.

235) 동이와당: 동해바다.

득 헤가난 막 부제가 뉘여가난, 함덕 사람들 뿐 보멍,<sup>237)</sup> 우리도 일곱 줌수처럼 우리도 칠성젤 지내젠 헤가난 함덕 사람들 문 잘 살아가난,

함덕 서물한집님은<sup>238)</sup> 아이고, 저 웨국서 들어온 등세 칠성 한집님 때문에 우린 밥 훈직<sup>239)</sup> 술 훈직 먹으라. 시라 아니 허난, 저 선흘(善屹) 곳디<sup>240)</sup> 올라강 들굽냥<sup>241)</sup> 작대기<sup>242)</sup> 해당<sup>243)</sup> 동서더레 막 케우려볼켄<sup>244)</sup> 응성 조합 헤가난, 우리 이디 잇엇당<sup>245)</sup> 매 맞앙 죽을거난 우리 성안 읍성 올라가젠.

“걸랑 기영 협서.”

밤이랑 소롯질로<sup>246)</sup> 대룻질로,<sup>247)</sup> 낮이랑 대룻질로. 저 조천(朝天) 만세동산 간 층층<sup>248)</sup> 영기(令旗) 훈쌍 불러두고 신촌(新村) 진드르에<sup>249)</sup> 간 층층 영기 훈쌍<sup>250)</sup> 불러두고, 화북(花北) 열녀문에 간 열녀비석 세와두고, 저 ㄱ으니무루<sup>251)</sup> 올라간, 아이고 목도 ㄱ웃ㄱ웃 허다.<sup>252)</sup>

베린네<sup>253)</sup> 가난 물도 벤찍벤찍<sup>254)</sup> 헤엇저. 묵은 옷이랑 벗언 가시자왈더레 착착 걸쳐똥, 몸목옥 허영 ㄱ으니모루 동산 올라가난 목이 ㄱ웃ㄱ웃 허엿구나. 송서(訟事) 혈생각이 엿엇구나.

동문(東門)으로 뒤틀젠 허난 동문지기 잡앗구나. 서문(西門)으로 들젠 허난 서문지기 잡앗구나. 남문(南門)으로 들젠허난 남문지기 잡앗구나. 북문(北門)으로 들젠 허난 다 잡앗구나.

동으로 바라보난 동터 오난 월경(月景) 좋다. 동문통<sup>255)</sup> 이름 생명 지와 두고. 서으로 바라보난 지어가는 일경(日景) 좋다. 서문통 이름 생명 지와 두고. 남문통<sup>256)</sup> 이름 생명 지와 두곤, 산짓물<sup>257)</sup> 이름 생명 지와 두고,

이젠 객서(客死)동산에 강 객서비석(客死碑石) 세와 두고 동과양 서과양으로 이름생명 지와 두고 남문통 이름 생명 지와 두고. 저 먹돌세기로<sup>258)</sup> 헤연 이름 생명 지와두

236) ㄱ득: 가득.

237) 뿐 보멍: 모습을 보면서.

238) 서물한집님은: 함덕리(咸德里)의 당신(堂神).

239) 밥 훈직: 밥 한적.

240) 곳디: 마을과 멀리 떨어진 잡목 따위가 우거진 들에.

241) 들굽냥: 두릅나무.

242) 작대기: 막대기.

243) 해당: 해다가.

244) 케우려볼켄: 내던져버리겠다고.

245) 이디 잇엇당: 여기 있었다가는.

246) 소롯질로: 좁은 길로.

247) 대룻질로: 넓은 길로.

248) 층층: 차차

249) 진드르: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너른 들판을 이르는 지명.

250) 훈쌍: 한 쌍.

251) ㄱ으니무루: 제주시 건입동(建入洞)에 있는 지명.

252) ㄱ웃ㄱ웃 허다: 숨이 막혀 힘을 차리지 못해 하다.

253) 베린네: 화북동(禾北洞)의 별도천(別刀川)

254) 벤찍벤찍: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

255) 동문통: 제주시 일도동의 제주성 동문 일대에 있었던 마을을 말함.

256) 남문통: 제주시 삼도동의 제주성 남문 일대에 있었던 마을을 말함.

257) 산짓물: 제주시 건입동(建入洞)에 있는 지명(地名).

고.

이젠 칠성골에 골목도 일곱이로구나. 칠성골에 목도 길다. 일곱이여. 칠성골로 이름 생명 지와 두고. 산짓물에 가난 물도 좋다. 산짓물로 이름 생명 지와 두고. 이제랑 우리 관덕정 마당에 강 이름 생명, 제주시 덩기명<sup>259)</sup> 든 이름 지와시난, 산짓물에 강 네팃골로 헤 앓언 산짓물에 강 우리 산짓물 헤영. 관덕정 마당에 강 느 꼴리 몰라. 나 꼴리 몰라. 앓아시난<sup>260)</sup> 제주 사람덜 투더럽덴 춤<sup>261)</sup> 탁탁 바까가난,<sup>262)</sup>

“아이고, 우리 이디 이시민 놈 더럽게 생각 허난 우리 각각이 빼어정<sup>263)</sup> 얻어먹기가 어떻허니?”

“결랑 기영 험서.”

“큰뜰 애기야, 얼로<sup>264)</sup> 갈타?”

“나도 갈 디 잇우다. 난 동과원(東果園) 나 초지. 서과원 나 초지. 남과원 북과원 초지 허쿠다.

“결랑 기영 허라.”

큰뜰 애긴 과원할망 초지헌다.<sup>265)</sup> 두 번째 뜰애긴 메방(每房)할망 초지헌다. 세 번째 뜰애긴 관할망 초지헌다. 네 번째 뜰애긴 옥(獄)할망 초지헌다. 다섯 번째 뜰애긴 어딜로 가쿠가? 광청(官廳)할망 초지허쿠다. 으섯번째 뜰애긴,

“죽은 뜰애긴 어디로 갈티야?”

“난 산짓물에 강 잇당<sup>266)</sup> 송칩이 뜰애기 물질레<sup>267)</sup> 오민 치메각에 돌랑 강 연양 상고팡에<sup>268)</sup> 들어 강 흡(습)지기<sup>269)</sup> 뉘(升)지기 섬(石)지기 말(斗)지기 난 초지허쿠다.”

“게민 어머니는 얼로 가쿠가?”

“느네, 설젠 허난<sup>270)</sup> 상(上)눌<sup>271)</sup> 건지<sup>272)</sup> 중(中)눌 건지 하(下)눌 건지 씨언<sup>273)</sup> 설엇저. 저 뒤에 배낭 아래나, 감낭<sup>274)</sup> 아래나, 유지낭<sup>275)</sup> 아래나 청대 고대 알로 좌정(坐定)헤영. 느네 일 년 열두 돌(月) 시만국석(新萬穀食) 거두와 오민 과세문안(過歲問安), 일 년에 흥번 문전<sup>276)</sup> ㅋ서 허젠 허민, 오곡씨 헤영 어머니신디 진상 가는 법지법

258) 먹돌세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지명. ‘먹돌세기’는 결이 곱고 매끈한 자잘한 검은 돌을 말함.

259) 덩기명: 다니면서.

260) 앓아시난: 앉아 있으니.

261) 춤: 짐.

262) 바까가난: 빨어가니.

263) 빼어정: 흠어져서.

264) 얼로: 어디로.

265) 초지헌다: 차지한다.

266) 강 잇당: 가서 있다가.

267) 물질레: 물 길러.

268) 연양 상고팡에: 광을 일컫는 말. 영연상고방(靈筵上庫房).

269) 흡지기: 곡식을 지키는 신.

270) 설젠 허난: 얘기 낳으려고 하니.

271) 눌: 주로, 조나 보리, 또는 꿀 따위를 둥그렇게 쌓아놓은 더미.

272) 건지: 건지머리의 준말. ‘건지머리’는 여자가 주로 결혼할 때, 꾸미기 위한 가발 머리.

273) 씨언: 씌어서.

274) 감낭: 감나무.

275) 유지낭: 유자나무.

276) 문전 ㅋ서: 문전코사.

마련해엿우다.

어머님은 애기덜 설젠 허난, 주지<sup>277)</sup> 썩<sup>278)</sup> 서난,<sup>279)</sup> 저 상 뒤에 밧칠성으로 좌정허영. 상(上)눌 건지, 중(中)눌 건지, 하(下)눌 건지 씨영<sup>280)</sup> 애기덜 오곡씨 묻는 법 마련허고, 동창궐(東倉)도 ㄱ득입서.<sup>281)</sup> 서창궐(西倉)도 ㄱ득입서. 남창(南倉)궐 북창(北倉)궐 ㄱ득입서.

한집님은 죽는 법 엿영. 아홉 번 죽영 열 번 도환싱(還生)허고, 산으론 산신(山神)칠성인 듯 물론 요왕(龍王)칠성인 듯 배론 선왕(船王)칠성인 듯.

지방가는 안칠성 밧칠성 부군(富君)칠성 성군(聖君)칠성 안노저<sup>282)</sup> 밧노저 거리노저 질노저 찍입네다.<sup>283)</sup> 이 집안 부제팔명(富者八命) 시겨줍서.

---

277) 주지: 주쟁이. 띠를 엮어 원뿔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쌓아놓은 노적가리에 ‘늑람지’를 두르고 나서, 그 ‘늑람지’의 윗 부분을 덮어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278) 썩: 씌어서.

279) 서난: 설다. 애기가 서니.

280) 씨영: 씌어서.

281) ㄱ득입서: 가득하게 하십시오.

282) 안노저: 안 노자. 안 여비.

283) 찍입네다: 차곡차곡 물건을 쌓다.

## 천지왕본풀이

천지(天地)가 혼합(混合)이 되어옴네다. 천지혼합시 도업(都業)이웨다. 천지혼합시 도업을 드리시난, 천지가 계벽(開闢)이 신이수퍼 옴네다. 천지계벽시 도업이웨다.

천지계벽시 도업을 드리시난, 상갑저년(上甲子年) 갑저월(甲子月) 갑저시(甲子時)엔 하늘 머리 열립데다. 을축년(乙丑年) 을축월(乙丑月) 을축시(乙丑時)엔 땅이 머리 지늦 추난 떡징<sup>284</sup> 굴이<sup>285</sup> 굽이<sup>286</sup> 나난, 높으고 높은 건 하늘이여. 검고 흠어진 건 땅이라근. 밤도 왁왁 일목고 낮도 왁왁 일목고 허난, 천하독(天皇鷄)은 목을 들러 즈지반 반 울어옴데다. 지에독(地皇鷄) 출릴<sup>287</sup> 들렁 즈지반반 울어옴데다. 인왕독(人皇鷄) 활기<sup>288</sup> 들러 즈지반반 울어오난, 갑을동방(甲乙東方)은 니엄 들러<sup>289</sup> 옴네다. 경진서방(庚辛西方) 출릴 치고 남북방 활기 치난 먼동 금동<sup>290</sup> 대명천지 붉는<sup>291</sup> 날이 되어옴네다.

붉은 날이 뉘난, 흰 하늘엔 해도 둘, 흰 하늘엔 돌(月)도 둘이 뜨고 허난, 낮인 백성 덜 좇아<sup>292</sup> 죽게 되어갑데다. 밤인 백성 곳아<sup>293</sup> 죽게 되어가난,

천지왕님은 인간 총명부인 부베간(夫婦)을 삼으난, 깊은 사려듭서. 천근(千斤) 들어 쌀(矢) 훈뉘<sup>294</sup> 백근(百斤) 들어 활 훈뉘. 앞이 오는 해 하나 쟁겨두고,<sup>295</sup> 뒤에 오는 해 하나 마천<sup>296</sup> 서게섭제 시킵데다. 밤인 오난 앞이 오는 돌(月) 하나 쟁겨두고, 뒤에 오는 돌 하나 마천 서기섭제 시기난, 낮이는 해도 허나,<sup>297</sup> 밤이는 돌도 허나, 인간 평균허게 살기가 되어가난,

천지왕은 옥황 사름이랑 옥황더레 도올를 때,

“총명부인님아, 애기랑 낳건 아들성제<sup>298</sup> 낳건 대별왕 소별왕 이름생명 지으시고, 딸랑 낳건 대털왕 소털왕 이름생명 지와두고 꼭씨<sup>299</sup> 방시 시 방울<sup>300</sup> 이거 정월 첫뎃날(初亥日) 정일에 당허건<sup>301</sup> 올 안네 심으렌.”

헤여 뉘. 천지왕은 옥황더레 도올르난 총명부인 아덜 성제 납데다.

284) 떡징: 시루떡을 질 때 소를 넣어 뉘 수 있게 한 층계.

285) 굴이: 같이.

286) 굽이: 굽이. 그릇이.

287) 출릴: 꼬리를.

288) 활기: 날개.

289) 니엄 들어: 잇몸 들어. 열리는 모습의 표현임.

290) 금동: 금동(金東). 동쪽 하늘이 밝아옴.

291) 붉는: 밝는.

292) 좇아: 좇아. 몹시 덥고 말라서.

293) 곳아: 시리어.

294) 훈뉘: 한 뉘.

295) 쟁겨두고: 생기게 두고.

296) 마천: 맞혀서.

297) 허나: 하나.

298) 아들성제: 아들형제.

299) 꼭씨: 박씨.

300) 시 방울: 세 방울.

301) 당허건: 날이 되면.

문저<sup>302)</sup> 나는 건 대별왕 나중 나는 건 소별왕. 콧방시 정월 쳇 돛날 울 안네 심  
오난, 훈 콧 줄은<sup>303)</sup> 땅더레 줄이 번고 훈 콧 줄은 옥항더레 줄이 번읍데다.

아들 성젠 열다섯 십오세가 뒤편가난 아방국도 훗아보져<sup>304)</sup> 허난, 콧줄 올라가는  
데로 옥항더레 도올르난,

“설운 애기덜아, 오긴 잘 오랏저만은<sup>305)</sup> 느넨 인간 사름이난 인간더레 노려강<sup>306)</sup>  
인간사는 법을 마련허렌.”

허난, 옛날 천왕세 시절 지왕세 시절 인왕세 시절. 태고복고세(太古復古) 시절 유순  
유아씨 칼천씨 무안씨 혼돈씨 호양씨 공공씨 열다섯 십오생인 시절 산엔 가민 산짐승  
코 놓앙 잡는법. 물엔 가민 물고기 그물 치영 잡는 법. 이 섬에서 저 섬더레 가젠 허  
민 올곧고 실곧은 낭<sup>307)</sup> 헤여당<sup>308)</sup> 터위선 멘들앙 넘어가고 넘어오곡, 풍선 장선 돌  
앙 탕<sup>309)</sup> 덩기곡 발전허난, 기계 어선 멘들앙 탕 덩기는 법을 마련허곡,

남을 허영<sup>310)</sup> 쟁기 멘들앙 농업허영 세경 너른 땅 오곡농서 지어먹는 법을 마련허  
영. 인간더레 내려강 살렌허난 대별왕 소별왕은 내려오단,

“성님아, 저레<sup>311)</sup> 바라봅서.<sup>312)</sup> 어떤 낭은 스시소철<sup>313)</sup> 잎이 아니 지고, 어떤 낭은  
동지 석덜 설한풍 백설(白雪) 곱은 눈뽕에에 잎이 아니 집네쎈.”

허난,

“나 동생아, 속이 탕탕 읊은 낭은<sup>314)</sup> 잎이 아니 지고, 속이 구린<sup>315)</sup> 낭은 잎이 진  
덴.”

허난,

“성님아, 그말 많서. 왕대(王竹) 죽대 소(小)죽덴 속이 탕탕 구려도 백설곱은 눈뽕에  
라도 잎이 아니 지옵네덴.”

허난,

“그건 나 동생아, 무디무디<sup>316)</sup> 탕탕 읊아 진다.”

그 말도 성님 말이 맞구나.

“게민 성님아, 어떻허난, 동산에 풀은 메가<sup>317)</sup> 즐르고<sup>318)</sup> 굴렁에 풀은 메가 집네

302) 문저: 먼저.

303) 훈 콧 줄은: 한 박 줄은.

304) 아방국도 훗아보져: 아버지 나라도 찾아가 보져.

305) 잘 오랏저 만은: 잘 왔다 만은.

306) 노려강: 내려가서.

307) 낭: 나무.

308) 헤여당: 해다가.

309) 돌앙 탕: 달아서 타고.

310) 남을 허영: 나무를 해서.

311) 저레: 저기에.

312) 바라봅서: 바라보세요.

313) 스시소철: 사시사철.

314) 읊은 낭은: 여문 나무는.

315) 구린: 고린.

316) 무디무디: 마디마디.

317) 메가: 묘종이.

318) 즐르고: 짧고.

깁네.”<sup>319)</sup>

허난,

“그건 나 동싱아, 비가 오민 동산에 물 굴렁지난 큰 장단 굴렁엔 메가 질고 동산엔 메가 부뜨니라.”<sup>320)</sup>

“성님아, 어떻허난, 사름은 쇠대자 수페머리가<sup>321)</sup> 뉘여지고 무릅에 털은 메가 즐릅 네깁네.”

허난,

“사름은 부모 혈속 탄싱혈 때 머리, 소듬물이 문저 나난 머린 쇠대자 수페머리가 뉘여지고, 무릅에 털은 메가 즐릅덴.”

허난, 그말도 일리가 잇영 성님말이 맞수덴 허영. 내려오다근

“성님아, 읍서. 우리 은수반에 꽃이나 싱경,<sup>322)</sup> 번성꽃<sup>323)</sup> 허는 자랑 인간 어멍국 초질 허고,<sup>324)</sup> 검뉴울꽃<sup>325)</sup> 허는 자랑 저승 아방법 마련허게마씀.”

“결랑 기영허라.”

남동이<sup>326)</sup> 초동이에 은수반에 꽃을 싱경 즈술<sup>327)</sup> 허엿구나. 성님은, 천장만장 자고, 소별왕은 거짓 잠을 장 바라보난, 성님앞에 꽃은 동청목(東靑木) 서백금(西百金) 남적화(南赤火) 북혜수(北黑水)가 뉘엿구나.

소별왕 앞이 꽃은 검뉴울꽃이 뉘난, 성님 앞이 꽃은 낭 앞더레 동겨 두고,<sup>328)</sup> 나 앞이 꽃은 성님 앞더레 밀리난에,

“성님아, 무신 즈을 그리 잠이꽈? 읍서. 일어낭 꽃상구나<sup>329)</sup> 허게마씀.”

성님은 일어나명 말을 허뉘,

“나 동싱아, 서로 꽃은 선후도착(先後倒錯)이 뉘엿저만은 느랑 인간법 마련허라.”

난 저싱법을 마련허마 만든. 인간은 살젠 허민 강적도 만허리라. 수적도 만허리라. 남즈즈식<sup>330)</sup> 열다섯 십오세가 뉘여가민 놉이집 처녀 울러러 보기 마련허고, 놉이 집 처녀 열다섯 십오세가 뉘여가민 놉이집 총각 울러러 보기 마련허고, 나 앞이 거 보단 놉 앞이 것이 커 베고<sup>331)</sup> 견물생심이라 눈을 트민 탐욕이 잇는 법 마련허고, 눈을 곱으면<sup>332)</sup> 욕심이 엇어근 저싱법은 주년날 춤썰 곱은<sup>333)</sup> 법이로구나.

대별왕은 저싱법 소별왕은 이승 농장법, 인간법을 마련허영. 대별왕은 저싱법 소별

319) 깁네깁: 깁니까.

320) 부뜨니라: 짧으니라.

321) 쇠대자 수페머리: 길고 형클어지는 머리.

322) 싱경: 심어서.

323) 번성꽃: 번성 꽃.

324) 초질 허고: 차지를 하고.

325) 검뉴울꽃: 시들어가는 꽃.

326) 남동이: 나무 동이.

327) 즈술: 잡술.

328) 동겨 두고: 당겨 두고.

329) 꽃 가꾸기 내기.

330) 남즈즈식: 남자자식.

331) 커 베고: 커 보이고.

332) 곱으면: 감으면.

333) 춤썰 곱은: 명주실 같은.

왕은 이싱법 저싱 이싱 대소별왕 곱 갈르는 도업이워드예.

## 차사본풀이

옛날 옛적 처서(差使)님 난산국 본산국 신노립서. 옛날 옛적에 낳은 동경국 버물왕 아덜덜<sup>334</sup> 삼삼은 구 아흡성제 사옵데다. 우이로도<sup>335</sup> 삼형제 명(命)이단단(短短) 즐안 헤여.<sup>336</sup> 알로도 삼형제 명이단단 즐안 헤영. 가운데 삼형제 남앗구나.

동계낭은중절(東觀音殷在寺) 서계낭금법당(西觀音金法堂) 낭계(南觀) 상상(山上) 메양<sup>337</sup> 올라 한동절 부처 지컨<sup>338</sup> 대서님이 소서(小師) 꿈에 선몽(現夢) 허영.

“소서야, 소서야. 너는 무신 즘을<sup>339</sup> 그리 자느냐? 날랑 죽건 남천바리<sup>340</sup> 들영 불화식을 시경<sup>341</sup> 옥황더레 지올려두고 널랑 대서(大使)로 들어상<sup>342</sup> 동경국 강 버물왕 아덜덜 소서로 드러 세우라.”

대서님은 죽엇구나. 남천바리 들영 불화식을 시경 옥황더레 지올려두고. 소서는 대서 행차<sup>343</sup> 출려간다<sup>344</sup>. 훈침 질러<sup>345</sup> 굴송낙<sup>346</sup> 두침 질러<sup>347</sup> 비랑잠상(長衫) 백파염주(百八念珠) 목에 걸엇구나.

인간땅더레 소곡소곡 도노리난,

“동경국땅 버물왕 아덜덜 너히들 낳기는 잘 낳구나만은 열다섯 십오세 소고전명이(四苦定命) 메긴<sup>348</sup> 듯 허는구나.”

“죽을 점(占)은 허민 살 점은 못헉네까?”

“이 애기덜 살리컨덜랑 데공단고칼<sup>349</sup> 드령 머리 삭발허영 우리 절간법당에 오랑 열다섯 십오세 소고전명 잇영<sup>350</sup> 갑서.”

이 아기덜 머리삭발허영 동경국 버물왕이 아덜덜,

“너네들 집 베깃디<sup>351</sup> 나가민 고생이로구나.”

붉은비단 푸른비단 노린비단<sup>352</sup> 시필씩<sup>353</sup> 내여주엇구나. 은깃(銀器)짐도 내여주고 늦기짐도 내여주난, 절간법당 들어간다. 큰성님은<sup>354</sup> 복을 친다. 돌젯아시<sup>355</sup> 바라 친

334) 아덜덜: 아들들.

335) 우이로도: 위로도.

336) 즐안 헤연: 짧고 하여서.

337) 메양: 늘.

338) 지컨: 지킨.

339) 무신 즘을: 무슨 잠을.

340) 남천바리: 나무 천 바리.

341) 불화식을 시경: 화장을 해서.

342) 들어상: 들어서서.

343) 대서 행차: 대서님 형제.

344) 출려간다: 차려간다.

345) 훈침 질러: 고깔 꼭지의 모양.

346) 굴송낙: 고깔.

347) 두침 질러: 장삼 소매자락의 모양 표현.

348) 메기: 아무 것도 없거나, 하던 것이 ‘끝’임을 나타내는 말.

349) 데동단고칼: 중의 머리를 깎는 칼이라 함.

350) 잇영: 이어서.

351) 베깃디: 밖에.

352) 노린비단: 노란비단.

353) 시 필씩: 세 필씩.

다. 죽은아신<sup>356</sup>) 염불(念佛)공덕(功德) 허엿구나.

어서 이제랑 상단 중단 하단 원불(願佛)하단 보난, 절도 파락(擺落) 뒤편 뒹고, 당도 파락 뒹게 뒹난, 인간땅에 도노령 시권제삼문(勸濟三文) 반양 오렌 허영.

시권제삼문 받으레 땡기단<sup>357</sup>) 보난, 해는 열락서산(連落西山) 다 지엿구나. 저 들(月)은 곱기는 곱다만은 계수나무 박히고 우리 동넨 비추건만은, 우린, 우리 동네 우리 부모님 못 보난,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허난 견딜 수가 엿엇구나.

“어서, 이제 대서님신디 강<sup>358</sup>) 어머니 아버지 얼굴 상봉 시겨주렌 허기가 어떻허 파?”

“결랑 기영 허게.”

대서님신디 강,

“대서님아, 대서님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얼굴 상봉 허영 오쿠다.”

“서른 애기덜아, 가지 말라.”

아멩헤도<sup>359</sup>) 갓당 오쿠덴 허난, 게결랑 가기랑 가라만은 과양땅이랑 들지 말앙 가라.

“결랑 기영 헉서.”

대서님이 은깃집도 내어준다. 늦기집도 내어준다. 비단집도 내어주엇구나. 절간법당 하직헌다. 부처님전 하직헌다.

소곡소곡 내려오단 보난 과양땅이 잇엇구나. 과양생이 지집년 네 귀에 풍경 돌런<sup>360</sup>) 잘 살암구나. 앞더레는<sup>361</sup>) 혼 자국을 노민<sup>362</sup>) 뒤터레는<sup>363</sup>) 두 자국을 놓안 배고프고 시장허영 갈 수가 엿엇구나.

광양생이 집더레 들어가난, 어떻게연 중이, 서이씩<sup>364</sup>) 우리집더레 들어왓시니? 귀중들 귀 잡으멍 내훈둘리렌<sup>365</sup>) 허난,

“우리도 본래 중이 아납네다.”

동경국땅 버물왕이 아들인디 열다섯 십오세 소고전명이 메길 듯 헤여근에, 멩(命)광<sup>366</sup>) 복(福)을 잇어 주고 오는 길입니덴 허난, 아이고, 버물왕의 아들이엔 허난 나중 에 무신<sup>367</sup>) 일이나 생기민 어떻허코 헨. 식은밥에 물즙이<sup>368</sup>) 내어준다. 숟가락 세 개 쿡박세기에<sup>369</sup>) 걸천<sup>370</sup>) 내어주난, 그거 혼 두 숟가락씩 먹으난 정신이 낮구나.

354) 큰성님은: 큰형님은.

355) 돌췌아시: 둘째동생.

356) 죽은아신: 작은동생은.

357) 땡기단: 다니다가.

358) 강: 가서.

359) 아멩헤도: 아무래도.

360) 돌런: 달아서.

361) 앞더레는: 앞쪽으로는.

362) 노민: 놓으면.

363) 뒤터레는: 뒤쪽으로는.

364) 서이씩: 세 명이나.

365) 내훈둘리렌: 휘두르라고.

366) 멩(命)광: 명과.

367) 무신: 무슨.

368) 물즙이: 물에 만 밥.

시장기가 물렸구나.<sup>371)</sup> 아이고, 놈이 거, 공(空) 거 먹으민 등 걸리곡 목 걸리는 법이라. 은기짐도 부려논다. 늦기짐도 부려논다. 비단짐도 부려놓았구나. 멩지비단 석자씩 아홉 자를 끊어 주난, 과양생이 지집년 천하아래 거부제(巨富者)로 살아도 요런 비단은 아니 보아났구나. 은기짐에 탐이 나는구나. 늦기짐에 탐이 나는구나. 비단짐에 탐이 나는구나. 엇인<sup>372)</sup> 영강<sup>373)</sup> 부려간다. 열두 가지 구에반상<sup>374)</sup> 출려 논다.<sup>375)</sup>

“요 술 혼 잔<sup>376)</sup> 먹으라. 요 술 혼잔 먹으민 천년이나 산다. 만년이나 산다.”

혼 잔 술을 권허난, 아니 먹어난 거 먹으난 고얌약주<sup>377)</sup> 한약주 열약주가 뉘연. 동서더레 박아지엇구나. 요때를 놓칠세라. 과양생이 지집년 삼년 묵은 곤장<sup>378)</sup> 물에 육년 묵은 참지름<sup>379)</sup> 수왕수왕 꺾와단<sup>380)</sup> 웬귀로 늑단귀레,<sup>381)</sup> 늑단귀로 웬귀더레 질어 부난<sup>382)</sup> 얼음산에 구름 녹듯, 구름산에 얼음 녹듯 죽엇구나.

죽어부난, 과양생이 지집년 놈신디 굴민<sup>383)</sup> 나중에 탄로가 나고 가멩이덜에<sup>384)</sup> 툭 툭 몽크려단<sup>385)</sup> 돌 돌아메멍 주천강(酒泉江) 연훼못(蓮花池)더레 다 들이쳐 불엇구나. 주천강 연훼못디 돌 돌아메멍 들이쳐부난,

뒷날은 아멩헤도 시체나 떠신가 안 떠신가 아무 기척이 엇인가 간 보젠 가난, 물(馬) 물 먹이레<sup>386)</sup> 과양생이 가난, 삼석백이 고장(花)이<sup>387)</sup> 잇엇구나. 다시 과양생이 지집년 연세답<sup>388)</sup> 허는 핑계 허연 간 보난, 삼석백이 고장이 잇엇구나.

나에게 테운<sup>389)</sup> 고장이건 나 앞더레 오렌. 물막게로<sup>390)</sup> 종긱종긱 동겨가난,<sup>391)</sup> 종긱 종긱 오라간다. 툭툭 꺾어 오란, 집이 오난 하도 고와지난 앞문전(前門前)에 허나 쫓나.<sup>392)</sup> 뒷문전(後門前)에 허나 쫓나. 쟁깃지동에<sup>393)</sup> 허나 쫓나. 들어갈 때 나갈 때 앞 설작도<sup>394)</sup> 복히 메엇구나.<sup>395)</sup> 뒷설작도 복히 메엇구나. 아이고, 요 꽃은 곱기는 곱다

---

369) 국박세기에: 박세기에.  
 370) 걸천: 걸쳐서.  
 371) 물렸구나: 가졌구나.  
 372) 엇인: 없는.  
 373) 영강: 아양.  
 374) 구에반상: 잘 차린 상.  
 375) 출려 논다: 차려 논다.  
 376) 혼잔: 한잔.  
 377) 고얌약주: 독한 술이라는 뜻.  
 378) 곤장: 간장.  
 379) 참지름: 참기름.  
 380) 꺾와단: 피서.  
 381) 웬귀로 늑단귀레: 왼 귀로 오른 귀에.  
 382) 질어부난: 부어버리니.  
 383) 놈신디 굴민: 놈한테 말하면.  
 384) 가멩이덜에: 가마니에.  
 385) 몽크려단: 말아서.  
 386) 먹이레: 먹이려고.  
 387) 삼석백이 고장이: 3색이 박힌 꽃이.  
 388) 연세답: 빨래.  
 389) 테운: 주어진 ‘복을 타고나다’의 ‘타다’의 사동관형사형.  
 390) 물막게로: 빨래방망이.  
 391) 동겨가난: 당겨가니.  
 392) 허나 쫓나: 하나 쫓는구나.  
 393) 쟁깃지동에: 상방(上房)과 큰방 사이의 기둥에.

만은 행실이사 낮아지다.<sup>396)</sup> 박박하게 부변<sup>397)</sup> 정동아리(靑銅火爐)에 불 탁 진어불었구나. 동네 청대산이 마고할망 불 담으레 왔구나. 불 담으레 오난, 불은 혜천 보난 불은 하나도 엇고 삼석백이 구실이<sup>398)</sup> 잇었구나.

“애기 어멍아, 불은 엇고 구실만 잇영 봉강<sup>399)</sup> 가노렌.”

허난,

“이 할망, 저 할망 어떻헌 할망이라. 놈이 정동아리에서 구실 봉그민<sup>400)</sup> 쥐동 가사주. 앓영 간덴 헌 말이 무신 말이니.”

복허게 빼앗안 요레 노민<sup>401)</sup> 요레 시 방울<sup>402)</sup> 도로록, 저레 노민 저레 시 방울 도로록 입더레 노난 오장육부더레 솔솔허게 다 들어가 불었구나.

솔솔허게 다 들어가 부난, 그게 포테(胞胎)가 뒤. 아방 몸엔 석 덜 열흘 어멍 몸에 석 덜 열흘 아호 열덜 감아 준삭(準朔) 찬, 낳는 건 보난 아덜 삼형제가 솟아났구나.

이 애기덜 노는 건 글소리, 자는 건 활소리, 천하문장(天下文章) 지하문장(地下文章) 뒤었구나. 서울 상시관(上試官)이 과걸 보레 가난, 큰아덜은 문성급제(文成及第) 과거 보레 간다. 둘째 아덜 장원급제(壯元 과거보레 간다. 죽은아덜 팔도(八道) 올라 도자원 과거 보레 올랐구나. 청일산(靑日傘)도 내여준다. 백리산(白日傘)도 내여준다. 삼만 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와라치락 와라치락 내여 주어 가는구나.

아이고, 내여 주난, 이젠 과거 보레 오는디 과양생이 지집년 높은 동산에 올라간 아이고, 우리 애기들은 어느 문섭에나 강 산 울엄신지, 우리 애기덜은 어디로 가시고. 과거 본 저 집이 애기덜 혼날 혼시에<sup>403)</sup> 목 데맹이<sup>404)</sup> 확 그차지렌<sup>405)</sup> 후육만발<sup>406)</sup> 허단 보난 과양생이네 집더레 과거문안(科擧文案)이오.

과양생이 지집년 우리 애기덜신디 죽으렌 욱 헤여졌구나. 이 노릇을 어떻허민 조으코. 갈라정<sup>407)</sup> 춤 바끄민<sup>408)</sup> 나 앞더레 든덴 헨게. 이 노릇을 어떻허민 조으코. 산천에서 테운 애기덜 터신, 지신(地神)에서 길르난<sup>409)</sup> 문전제(門前祭)나 허주. 문전제 지내언 아들 삼형제 절 삼베(三拜) 허난 그만 소곡소곡 다 거꾸라 지었구나. 소곡소곡 거꾸러 지난 문<sup>410)</sup> 죽었구나. 앞बाट디도<sup>411)</sup> 출벙막<sup>412)</sup> 뒷बाट디도 출벙막 윽बाट디도<sup>413)</sup>

394) 앞설작도: 앞 살쩍. ‘살쩍’은 뺨의 귀 앞에 난 머리털을 말함.

395) 복허 메었구나: 인정사정 없이 뽑았구나.

396) 행실이사 낮아지다: 행실이 낮아지다.

397) 부변: 비벼서.

398) 구실: 구슬.

399) 봉강: 주워서.

400) 봉그민: 주웠으면.

401) 노민: 놓으면.

402) 시 방울: 세 방울.

403) 혼날 혼시에: 한날 한시에.

404) 목 데맹이: 목 머리.

405) 그차지렌: 베어지라고.

406) 후육만발: 욱을 하다.

407) 갈라정: 누워서.

408) 춤 바끄민: 침 뱉으면.

409) 길르난: 키우니.

출병막, 출병막을 헤여두고. 짐치고을 짐치원님 송서(訟事) 절체<sup>414</sup> 잘 헌덴 허난,

“나 송서절체도 허여줍서.”

송서 절첵 헤연. 못 허난, 높은 동산 올라간

“개 곁은 짐치원님아. 쉼 곁은<sup>415</sup> 짐치원님아. 송서 절체 잘 헌덴 허연게. 나 절첵 무사 아니 허여 줘수과?”

송서 절첵 아니 허난 후육만발 허엿구나. 저년신디 저 욱 들영 어떻 살건고. 원님 아니 살젠 허난, 강파두가 허는 말이,

“이 마을에<sup>416</sup> 똑똑허고 역력헌<sup>417</sup> 강림이 혼 아홉 설부터 장 안내 장 베끼디<sup>418</sup> 아홉 각시 여례덱(十八) 기생첩 각시 행 살아도 싸움엇이 사는 강림이, 똑똑헌 강림이, 역력헌 강림이. 사흘 낮밤 상관장(上官場)에 꺨(關)을 메영, 너 저승 강 염례왕님을 청해 오겠느냐? 여기서 장 안내 목심을<sup>419</sup> 바치겠느냐? 행, 강 염례왕 청행<sup>420</sup> 오켄 허걸랑 그때랑 송서 절첵 헉서.”

걸랑 기영 허렌 허연. 강림인, 사흘 낮밤 상관장에 꺨을 메겿구나.

“너 저싱 강<sup>421</sup> 염례왕을 청행 오겠느냐? 이싱서<sup>422</sup> 장 안내 목심을 바치겠느냐?”

강림인 7만히<sup>423</sup> 생각허영 보난, 강림이 큰각시 열여덱에 장게 간 각시만 각시만 연영 덩기명<sup>424</sup> 큰각시 이때꼬지 안 보살피난 큰각시 올린 췌나<sup>425</sup> 뵈는가? 허연 잘 못허고렌 곱아뵈<sup>426</sup> 죽어도 죽자 헨.

“가당 죽어도 저싱 강 염례대왕 청행 오것습네다.”

강림이 성방청(城房廳)에 들어 강,

“날 살립서.”

“난 모른다.”

이방청(吏房廳)에 들어 강,

“날 살립서.”

“난 모른다.”

삼만관속 육방하인

---

410) 문: 모두.

411) 앞밭디도: 앞밭에도.

412) 출병막: 가매장.

413) 윗밭디도: 옆밭에도.

414) 절체: 처리.

415) 쉼 곁은: 쇠 곁은.

416) 마을에: 마을에.

417) 역력헌: 용감한.

418) 베끼디: 밖에.

419) 목심을: 목숨을.

420) 청행: 청해서.

421) 저싱 강: 저승 가서.

422) 이싱서: 이승에서.

423) 7만히: 가만히.

424) 덩기명: 다니면서.

425) 췌나: 죄나.

426) 곱아뵈: 말해두고.

“날 살림서.”

“난 모른다.”

강림이 살릴 자 엇엇구나. 어디 가코. 강림이 큰각시 좃아 강 보난, 굴묵낭 방에<sup>427)</sup> 도에낭<sup>428)</sup> 절구에 이어동동 방에를 지엄구나. 강림이 들어 가가난,

“저 올레에 가시 걷어십디가? 정살낭을<sup>429)</sup> 앓아십디가?”

그말 저말 대답 안허연 방 안에 들어간 보난, 금상(金像)이불 원앙(鴛鴦)이불 잣베게 정동아리 허연. 으망지고<sup>430)</sup> 깨끗허고 암전허게 헤영 살암구나.

옛날은 홀어멍 살림은<sup>431)</sup> 정동아리 허여놓고, ㅋ컬이<sup>432)</sup> 으망지게 잘살고, 홀아방은 혼자 살민 동정에<sup>433)</sup> 굴테가<sup>434)</sup> 놓고<sup>435)</sup> 거죽문에 웨돌처기 돌앙<sup>436)</sup> 사는법. 홀아방은 혼자 살 수 엇고, 홀어멍은 옛날부터 혼자 살아도 으망지고 깨끗허고 잘사는 법이 뉘엇우다.

강림이 큰각시 아멩헤도 남인 가정이고 서방 아니 얻영 가난, 강림이허고 큰각신 점심 상 들어가난, 비세(悲鳥)굴이<sup>437)</sup> 울엄구나.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그만씩 헌 말 골은 것에<sup>438)</sup> 경<sup>439)</sup> 읍데가. 여자엔 허는 건 산 앞더레 돌아산 소피보민 치메깍 젓는 줄 모르는 건 여자의 좁은 속절로 저 올레에 가실 걷어 십데가. 정살낭을 걷어 십데가. 영 헌건, 오랜만이 왓젠 그 말이 우다.”

허난,

“그 말이 아니라. 사흘 낮적 상관정에 걸을 메기난 저싱 강 염레왕을 청행 오겠느냐? 이싱서 목심을 바치겠느냐? 영허난, 당신신디 열여덱에 시집 장게 간 이때꼬지 잘못 허엿젠<sup>440)</sup> 말도 못허고 영 허연. 잘못 헛젠 말이라도 골아뵤<sup>441)</sup> 죽어도 죽젠 오랏고렌.”

허난,

“이 어른아, 저 어른아. 문 안내도 아홉 각시 문 베깃디도 아홉 각시, 기생첩 이구 십팔 여레뵤 아홉 각시 행<sup>442)</sup> 살충은<sup>443)</sup> 알고 저싱은 갈 중 모릅디가? 저싱 가젠 허

427) 굴묵낭 방에에: 느티나무 방아에.

428) 도에낭: 복숭아 나무.

429) 정살낭을: 정낭을.

430) 으망지고: 야무지고.

431) 살림은: 살림은.

432) ㅋ컬이: 깨끗이.

433) 동정에: 저고리의 깃 부분.

434) 굴테가: 좀처럼 닦아지지 않게 붙어 있는 때.

435) 놓고: 묻고.

436) 돌앙: 달아서.

437) 굴이: 같이. 처럼.

438) 골은 것에: 말한 것에.

439) 경: 그렇게.

440) 허엿젠: 하였다고.

441) 골아뵤: 말해두고.

442) 행: 해서.

443) 살충은: 살줄은.

민 저싱 문셀(文書) 내여놓서.”

저싱 문세 내여논 건 보난, 힌 종이에 검은 글을 썩 쫓구나.

“헌 일 알고 두 일 모른 어른아. 이것은 인간 글입네다. 이 글 앓양<sup>444</sup> 검은 머리가 백발이 뒤여도 저싱 못 갑네다.”

“저싱 글은 어떤 글이 뒤겠느냐?”

붉은 종이에 힌 글이 뒤네다. 사름은 죽으민 붉은 토맹지<sup>445</sup> 석자 시치에 힌 글 베기는 법. 이제도 맹전법(銘旌法)을 마련허영 저싱 가는 법입네다.

강림인 동안(東軒)마당 들어간

“아이고, 원님아, 원님아. 이건 인간 글이주. 저싱 글 아니엔 험데다.”

“누게가 곧더냐?”<sup>446</sup>

“소인의 계집이우다.”

강님이 큰각시는 역시 똑똑허고 역력허구나. 붉은 토맹지에 석자 시치에 힌(白) 글은 엇엇구나. 계란 한알 까 놓안. 획획 젓언 붓으로 획획 썩. ㅁ물ㄱ루<sup>447</sup> 뿌런 허난 힌 글이 뒤엇구나.

강님이 동안마당 적베지<sup>448</sup> 바깥 오는 세에<sup>449</sup> 강님이 큰각신 조왕할망<sup>450</sup> 꿈에 선몽허엇구나. 너히 낭군 살아서도 호서(好事)로구나. 죽영 가도 호서난 저싱 입성(衣服) 허여주라.

저싱 입성 남방사주(藍紡沙紬) 봉에말바지<sup>451</sup> 북방사주(白紡沙紬) 저고리 백농(白綾) 보선<sup>452</sup> 웨코 접안<sup>453</sup> 종이 반들 낙곡지로<sup>454</sup> 돌을<sup>455</sup> 메어 금산비산 한두루막<sup>456</sup> 운문대단(雲紋大緞) 안 받치고, 홍포관대(紅袍冠帶) 조심띠 허우레비 허튼끈, 소공단에 제웅끈, 제웅단에 불림끈 윈 풀을<sup>457</sup> 졸라 간다. 윈 다리를 묶어간다. 관장페는 등에 지고 적베지는 콤에<sup>458</sup> 콤고 홍사줄은<sup>459</sup> 율이<sup>460</sup> 차고 저싱 질이 멀다더니 창문 베곶<sup>461</sup> 저싱이로구나. 강림이 큰각시 정심을<sup>462</sup> 허여 주는디 백시리를<sup>463</sup> 지엇구나.

---

444) 앓양: 갓고서.

445) 토맹지: 제주에서 짠 명주로 무게도 있고 독특했다고 함.

446) 곧더냐: 말하더냐.

447) ㅁ물ㄱ루: 메밀가루.

448) 적베지: 제주 무속에서 ‘명왕(名王)’의 명을 기록한 문서.

449) 바깥 오는 세에: 바꾸고 오는 사이에.

450) 조왕할망: 부역을 지키는 신(神).

451) 봉에말바지: 솜을 넣어 만든 바지.

452) 보선: 버선.

453) 웨코 접안: 코를 접어서.

454) 낙곡지로: 백지(白紙)로.

455) 돌을: 들메끈을.

456) 한두루막: 두루마기.

457) 윈 풀을: 윈 팔을.

458) 콤에: 품에.

459) 홍사줄은: 죄인을 묶는 줄은.

460) 율이: 옆에.

461) 베곶: 밖.

462) 정심을: 점심을.

463) 백시리를: 하얀 백설기 떡.

흔 징은<sup>464</sup>) 문전하르바님 나시오.<sup>465</sup>) 흔 징은 조왕할망 나시오. 흔 징은 강림이 나시오. 시리를 지영 정심을 출려<sup>466</sup>) 노난,

“저싱 갈 시간이 돼엿우다.”

저싱더레 신 돌려난, 창문 베깃으로 신 돌려 노난 저싱이로구나.

강림이는 저싱더레 가는 질에, 저 먼정 나사난, 어명헌 할망이 양글조침<sup>467</sup>) 걸엄구나. 아이고, 여자엔 헌 건 꿈에만 시꾸와도<sup>468</sup>) 새물(邪物)이엔 허건만은, 어명헌 할망이 저싱더레 가는디, 저싱 질에 질을 갈람신고.

강림이가 돌아가민 할마님도 돌아간다. 강림이가 걸어가민 할마님도 걸어간다. 일읍 요덱(七十八) 공걸음질 근당(近當)허난 할마님이 숨비기소리 허멍 쉬엄구나. 강림인 필아곡절(必有曲折)허다. 백 보 베깃디서<sup>469</sup>) 절 삼베를 헤여 놓고 통성명을 허난 조왕 할망 이라낫구나.

너히 각시네 조왕할마님인디 너 행실은 궤썸허나 저싱더레 질 인도허레 나왔노렌 허난,

“아이고, 조왕할마님 엿이민 화덕진거(火德辰居) 날 우려가 잇이난 흔저<sup>470</sup>) 들어갑서.”

“저싱 질을 7리쳐동<sup>471</sup>) 가마. 올로<sup>472</sup>) 저레 가가민 전일월 전병서(前日月 前兵使)도 들어가는 질, 신일월 신병서(新日月 新兵使)도 들어가는 질이여.”

원양감서(元王監司) 원병서(元兵使), 시왕감서(十王監司) 신병서(新兵使), 어서(御使) 두서 짐치원네 범골은<sup>473</sup>) 스천대왕(四千大王)이 들어가는 질이로구나.

제일전(第一轉)에 진강대왕(秦廣大王) 들어가는 질, 초강대왕(初江大王)이 들어가는 질, 송제대왕(宋宋大王)이 들어가는 질, 오관대왕(伍官大王) 들어가는 질, 다섯 염레대왕(閻羅大王)이 들어가는 질, 요섯 번성대왕(變成大王) 들어가는 질, 일곱은 태산대왕(泰山大王)이 들어가는 질, 요덱 평등대왕(平等大王), 아홉 두시, 열 십전대왕(十轉大王), 지장(地藏) 생불(生佛) 좌두불(左頭佛) 열다섯 십오동저(十五童子)판관(判官)이 들어가는 질, 예레섯 십육소제(十六使者)가 들어가는 질, 천왕처서(天王差使)가 들어가는 질, 지왕처서(地王差使)가 들어가는 질, 인왕처서(仁王差使)가 들어가는 질, 옥황처서(玉皇差使) 금부도서(禁府都事) 저싱처서 이원서제 이싱처서 강림처서 들어갈 질은 보난, 게염지<sup>474</sup>) 웬빨만이<sup>475</sup>) 헌 질이로구나.

들어가단 바려 보난, 질토레비<sup>476</sup>) 질감관(道感官) 질을 닦으단 베고프고 시장허연

464) 흔 징은: 한 층은.

465) 나시오: 몯이오.

466) 출려: 차려.

467) 양글조침: 영거주춤.

468) 시꾸와도: 나타나도. 보아도.

469) 베깃디서: 밖에서.

470) 흔저: 어서 빨리.

471) 7리쳐동: 가르쳐두고.

472) 올로: 여기로.

473) 범골은: 범(虎)같은.

474) 게염지: 개미.

475) 웬빨만이: 왼쪽 빨만이.

누웠구나. 이싱 동간(同官)도 동간이여 저싱 동간도 동간이여. 팔즈 곳인 건<sup>477)</sup> 유학 동저로구나. 일어난 이 정심 먹읍센 허연 떡시리를 주난 먹언. 정신 출령<sup>478)</sup> 보난 인간 사름이 왔구나.

“어떻헨 인간 사름이 이 고단에<sup>479)</sup> 당헨데가?”

“염례대왕 잡히레 오랏우다.”

“염례대왕을 어떻게 잡힙네까?”

경 해도 잡히레 왓우덴 허난, 놈이 거 공 거 먹으민<sup>480)</sup> 등 걸리고 목 걸리는 법이라. 강림이 훗적삼<sup>481)</sup> 입엇건 벗읍서. 저싱 보. 강림이 저싱 보. 삼시 번을 불르난, 저싱 초군문(初軍門)에 들어가지엇구나.

초군문에 들어가난, 강림이 초군문을 잡안 사시난, 염례왕이 청일산을 들러타고 백리산을 들러타고 삼만관속 육방하인 들러차, 와라치라 와라치라 내려온다.

앞이 온 가마도 염례왕이 탄 가마도 아니로구나. 둘첻 가마도 아니고, 셋체 넷체 다섯체 염례대왕 탄 가마로구나. 우웬골은<sup>482)</sup> 소리 벵낙지듯 하메를 허난,

야, 이때꼬지 뎡겨도<sup>483)</sup> 나 하메(下馬)를 아니 시겨봐신디<sup>484)</sup> 저, 하메 시기는 자, 소문절박(四門切迫) 허렌 허난. 염례대왕님이 부에가<sup>485)</sup> 난, 소문절박 허렌 허난, 강림이 벌써 가멧부출 우이 올라완. 염례대왕님 소문절박을 부드득이<sup>486)</sup> 둘랏구나.<sup>487)</sup>

“아이고, 헨 베코만<sup>488)</sup> 누겨도라.”<sup>489)</sup>

“염례대왕님, 나도 이 깻지<sup>490)</sup> 오젠 허난 인정<sup>491)</sup> 쓰멍 오랏우다. 소정<sup>492)</sup> 쓰멍 오랏우다. 인정 줍서. 소정 줍서.”

아이고, 인정 걸 돈 엇엇구나. 소정 걸 돈 엇엇구나. 염례대왕님신디 열두폭 관디(冠帶) 북북<sup>493)</sup> 칫영<sup>494)</sup> 인정 걸영 소문절박 풀럿우다.

우리 인간 백성덜도, 인간 아기 악심(惡心) 병금전 치메꿈 제우멍 허리꿈 제우멍 병금전 저싱 갈 땀 열손 과짜 폐왕<sup>495)</sup> 단돈 십원 못 앗앙<sup>496)</sup> 가난 인정 걸 돈 엇엇구

476) 질토레비: 길을 보수하는 사람.

477) 팔즈 곳인 건: 팔자 좋지 않은 것은.

478) 출령: 차려서.

479) 고단에: 고장에. 곳에.

480) 먹으민: 먹으면.

481) 훗적삼: 적삼. 죽은 후 혼(魂)을 부를 때 적삼을 들고 부름.

482) 우웬골은: 우레같은.

483) 뎡겨도: 다녀도.

484) 시겨봐신디: 시켜봤는데.

485) 부에가: 화가.

486) 부드득이: 굳은 것을 이로 씹을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꼴.

487) 둘랏구나: 돌렸구나.

488) 헨 베코만: 밧줄의 한 고만.

489) 누겨도라: 늦추어다오.

490) 이 깻지: 여기까지.

491) 인정: 재화(財貨)를 뜻함.

492) 소정: 인정에 맞춘 조운구.

493) 북북: 박박.

494) 칫영: 찢어서.

495) 과짜 폐왕: 손가락을 짹 폐워서.

나. 소정 걸 돈 엇엇구나. 애기덜 착실허고 얌전허고 영허난 부모님 왕싱극락(往生極樂) 험셴. 삼처서(三差使) 관장님 인정 안내영 소문절박 풀려줍서. 손에 수갑 풀립서. 발에 사주 풀립서. 목 죽은 행처칼 소문절박 풀려줍셴 헤연. 삼처서 관장에 강림 처서에 인정 걸어난 법으로 염례대왕님도 강님이 인정 걸어난 법.

우리 인간덜도 저싱 가젠 허민 강님이신디 인정 걸영 소문절박 풀려근 저싱 질더레 가는 법이라. 오늘 처서 난수생 신평염수다.

강님이 염례대왕 소문절박 풀련. 흐 베코 누겨 주난,

“주부장제칩 단뜰애기 전세남<sup>497)</sup> 발앙 가키여.”

“걸랑 기영 험서.”

아렛넉 조복장제 단뜰애기 전세남 허는디 염례대왕님은, 큰심방 오리정 신청괘<sup>498)</sup> 허염구나. 시왕드리<sup>499)</sup> 놓앗구나. 별드리<sup>500)</sup> 놓앗구나. 영기(令旗) 몽기 들러받앙 초편<sup>501)</sup> 두편 제 삼편으로 염라대왕님 시왕드리 발아들영<sup>502)</sup> 큰대(巨竹) 꼭지로 허연. 안상시더레 들어가난에, 강님인 저 올레에 완 사도<sup>503)</sup> 어느 누게 술 혼잔,<sup>504)</sup> 감주 혼잔 먹으레 시라<sup>505)</sup> 아니 허난 큰심방 소문절박 시겼구나.

큰심방 소문절박 시기한 연당(靈延祭棚) 아래 신소미(神小巫) 악거리라 닷거리라. 어제 그지갯날 염례대왕 청허레 간 강님처서 살려옵셴 헤연.

옛날은 당클만 메연.<sup>506)</sup> 옷상만 출령 헤엿인디, 큰심방 소문절박 허난 아래 소젯상(使者床) 출려놓고<sup>507)</sup> 나까도전침<sup>508)</sup> 허연 올리고, 세변군중(世變軍衆) 지삭안<sup>509)</sup> 나까도전 동실동실 올련. 각발분식(各班分食) 허연 세변군중 지삭이난 큰심방도 살아온 법 잇입네다.

강님이 안으로 들어완 보난, 염례대왕님 큰대 꼭지로 허연 포리<sup>510)</sup> 몸에 환생허연 잇엇구나. 거미 몸에 환생허연 간 거미줄로 확허게 소문절박 허난,

“흐 베코만 누겨도라.”

“아이고, 이제랑 인간더레 걸읍서.”

“나 모리듯날 스오시<sup>511)</sup> 뉘민 가키여.”

앞이랑 놀릴<sup>512)</sup> 용(勇)제 써준다. 뒤랑 임금 왕제 써준다. 올땐 어떻어땐 나 자유로

496) 못 앓양: 갖지 못해서.

497) 전세남: 앓았을 때 생명을 살려주십사고 비는 곳.

498) 오리정 신청괘: 청신(請神)하여 들이는 제차명(祭次名).

499) 시왕드리: 시왕다리.

500) 별드리: 별다리.

501) 초편: 처음 판.

502) 발아들영: 밟아서 들어서면서.

503) 완 사도: 와서 서도.

504) 혼잔: 한잔.

505) 시라: 있어라.

506) 당클만 메연: 당클만 매여서. 큰굿 때의 4당클(祭棚) 중 시왕차지의 당클.

507) 출려놓고: 차려놓고.

508) 나까도전침: 시루떡을 들어 춤추며 올리는 제차(祭次).

509) 지삭안: 지삭아서. 달래어서. 제상 위의 각종 제물을 조금씩 떠서 던짐.

510) 포리: 파리.

511) 모리듯날 스오시: 모레 뒷날 사 오시.

왔주만은 가는 질을 모르쿠다. 백강생일<sup>513</sup>) 내어준다. 백강생이 가는 딜로만<sup>514</sup>) 가렌 허난

“결랑 기영 협서.”

앞이랑 놀림 왕제 뒤랑 임금 왕제 써 주엇구나. 백강생이 가는 길로 가단보난, 백강생이가 행기소가 잇이난 짚디 짚은 행기소에 빠지난 천지소가 뒤텔구나.

“아이고, 나 저 백강생이 일러불민<sup>515</sup>) 저싱도 이싱도 못 강 어떻허리.”

헌디<sup>516</sup>) 백강생이 가는 디레 천지소에 빠지엇구나. 천지소더레 빠지난, 저싱 간 사흘 살안 완 보난 인간인 삼 년이 뒤텔 쳇 식겏날이<sup>517</sup>) 근당이<sup>518</sup>) 뒤텔구나. 아이고, 조그만 헌디 초가막살이 불이 베롱허게<sup>519</sup>) 싸 지엇구나. 저 집이 강 보주 허연.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아이고, 누게네 집 산디 몰라도 문 열렌 허난, 강님이가 오랏저. 나, 강님이노렌. 이 문 열렌 허난.

“난 강님이 큰각신디, 강님이건 관디섭을<sup>520</sup>) 내어놓서.”

관디섭을 내어논 건 보난, 바농<sup>521</sup>) 혼쌈<sup>522</sup>) 짚른 건 다 보밀어<sup>523</sup>) 허나 남앗구나. 옛날은 단(單) 바농 단 아들 믿지 못헌덴 허영 아들 허나 나민, 따시<sup>524</sup>) 허나 벗 붙영 나는 법 마련헤엿우다.

아이고, 아바진 오멍<sup>525</sup>) 누단 흘목<sup>526</sup>) 심영<sup>527</sup>) 허난, 성펜(鍼編)은 생깁데다. 어머니는 오멍 웬 흘목<sup>528</sup>) 심으난 웬펜(外編)이 생깁데다. 형제간덜은 옷 앞섭더레<sup>529</sup>) 앓으난<sup>530</sup>) 옷 앞섭이 브름이여.<sup>531</sup>) 죽은 각시덜은 서방 얻으멍 몬딱 가부난<sup>532</sup>) 아니 오고, 큰각신 산 수절 지킨 거 죽은 수절 못 지키랏 앓앗우다.

“아바지, 나 죽으난 어떤 생각 납데가?”

“설운 얘기야, 니 죽으난 무디무디<sup>533</sup>) 생각나라. 무디무디 생각나라. 모든 말은 거

---

512) 놀릴: 날릴.

513) 백강생일: 하얀 강아지를.

514) 딜로만: 데로만. 곳으로만.

515) 일러불민: 잃어버리면.

516) 헌디: 함께. 같이.

517) 쳇 식겏날: 첫 제삿날.

518) 근당이: 가까이 오게.

519) 베롱허게: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켜지다.

520) 관디섭을: 관대 자락을.

521) 바농: 바늘.

522) 혼쌈: 한 째.

523) 보밀어: 녹이 피어서.

524) 따시: 다시.

525) 오멍: 오면서.

526) 누단 흘목: 오른쪽 손목.

527) 심영: 잡아서.

528) 웬 흘목: 왼쪽 손목.

529) 앞섭더레: 옷의 앞자락에.

530) 앓으난: 앓으니.

531) 브름이여: 바람이여.

532) 가부난: 가버리니.

533) 무디무디: 마디마디.

풀엉 골아저라.<sup>534)</sup>

“아바진 살당살당 돌아가시민 왕대(大竹) 막덩이<sup>535)</sup> 방장대에<sup>536)</sup> 시무옷<sup>537)</sup> 알 풀  
엉 입엉 ‘아이고 데고’ 삼년 상 공 갇아 드리쿠다.”

“어머님은 나 죽으난 어떤 생각 납데가?”

“설운 애기야, 니 죽으난 가심이<sup>538)</sup> 멉헉해라. 굿인<sup>539)</sup> 말은 감추멍 골아저라”

어머닌 안부모로구나.

“어머닌 살당살당 돌아가시민 머구냥<sup>540)</sup> 가시 돋은 거 박박 훑어동<sup>541)</sup> 방장대 짚엉  
삼년상 시무옷도 알<sup>542)</sup> 감추왕 삼년상 공 갇으쿠다. 어머님은 머구냥 방장대 삼년상  
‘아이고 데고’ 공 갇아 드리쿠다.”

“형제간덜은 나 엇이난 어떤 생각 납데가?”

“아이고, 느 엇이난 놉광 싸울 때 편역 들여줘난 생각, 맞존거 줘난 생각 그것뻬  
이<sup>543)</sup> 아니 나지.”

형제간은 옷 앞섭이 브름이라 일년 복 쓰기<sup>544)</sup> 마련헌다. 죽은각시덜은 서방 얻으  
멍 가불고,

“큰각시는 어떤 생각 나 지어니?”

“산 수절도 지킨거 죽은 수절 못 지켜라 앓앗우다.”

정절 부인 마련헌다. 숙절 부인 마련헌다. 기생첩 문안내 문베깃디<sup>545)</sup> 기생첩덜 어  
서 가라. 다 보내여두고,

말년에랑, 옛날은 각시 얻엉 덩기당, 돌아덩기당 막 육십이 넘어가민 큰각시 좇아  
왕<sup>546)</sup> 죽는법 마련허엿우다.

강림인 이젠,

“느영 나영 므음 낡<sup>547)</sup> 살아보게.”

그날 저녁 두 가시가 불끈<sup>548)</sup> 안앙 누원, 즘 잠시난,<sup>549)</sup> 동네에 짐서방은 소상이나  
넘건 강님이 큰각시 얻엉 살아보저. 대상이나 넘으민 강님이 큰각시 얻엉 살아보저.  
쳇 식겅날까지 와시난<sup>550)</sup> 이젠 강님이 큰각시 얻엉 살아도 될거여 눈독 올려 놔두난.

---

534) 골아저라: 말해져라.

535) 막덩이: 막대기.

536) 방장대에: 상(喪) 났을 때 상주가 짚는 상장 막대.

537) 시무옷: 상복.

538) 가심: 가슴.

539) 굿인: 나쁜.

540) 머구냥: 머귀나무.

541) 훑어동: 모두 떨어지게 해두고.

542) 알: 아래.

543) 그것뻬이: 그것밖에.

544) 복 쓰기: 복(服) 입기.

545) 문베깃디: 문밖에.

546) 좇아 왕: 찾아 와서.

547) 므음 낡: 마음 놓고.

548) 불끈: 불끈.

549) 즘 잠시난: 잠 자고 있으니.

550) 와시난: 왔으니.

강님이 큰각시 문을 아니 요난,<sup>551)</sup> 요년 생긴년 어땡 문을 아니 올암신고.<sup>552)</sup> 창고  
냥<sup>553)</sup> 뚫린 눈썸안 보난 두 가시가 불끈 안양 이시난,

‘아이고, 요년 생긴년 서방 죽엇젠 헨게, 서방 저싱 갓젠 헨게 거짓말이로구나. 낮  
인 팽풍 두이<sup>554)</sup> 살림을 살고 밤인 훈 이부자리 품사랑 허멍 요년 살았구나.’

동안 마당더레 들어갓구나. 강님이 저싱 갓젠 헨게, 그건 거짓말, 두가시(夫婦)가 좀  
잠십디텐 허난,

“소령(使令) 급장.”

이제 곱으민<sup>555)</sup> 순서들 돌양<sup>556)</sup> 포승 채완, 동안 마당더레 들어간,

“너 강님이. 저싱 강 염례대왕 잡형 오랜 허난, 너네 큰각시네 집이서 밤인 품사랑  
허고 낮인 팽풍 두이서 살림을 허염구나.”

“아닙네다. 언치낙<sup>557)</sup> 왓습네다. 모리<sup>558)</sup> 뒷날 소오시에 염례대왕 내리켄 허엿습네  
다.”

“모리 뒷날 소오시까지 방에칼 씨왕 전옥(典獄)에 하옥시기라.”

강님이 전옥에 하옥시켰구나. 모리 뒷날 소오시가 뉘난, 좁은 목에 베락치듯<sup>559)</sup> 너  
른<sup>560)</sup> 목에 빗발치듯 좁진<sup>561)</sup> 빗방울 훑은 빗방울 듨싱듨싱 베락 천둥에 동안 마당에  
염례대왕 내렸구나.

옛날은 굿 허젠 헤영. 대신맛젠<sup>562)</sup> 허민 좁진 빗방울 훑은 빗방울 와지끈당 와지끈  
당 오는 법입디다만은, 이제는 시국이 변천이 뉘난에 기영도 저영도 몰르쿠다.

동안마당 염례대왕 내리난,

“이 집은 누게 짓엇느냐?”

“강태공 소목시가(首木手) 지엇우다.”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세단,

“요 지등은<sup>563)</sup> 내가 아니 세왓우다.”

대툽 소툽 싸단보난<sup>564)</sup> 즈짓피(紫芝血)가 불끗허게<sup>565)</sup> 낫구나.

옛날은 집 짓영 상냥(上梁)허영, 독 야계기<sup>566)</sup> 그찬<sup>567)</sup> 내지드기 핏칠허기 마련헤엿

---

551) 요난: 여니.

552) 올암신고: 열고 있을까.

553) 창고냥: 창구멍.

554) 팽풍 두이: 팽풍 뒤에서.

555) 곱으민: 같으면.

556) 돌양: 데리고.

557) 언치낙: 어젯밤.

558) 모리: 모래.

559) 베락치듯: 벼락 치듯.

560) 너른: 넓은.

561) 좁진: 작은.

562) 대신맛젠: 대시왕맛이 허젠.

563) 지등은: 기둥은.

564) 사단보난: 자르다보니.

565) 불끗허게: 피가 붉은 반점처럼 나는 모양.

566) 독 야계기: 닭 모가지.

567) 그찬: 베어서.

우다. 염례대왕도 왕입네다. 인간 짐치원님도 왕입네다. 대결할 수가 잇입네다.

“어평헨 날 부릅디가?”

“청이 잇습네다. 어평헨 청입데가?”

“이 모을에<sup>568</sup>) 과양생이 지집년 혼날 혼시에<sup>569</sup>) 아들 삼형제 낳고, 혼날 혼시에 과거 뵙 오고, 혼날 혼시에 죽어부난, 그 어평헨 원인으로 죽음상을<sup>570</sup>) 몰란 염례왕을 청헤엿습네다.”

이젠,

“그년, 생긴 년. 심어오라.”

“과양생이 지집년 그 애기덜 너가 낳았느냐?”

“낳았습네다.”

묻은 단<sup>571</sup>) 간보난, 빈 관만 잇엇구나. 동경국땅 버믐왕 아덜덜 살려두완. 이 애기덜 너가 낳았느냐?

“아니 낳았습네다.”

“이 애기덜 혼령이 든 일 아니겠느냐? 놈이 눈에 눈물 나게 허민, 니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라. 이 애기들 혼령이 든 일이로구나. 동경국 버믐왕 아덜덜은 어멍국 아방국으로 어서 들어가라.”

보내여 두고, 아홉 세 열 세 시맹이덜덜, 쉼머리 몰머리로<sup>572</sup>) 갈리갈리 찿어<sup>573</sup>) 받겨죽엇구나. 갈리갈리 찿어 받겨 죽이난, 둥그는<sup>574</sup>) 건 보리기<sup>575</sup>) 싹다. 닥닥 모산<sup>576</sup>) 산중이랑 곡다귀<sup>577</sup>) 몸에 해변이랑 모기 몸에 환싱시켜 두고,

아홉세 열세 시맹이덜덜, 사름이 죽어 나걸랑.<sup>578</sup>) 아홉은 귀양 일곱 신앙, 일곱 신앙에 아홉 귀양, 사람 죽영 귀양풀이<sup>579</sup>) 허는 법. 쉼<sup>580</sup>) 죽은디 시왕풀이 허는 법. 사름 죽영 귀양풀이 아니헤불민, 저싱도 이싱도 못 강 여중 감중 초군문(初軍門)에 상비세굴이 우는 법으로, 사름은 죽영 귀양풀이 허여사<sup>581</sup>) 저싱 열두 문 넘어가는 법으로, 사름은 죽영 귀양풀이 허는 법. 쉼 죽은디 신앙풀이 허는 법. 물 빼는딘 개시신법, 석전 넘어난디 돛베시신법 큰집은 짓이민 성주허는 법 마련이 뉘엇우다. 이젠 법지법 다 마련헤여 두언.

염례대왕이 허는 말이, 짐치원님 신디 이젠, 송서절첼 다 헤여시난 강님인 나 돌양

568) 모을에: 마을에.

569) 혼날 혼시에: 한날 한시에.

570) 죽음상을: 죽은 이유를.

571) 묻은 단: 묻은 데는.

572) 쉼머리 몰머리로: 소머리 말머리로.

573) 찿어: 찿어.

574) 둥그는: 굴러다니는.

575) 보리기: 보기.

576) 모산: 짚어서.

577) 곡다귀: 각다귀.

578) 죽어 나걸랑: 죽고 난 후에는.

579) 귀양풀이: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낸 날 밤에 행하는 곳 이름. 죽은 영혼을 저승에 잘 보내는 곳.

580) 쉼: 소.

581) 허여사: 해야.

저싱 가켤.

“아니 됩네다.”

“게결랑 우리 저싱 반 이싱 반, 반씩 갈랑 허기가 어떻헉네까?”

“아니 됩네다.”

“게결랑 짐치원님이랑 몸을 츠지허민<sup>582)</sup> 날랑 저싱 삼흔(三魂)을 츠지허기가 어떻헉네까?”

“결랑 기영 헉서.”

경 허렌 허난, 강님이 저싱 보. 강님이 저싱 보. 강님이 저싱 보. 삼 시 번<sup>583)</sup> 불르난 저싱 가불엇구나.

사람은 죽으민 저싱 삼 흔을 불르지 아니허민, 죽어진 중<sup>584)</sup> 살아진 중 몰랑<sup>585)</sup> 검은 구름에 뜨는 법으로. 사름은 목숨 타지민<sup>586)</sup> 옛날은 지봉상상<sup>587)</sup> 조추모루<sup>588)</sup> 올라간 훗적삼 내어 놓양 저싱 삼흔을 불르는 법입네다.

염레대왕 혼 빵<sup>589)</sup> 저싱 가부난 강님인 죽엇구나. 강님인 죽음상 몰란,<sup>590)</sup> 둥그랭이<sup>591)</sup> 사시난 짐치원님 하는 말이,

“야, 강님이. 너 저싱 갖다 왓젠 큰양<sup>592)</sup> 험나?”

는장(稜杖)대로 밀리난 헤틀렉이<sup>593)</sup> 갈라지엇구나. 헤틀렉이 갈라지난, 코속으로 쉬포리가<sup>594)</sup> 웅허게 노난, 코속으로 쉬포리가 웅허게 놀고, 귀속으로 귀포리가 웅허게 놀고. 사름이 죽으민 코 고냥<sup>595)</sup> 막고 입 고냥 막고, 귀 고냥부터 막는 법 마련허엿우다.

큰각시신디 부고 전허난, 큰각신 놀아왕 이레탕 저레탕 누웁 둥굴멍

“아이고, 저싱 강 염레대왕님을 아니 청헉 와십데가? 어떻헉 우리 낭군 죽입데가?”

“홀 수 엿이 염레대왕이 혼 빵 저싱 가부난 홀 수가 엿저.”

홀 수 엿구나. 산디짚<sup>596)</sup> 놀어시난<sup>597)</sup> 산디짚 찌그레기 뺨,<sup>598)</sup> 머린, 쉬운데자 방패 머리, 머리 짚아<sup>599)</sup> 메여두고, 이젠 홀 수 엿구나. 초수렴법(初襲斂法) 마련헌다. 대수

---

582) 츠지허민: 차지하면.

583) 시 번: 세 번.

584) 죽어진 중: 죽었는지.

585) 몰랑: 몰라서.

586) 타지민: 떨어지면. 죽으면.

587) 지봉상상: 지봉 위.

588) 조추모루: 상마루 맨 위 꼭대기.

589) 혼 빵: 혼을 빼서.

590) 몰란: 몰라서.

591) 둥그랭이: 덩그러니.

592) 큰양: 큰척.

593) 헤틀렉이: 중심을 잃고 힘없이 뒤로 나자빠지는 꼴.

594) 쉬포리가: 쉬파리가.

595) 코 고냥: 코 구멍.

596) 산디짚: 발벼의 짚.

597) 놀어시난: 보리를 차곡차곡 쌓은 ‘놀’이 있으니.

598) 찌그레기 뺨: 못쓰는 것을 빼서.

599) 짚아: 잡아서 묶어서.

렴법(大襲斂法) 마련한다. 성복제(成服祭), 일포법(日哺法) 마련하였구나. 서른대(더)명 유대권 제대권 어여낭창 염불(念佛) 불령, 무저궁전 너른 땅 북만산천 저싱 들어갈 때 세상 못어지고<sup>600</sup>) 감겨진거, 애기덜 가심에 못인 거,<sup>601</sup>) 어여낭창 어서 가자.

북만산천 들어간 석자 오치 귀광 판다.<sup>602</sup>) 하관한다. 상계판에 중계판 하계판을 덮어간다. 달구 진다. 질토곳에 애기덜 어머니 가심에 못인 거나 아바님 가심에 못인 거나 먹장굴이 못인 거. 문<sup>603</sup>) 풀어 갑서.

돌맹이도 좃이고<sup>604</sup>). 멩게낭 뿌리도<sup>605</sup>) 좃이고, 가시낭 뿌리도 고사리 뿌리도 좃어 근 질토곳에<sup>606</sup>) 가심에 못인 거 문 풀립서 헤영 봉분 썬다.

용미제절 빠간다. 초제(初祭) 지내엇구나. 이우제(二虞祭) 삼우제(三虞祭). 집이 오란,<sup>607</sup>) 삭망(朔望) 삭제(朔祭) 초하루(初一日) 보름 석 덜 열고 졸곡(卒哭) 넘나. 열두 덜은 소기(小忌) 넘나. 스물넉 덜 대기(大忌) 넘언. 담제(禫祭) 석 덜 열흘 담제 넘난 봉막 벗엇구나. 일 년 혼 번 식게허고<sup>608</sup>) 멩질허고<sup>609</sup>) 팔월 초하루 소분군불 허는 법. 강님이 큰각시가 다 내운 법이우다.

인간에선 문 마련허여 두고 강님인 저싱 가난, 저싱은 가난, 동방세기 삼천년을 염례대왕님이 잡혀오렌 허난, 다른 처서(差使)들이 잡히레 가민 어른이 뉘영 왕 보민<sup>610</sup>) 아이가 뉘어불고, 아이가 뉘영 보민 어른이 뉘어부난 잡힐 수가 엇이난, 너, 강님이 강 잡형 오렌 허난

“걸랑 기영 험서.”

동방세기 삼천년 잡히레 내려오단 보난, 어떠헌 애기엿게 허는 말이, 애기엿게 눈엔 비추왔구나.<sup>611</sup>)

“강님인 저싱 갖젠 험게 어떻헌 인간더레 노려옴이파?”

동방세기 삼천년 잡히레 왓젠 허난, 동방세기 삼천년을 어떻헌 잡히쿠과? 솟이나<sup>612</sup>) 앗아당<sup>613</sup>) 강 싯엇다 널엇다 허염십서. 알아볼 도리가 잇우덴 허난, 솟을 앗안 오란, 싯엇다 널엇다. 싯엇다 널엇다 허염시난, 동방세기 삼천년 하루<sup>614</sup>) 열두번 변식을<sup>615</sup>) 허여도 솟을 싯엇다 널엇다 험시난

“그 젊은이, 그 솟을 무시것 허레<sup>616</sup>) 메날<sup>617</sup>) 싯엇다 널엇다 험시니?”

600) 못어지고: 맺어지고.

601) 못인 거: 맺힌 것.

602) 귀광 판다: 관 자리를 판다.

603) 문: 모두.

604) 좃이고: 줍고.

605) 멩게낭 뿌리도: 청미래덩굴 뿌리도.

606) 질토곳에: 길 트기 곳.

607) 오란: 와서.

608) 식게: 제사.

609) 멩질허고: 명절허고.

610) 뉘영 왕 보민: 되어서 와 보면.

611) 비추왔구나: 보였구나.

612) 솟이나: 솟이나.

613) 앗아당: 가졌다가.

614) 하루: 하루.

615) 변식을: 변장을.

허난,

이 검은 숫도 싯엄시민<sup>618</sup> 헤영허게<sup>619</sup> 발라지영<sup>620</sup> 약제가 된덴 헤영 발림수덴 허난, 검은 숫 히게<sup>621</sup> 발리는 사람은 동방세기 삼천년을 살아도 본 도레가<sup>622</sup> 엇덴 허난, 요거 동방세기로구나 심연<sup>623</sup> 저싱 갓구나. 그 말로 애기 업게 말도 귀 넘어 듣지 말렌 옛어른 속담에 잇어집네다. 애기가, 처녀가 숫을 앓양<sup>624</sup> 싯엄시렌 허난, 싯단 보난 동방세기 삼천년 심영 저싱 간 염레대왕신디 바찌난,<sup>625</sup> 염레대왕 허는 말이,

“과연 역력하고 똑똑헌 강님이로구나. 넌 인간처서를 마련허라.”

흔 번은 오고, 두 번은 올 수 엇엇구나. 까메기가<sup>626</sup> 까옥 허난, 너도 강게 나도 강게 까메기 늘게에<sup>627</sup> 적베지(赤牌紙) 붙엇구나. 츠레츠레<sup>628</sup> 연(年) 츠레 나이 츠레 직함 츠레 벼실 츠레로 적베지 강 붙여동 오렌 허난, 경 허켄 헤연.

까메긴 포뜰포뜰 인간더레 노려오단 보난, 물피쟁이<sup>629</sup> 물 잡암시난<sup>630</sup>, 물 피나 혼직<sup>631</sup> 얻어먹어 보젠 까왓까왓 허여가난, 물피쟁인 물말통으로 다락허게 마치난 지<sup>632</sup> 마침시카부덴<sup>633</sup> 포딱허게 놀아나난 적베진 알더레 털어지엇구나. 구렁인 움막허게 들러먹엇구나. 베염이 적베지 들러먹어 놓고 왕석(王石) 돌알더레 몸은 빈주룽허연 돌 알러레 들어가부난, 베염은 아홉 번 죽어도 열 번 도환싱(還生), 구사십생(九死十生) 허는 법 마련이 뉘엇우다.

까메권 적베진 일러불고<sup>634</sup> 동더레 돌아상<sup>635</sup> 까왓 서더레도 돌아상 까왓 남더레 북더레 돌아상 까왓 까왓. 어른 올 디 아이 읍서. 아이 올 디 어른 읍서. 늑신네<sup>636</sup> 젊은이 막론 없이 막 읍센 까옥까옥 허여두고.

허웅애기 감시난,

“허웅애기야, 저싱 걸라.”

---

616) 무시것 허레: 무엇을 하려고.

617) 메날: 매일.

618) 싯엄시민: 씻고 있으면.

619) 헤영허게: 하얗게.

620) 발라지영: 바뀌어서.

621) 히게: 하얗게.

622) 도레가: 적이.

623) 심연: 잡아서.

624) 앓양: 갓고.

625) 바찌난: 바치니.

626) 까메기가: 까마귀가.

627) 늘게에: 날개에.

628) 츠레츠레: 차례차례.

629) 물피쟁이: 말 잡는 사람.

630) 물 잡암시난: 말 잡고 있으니.

631) 혼직: 한 모금. 한 번.

632) 지: 자기.

633) 마침시카부덴: 맞히는 줄 알고.

634) 일러불고: 잃어버리고.

635) 돌아상: 돌아서서.

636) 늑신네: 늑은이.

“우리집 가민 할망도 있고, 하르방도 있고, 어멍 아방도 잇우다.”

“강 들어보라.”

저 허웅애기 물 질어다 된.<sup>637)</sup>

“할마님아, 저 까메기 봅서. 나신디 저싱 가렌 허염수게. 까왱까왱 울엄수게.”

“느가 가라. 난 나 멩(命)대로 살당 가키여.”

“하르바님아, 나 대신 저싱 갑서. 저 까메기 나 저싱 걸렌 허염수게.”

“난 나 멩대로 살당 가키여. 느 가라. 난 말다.”

“어머님 나 대신 저싱 갑서.”

“난 말다. 느 가라. 무시거옌<sup>638)</sup> 굴암시니? 느 가라. 난 말다.”

홀 수 엷저. 허웅애기 돌안 저싱은 가난, 야, 저싱 문세(文書)가 낙로가 뉘엿구나. 어른도 가고 아이도 가고, 늑신네 젊은이 막론 엷이 다 간. 저싱도가 문이 고득앗구나.<sup>639)</sup> 강님이 불러단,

“강님아, 강님아. 너 이거 어떻헌 일이냐? 츠레츠레<sup>640)</sup> 연 츠레, 나이 츠레, 직함 츠레, 벼실공명제 츠레로 강 적베지 부쳐동<sup>641)</sup> 오렌 허난, 어른도 오고, 아이도 오고, 늑신네 젊은이 막론엷이 막 오난, 어떻헤엷느냐?”

예, 가당 저싱광<sup>642)</sup> 이싱 질은 삼천칠백리 질 머나면 질이난 까메기가 까옥 허난, 너도 강게 나도 강게, 까메기 젓눌게에<sup>643)</sup> 적베지 부쳐우덴 허난, 까메기 돌아단,

“어떻 허엷느냐?”

“적베지 일러부난,<sup>644)</sup> 아이도 읍서. 어른도 읍서. 늑신네 젊은이 막론엷이 막 읍서 까옥까옥 허엷우다.”

허난, 히영헌 까메기 메 하도 두드려부난<sup>645)</sup> 거멍헌<sup>646)</sup> 독 올란, 까메긴 거멍 허고, 까메기 궤기도<sup>647)</sup> 거멍 허고, 몸뎡이도<sup>648)</sup> 거멍 허고.

까메긴 메 보짝 얻어 맞고 인간더레 노려오단 보난, 그때사 막뎡이 짚은 할망 물허벽 지영 걸엄시난,

‘아이고, 처음 올 때 저 할망 나타냥 돌앙 가비어시민<sup>649)</sup> 메나 아니 맞으컬.’

뒤로 돌려들언<sup>650)</sup> 뉘테가리 좇이난,<sup>651)</sup> 할망은 헤틀렉이 갈라지난 물허벽은 바싹허게 벌러지엿구나. 그 법으로 옛날은 사름 죽영 가민, 방 치웁셴 허영, 방 안네 오락

637) 질어다 된: 길어다 두고.

638) 무시거옌: 뭐라고.

639) 고득앗구나: 가득했구나.

640) 츠레츠레: 차례차례.

641) 부쳐동: 붙이고.

642) 가당 저싱광: 가다가 저승과.

643) 젓눌게에: 날개에.

644) 일러부난: 잃어버리니.

645) 두드려부난: 때려버리니.

646) 거멍헌: 까만.

647) 궤기도: 고기도.

648) 몸뎡이도: 몸도.

649) 돌앙 가비어시민: 데려 가버렸으면.

650) 돌려들언: 달려들어서.

651) 좇이난: 록 찍으니.

관 나가젠 허민 창문으론 관 나강, 와쌍바쌍 사기주적<sup>652</sup> 살성(殺聲) 도리고 몽덕불 피완 살앗구나. 오곡(五穀)씨 먹영 살앗구나. 몽덕불 화리에 불 피와놓고 곡석 좁아 놓<sup>653</sup>앙 방안 소독허는 법 마련이 뉘엿우다. 그 법으로 까메기가 처서가 뉘엿 상(上) 가지에<sup>654</sup> 앗앙 올라가민, 상가지 즈순이 꺾여가고, 중(中)가지 즈순이 앗아가민, 중 가지 즈순이 꺾여가고, 하(下)가지에 앗앙 올라가민, 하가지 즈순이 꺾여가고, 해 까메긴<sup>655</sup> 싸움나고 살인 나고, 밤 까메긴 화덕진군(火德津軍) 나고 해 까메긴 살인이 나는 법 마련 헤엿우다. 이제도 까메기 각각 올라가민 처서가 들어샷젠 허영, 까메기 올라가민 동네에 영장(喪)이 나는 법 마련헤엿우다. 영혼 영신 돌양 강<sup>656</sup> 삼처서 관장님 손에 수갑 풀립서. 발에 사줄 풀립서. 목 죽은 행처칼, 저싱 용두머리 다 풀려줍센 헤영,

이석굿도 삼년 날일, 장석굿도 삼년 날일, 부모 초상(初喪) 입어근 오랑 가는 즈순덜 울고 불고 혈 일, 처서님 굽어볼 일 문<sup>657</sup> 막아줍서. 오랑 가는 즈순덜 불선 뭍은 질<sup>658</sup> 문 닦아줍센 헤연, 삼처서 관장님 앞살 일<sup>659</sup> 문 막아줍서. 처서님 난수생 신 풀엇습네다.

---

652) 사기주적: 사기 접시.  
 653) 좁아 놓앙: 집어 놓아서.  
 654) 상가지에: 높은 나뭇가지에.  
 655) 해 까메긴: 낮에 우는 까마귀.  
 656) 돌양 강: 데려 가서.  
 657) 문: 모두.  
 658) 뭍은 질: 맑은 길.  
 659) 앞살 일: 앞에 세울 일.

## 세경본풀이

옛날 옛적 김진국 대감님광 조진국 부인님이 사옵데다.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이 애긴 엇영<sup>660</sup> 호호탐복 허여가난, 동계남 은중절(東觀音殿在寺) 서계남 금법당(西觀音金法堂) 낭계 상상(上山) 메양<sup>661</sup> 올라 한동절 원수륙(願水陸) 올리난, 김진국에 대감님광 조진국에 부인님이 생불(生佛)을 처급(處給)허난, 인간에 즈청비가 솟아나난,

흔 설 두 설 여남은 설 뒤편가난 늦인덕이 정하님은 손과 발이 고와지난,

“너는 어찌해서 손과 발이 곱느냐?”

“연세답<sup>662</sup> 헤단 메날 아적<sup>663</sup> 상저님 빨래<sup>664</sup> 허단 입저부난<sup>665</sup> 손과 발이 곱네다.”

“내일은 계건 나도 돌양 걸라.<sup>666</sup>”

주천강(酒泉江) 연훼못(蓮花池)디 연세답을 가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은 거무선 생신디 글공부 활공부, 내려오단 곱닥헌<sup>667</sup> 애기씨가 잇이난 어평헨 저 애기씨광 말이나 흥번<sup>668</sup> 골아보리<sup>669</sup> 영 허연. 애기씨 물이나 흥쓸<sup>670</sup> 물 거려줄 수 이시넨? 허난,

“물 거려줄 모음은<sup>671</sup> 잇어도 물 거려줄 그릇이 엇우다.”

“나 등더레 보민 폐주박이 잇우다. 폐주박을 클령<sup>672</sup> 물이나 흥꿈 거려 줍서.”

폐주막 클런 물을 거는디,<sup>673</sup> 삼세번을 두드리고 삼세번을 물을 헤치곡 거려근, 수양청버드남 썩<sup>674</sup> 따 난에 안내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 푸푸 불명 먹단

“어평헨 애기씨 얼굴은 이쁘우다만은 물에 티가 잇이민 물에 티를 건져동 물을 쥐사 원칙인디 물에 티를 따 낱 줍니꺼?”

허난, 그런 말 허지 맙서. 우리 민물엔 진쉬가<sup>675</sup> 잇기 때문에 세 번 두드리고 문지가<sup>676</sup> 잇기 때문에 세 번 헤치고, 물을 거령 청버드남 썩 따논 건, 물 먹구정 헐 때<sup>677</sup> 목을 놓앙 먹어불민 물에 체가 나민 물 체엔 약도 엇인 법이난, 삼세번을 헤치

---

660) 엇영: 없어서.

661) 메양: 늘.

662) 연세답: 빨래.

663) 메날 아적: 매일 아침.

664) 빨래: 빨래.

665) 입저부난: 입히니.

666) 돌양 걸라: 데려 가라.

667) 곱닥헌: 고운. 어여쁜.

668) 흥번: 한번.

669) 골아보리: 말해보리.

670) 흥쓸: 조금.

671) 모음은: 마음은.

672) 클령: 끌러서. 풀어서.

673) 거는디: 뜨는데.

674) 수양청버드남 썩: 수양청버드나무 잎.

675) 진쉬가: 진뎃물이.

676) 문지가: 먼지가.

677) 먹구정 헐 때: 먹고 싶을 때.

고 두들고 수양 버드남 썩 따 놔수덴 허난,  
 “아이고 그걸 몰랐구나마썸.”  
 “웁서. 우리 통성명이나 허게.”  
 “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인디 지하에 거무선생안티 글공부 가는 중이우다.”  
 “난 인간에 쯔청비가 뒹여집니다.”  
 영허난, 아이고, 우리집이 가민 우리 오래비 잇인게. 친구 벗이 엇영 글공부를 못  
 감덴 허난,  
 “계건들랑 훈디<sup>678)</sup> 글렌.”  
 허난,  
 “결랑 기영 험서.”  
 집이 간 연세답 허단. 담더레<sup>679)</sup> 착착 걸쳐두고 어머님신디 아바님신디 들어 간, 아  
 바님아, 어머님아 웁서. 글공부 활공부 갔다 오쿠덴 허난,  
 “아이고, 서룬 애기야, 가지 말라. 여자가 남도 낫저. 무신 글공부니?”  
 허난,  
 “아이고, 아바지나 어머니나, 나 말 곧건<sup>680)</sup> 들웁서. 우리 어느 형제간이 잇우과?  
 쁘당<sup>681)</sup>이 잇우과? 아바님이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민 축지방(祝紙榜)은 누계가<sup>682)</sup> 썸  
 광<sup>683)</sup> 축은 누계가 익읍네까?”<sup>684)</sup>  
 그 말도 들언보난 맞앗구나.  
 “계건들랑 공부. 멩심헨 갖다오라.”  
 여자방에 돌려들언<sup>685)</sup> 여자입성(女服) 벗어간다. 남자방에 돌려들언 남즈입성(男服)  
 입어간다. 겐 입성 헤연. 총각머리 등에 지연. 저 베깃디에<sup>686)</sup> 간 통성명을 내엇구나.  
 “나는 쯔청도령이 똤네다.”  
 “나는 문암성 문도령이 똤네다.”  
 거무선생안티 글공부 활공부 갖구나. 느네 훈날 훈시에<sup>687)</sup> 왓이난 훈방을<sup>688)</sup> 쓰렌  
 허난,  
 “결랑 기영 험서.”  
 훈방을 쓰젠 허난 쯔청비가 생각을 허는디, 이날 저녁, 훈방에 기냥<sup>689)</sup> 자민 아니  
 똤거난, 은대양에<sup>690)</sup> 세숫물을 떠 놓안, 가운디 놓안, 이것 떨어치우는 자는, 은수

---

678) 훈디: 함께. 같이.  
 679) 담더레: 돌담에.  
 680) 곧건: 말하건.  
 681) 쁘당: 친척.  
 682) 누계가: 누가.  
 683) 썸광: 썸니까.  
 684) 익읍네까: 읽습니까.  
 685) 돌려들언: 달려들어서.  
 686) 베깃디에: 밖에.  
 687) 훈날 훈시에: 한날 한시에.  
 688) 훈방을: 한방을.  
 689) 훈방에 기냥: 한방에 그냥.  
 690) 은대양에: 은 대야에.

제<sup>691</sup>) 하나 걸치곡 은좁은<sup>692</sup>) 걸천 요것 떨어치는 자는 글도 낙방 활도 낙방헌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글읍디덴<sup>693</sup>) 허난, 문암성 문도령은 그것 떨어치지 말젠 여시좁을<sup>694</sup>) 자고, 쯤청빈 천장만장 좁을 잣구나. 이젠 어떻허민 좋으리요.

뒷날 아침은 공부허젠 허민, 쯤청비는 천장만장 자난 선생님 하늘천(天) 허민 따지제(地字) 붙여간다. 따지(地) 허민 집우제(字字) 붙여간다. 천하문장(天下文章)이 뉘엇구나. 지하문장(地下文章)이 뉘엇구나. 문암성 문도령은 그 은수제 늦수제<sup>695</sup>) 떨어치지 말젠<sup>696</sup>) 여시좁을<sup>697</sup>) 자난 공부는 허젠 허민 꼬박꼬박 졸아가민 글도 쯤청비신디 떨어지엇구나. 활도 떨어지엇구나.

“야, 우리 경 말앙, 이거 아무리 요리 봐도 여자 닳고 저리 봐도 여자 닳은디 흥번 돌음돌락이나<sup>698</sup>) 헤보게. 우리 씨름혈락이나 헤보게.”

돌음돌락 헤도, 바당에<sup>699</sup>) 가민 쿠살,<sup>700</sup> 솜살 헤단, 그레 7망 툄환<sup>701</sup>) 실로 묶언 돌을 땀<sup>702</sup>) 그거 돌아 메영<sup>703</sup>) 돌랑돌랑 헤가민 그거 닳고 영 허난, 이거 소나이가 맞긴 맞은 거 닳아 뵈고.

“우리 이제랑 씨름 헤보게.”

씨름 허젠 허난 쯤청빈 어거지고,<sup>704</sup>) 문도령은 신사적으로 허젠 허난, 와당탁허게 내다부치난 씨름도 쯤청비 신디 지어간다. 씨름혈락도 지어간다. 돌음돌락도 지어간다.

“게결랑 이제랑 오좁 글길락이나<sup>705</sup>) 헤보게.”

오좁은 글기는 디, 문암성 문도령은 원형지고장이난 아홉방축<sup>706</sup>) 글기난, 쯤청빈 대왕통<sup>707</sup>) 들연 열두방축<sup>708</sup>) 글리난, 아이고, 오좁 글길락도 지어간다.

흐를날은<sup>709</sup>) 하늘옥항에서 서수왕에 장계<sup>710</sup>) 가렌 편지전갈 오난, 옥항에서 오렌 편지전갈 왓이난 난 가켄 허난 쯤청빈,

“올 때도 흥디 왓이난 갈 때도 흥디 가기가 어떻 허니?”

---

691) 은수제: 은 숟가락.

692) 은좁은: 은 젓가락.

693) 글읍디덴: 말하십디다.

694) 여시좁을: 여우잡을.

695) 늦수제: 늦숟가락.

696) 떨어치지 말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697) 여시좁을: 여우잡을.

698) 돌음돌락이나: 달리기나.

699) 바당에: 바다에.

700) 쿠살: 해삼.

701) 7망 툄환: 고망 뚫어서.

702) 돌을 땀: 달릴 때는.

703) 돌아 메영: 달아 메어서.

704) 어거지고: 억지이고.

705) 글길락이나: 갈기기 내기.

706) 아홉방축: 아홉 자.

707) 대왕통: 대나무로 만든 통.

708) 열두방축: 열두 자.

709) 흐를날은: 하룻날은.

710) 장계: 장가.

걸랑 기영 허렌 허연. 쯤청비도 거무선생 하직을 한다. 문도령도 거무선생 하직한다. 하직허연 느려오단<sup>711</sup>) 주천강 연훼뭇디 당허난 아이고, 쯤청비가 허는 말이,

“우리 연삼년(三年)을 살아시난, 몸에 테가<sup>712</sup>) 잇이민 아니 뉘난, 몸목욕이나 ㅋ쿨히 행<sup>713</sup>) 가게.”

걸랑 기영 허렌.

“문암성 문도령은 알통에서<sup>714</sup>) 험서. 날랑 울통에서<sup>715</sup>) 허쿠다.”

울통에서 왈탕발탕 목욕을 허는디 쯤청비는 손과 발만 씻어간다. 문암성 문도령은 우알로 옷을 멘짜<sup>716</sup>) 벗영 목욕을 허난, 나문섭에<sup>717</sup>) ‘멍청헌 문암성 문도령님아, 연삼년을 살아도 남전중<sup>718</sup>) 여전중 구별을 못허는 문암성 문도령님아, 난 쯤청비가 뉘여진덴.’ 헤연. 천장만장 돌아가난,

문암성 문도령은 바지 가달<sup>719</sup>) 허나에 가달 두 개 드물런<sup>720</sup>) 와들랑탕 와들랑탕 해도 잘 입언. 저 올레로 들어사는 거 옷자락을 잡아 뎡기난,

아이고, 이 옷 노민<sup>721</sup>) 어머니 아버지 신디 강 인사 문안 드려동 오켄 허난, 계건들랑 어서 인사문안 드려동 오렌 허연.

어머니 아버지 신디 강 인사문안 드리는 디,

“저 먼 정<sup>722</sup>) 친구 벗이 왔우다.”

열다섯 십오세 안내 걸랑 들여놓고, 열다섯 십오세 넘건 들여놓지 말렌 허난,

“걸랑 기영 험서.”

남저 방에 돌려들언 남저 입성 벗어 두고, 여자 방에 돌려들언 여자 입성 입언.

겐, 입성 헤앗어<sup>723</sup>) 친구 벗은 인사문안 올려두고, 이젠, 방 안내 잇이렌 헤여뉘, 쯤청빈 상다락(上樓)에 노념허저.<sup>724</sup>) 올라 간 멩지비단<sup>725</sup>) 짜노렌 허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 이편이나 완신가, 저편이나 완신가 허여도 쯤청비가 아니오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은 하늘옥황더레 도올라 불엇구나.

도올라 부난, 쯤청빈 이날 봐도 아니 오고, 저날 봐도 아니 오고, 기다리고 바려도<sup>726</sup>) 아니 오난,

정이엇인 정수넴이 테독골은 배,<sup>727</sup>) 부수 먹어 낱 동더레도 돌아 뉘 훈죵<sup>728</sup>) 자고,

711) 느려오단: 내려오다가.

712) 테가: 때가.

713) ㅋ쿨히 행: 깨끗이 해서.

714) 알통에서: 아래통에서.

715) 울통에서: 윗통에서.

716) 멘짜: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717) 나문섭에: 나뭇잎에.

718) 남전중: 남자인중.

719) 가달: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720) 드물런: 없어서.

721) 노민: 놓으민.

722) 저 먼 정: 저 올레.

723) 헤앗어: 해서.

724) 노념허저: 놀려고 하저.

725) 멩지비단: 명지비단.

726) 바려도: 바래도.

서더레도 돌아 뉘 흥좁 자가난, 아이고 부레기 싹뻗구나.<sup>729)</sup> 즈청빈 허는 말이,  
 “야, 정이엇인 정수넌야. 아무가이 장정들은 강 관관남을 허여 오는다, 너는 관관남  
 도 아니 허여오고 무시거를<sup>730)</sup> 허느냐?”  
 흥저 강 관관남 메여 오렌 헤가난,  
 “게결랑 상전님아, 애기씨 상전님아. 쉼<sup>731)</sup> 아홉도 내어 놓서. 물<sup>732)</sup> 아홉도 내어  
 놓서.”  
 쉼 아홉도 내어 논다. 물 아홉도 내어 논다. 어리령 떠리령 어리령 떠리령~ 어리  
 령~ 저 산천더레 올라간다.  
 다 올라가난, 동더레 벌은 가지에 쉼 아홉도 메어간다. 서더레 벌은 가에 물 아홉도  
 메어간다. 낭<sup>733)</sup> 그늘에 앓안 헛들랭이<sup>734)</sup> 갈라정<sup>735)</sup> 즈<sup>736)</sup> 자노렌 허난, 쉼 아홉 물  
 아홉은 물 기리완<sup>737)</sup> 다 죽엇구나.  
 물 기리완 다 죽으난, 정이엇인 정수넌인 쉼 아홉 물 아홉 가죽머리 자쳐 놓안,<sup>738)</sup>  
 궤긴<sup>739)</sup> 익어신가 흥점,<sup>740)</sup> 설어신가 흥점. 멩게남<sup>741)</sup> 걷어 난, 단단숯불 피완 먹단  
 보난, 쉼 아홉 물 아홉 문<sup>742)</sup> 먹어지엇구나.  
 가죽 머리 자쳐 놓안, 지언 앓영<sup>743)</sup> 오단 보난, 올리수(沼)에 곱닥헌<sup>744)</sup> 올리<sup>745)</sup> 한  
 쌍이 잇엇구나. 우리 상전님은 곱닥헌 것에만 좋아허난, 저 올리 맞형 강 상전님 눈  
 에 드리젠,<sup>746)</sup> 은기 도끼 황기 도끼 내여난 탁허게 맞히난, 황기도끼 물 알려레 들어  
 가 불고 올린 포르릉 포르릉 하늘옥황더레 도올라 불엇구나.  
 도올라 부난, 아이고, 이젠 어떻허민 조코. 올린 못 맞히고 도끼 물 알려레 들어가  
 불고. 이젠 구쟁이 점벙이 벗언 놔두고 동더레도 풍당풍당 숨벼간다. 서더레도 풍당풍  
 당 숨벼간다. 아이고, 숨비단 보난, 피체골은 도둑놈은 가죽 머리 자쳐 논 거, 구쟁이  
 점벙이꼬지 앓안 도망갓구나. 나완 보난, 구쟁이<sup>747)</sup> 점벙이<sup>748)</sup> 엇엇구나. 가죽 머리

---

727) 테독골은: 임신한 배처럼.  
 728) 흥좁: 한잠.  
 729) 부레기 싹뻗구나: 바라보기 싫엇구나.  
 730) 무시거를: 무엇을.  
 731) 쉼: 소.  
 732) 물: 말.  
 733) 낭: 나무.  
 734) 헛들랭이: 뒤로 나자빠지는 꼴.  
 735) 갈라정: 누워서.  
 736) 즈: 잠.  
 737) 기리완: 그리워서. 목말라서.  
 738) 자쳐 놓안: 젓혀 놓아서.  
 739) 궤긴: 고기는.  
 740) 흥점: 한점.  
 741) 멩게남: 청미레덩굴.  
 742) 문: 모두.  
 743) 지언 앓영: 저서 갖고  
 744) 곱닥헌: 예쁜. 고운.  
 745) 올리: 오리.  
 746) 드리젠: 들려고.  
 747) 구쟁이: 고쟁이. 일할 때 입는 얇은 웃옷.  
 748) 점벙이: 일할 때 입는 바지.

자쳐논 거 엇엇구나. 아이고, 하늘이나 뵈신가. 땅이나 뵈신가. 계남입은<sup>749)</sup> 번들번들 허엇구나.

그거 계남입 번들번들 헨 거 탄 강알만 감추완. 새 비언<sup>750)</sup> 주지 멘들안. 주지, 누람지<sup>751)</sup> 멘들안 들러 씨언 장항<sup>752)</sup> 주위 옆이 완 들쌈들쌈 춤을 찻시난, 정이엇인 정술덱이 아침 반찬, 장 거리레 강, 국 끓리젠 장 거리렌 간 보난, 난데엇인 장항 주지가 돌쌈들쌈 춤을 찻구나.

“너가 구신이나? 생인(生人)이나?”

아이고, 돌쌈들쌈 헤여가난, 조청비신디 완,

“아이고, 애기씨 상전님아, 난데엇인 장항 주지가 돌쌈들쌈 춤을 찻수다.”

조청빈 옥출경(玉樞經)을 삼칠이 이십일 스물흔 번을 익엇구나.<sup>753)</sup>

너가 구신이나? 생인이나? 구신이건 옥황더레 도올르고 생인이건 혼저 나오렌 허난, 주지 벗언 나온 건 보난 정이엇인 정수넴이로구나.

“너, 쉼 아홉 물 아홉 내여 쥬 관관남 헤영 오렌 허난 어찌해서 그 모양으로 왔느냐?”

상전님아, 아이고, 상전님아, 곤도 말고<sup>754)</sup> 이르도 많서. 쉼 아홉 물 아홉 문 애먹영<sup>755)</sup> 죽어부난, 쉼 아홉 물 아홉 가죽 머리 자쳐 난. 벳견,<sup>756)</sup> 지언 오단 보난, 올리수에 궁예청(宮女)청 신예(侍女)청, 문암성 문도령, 꽃감관 꽃생인 꽃놀이 허는 거 보단 늦언 이 지경이 뒤엿우덴 허난, 피체골은<sup>757)</sup> 도둑놈이 문딱<sup>758)</sup> 앓어<sup>759)</sup> 가불엇젠. 이말 저말 쉼 아홉 물 아홉 죽은 건 생각 못허고 옥황에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 궁예청 신예청 꽃놀이 허염서렌 허난 그거에 귀가 오짝 헤엇구나.

내일도 갈티엔 허난,

“내일도 가쿠다.”

“계민 내일랑 여서 곶이<sup>760)</sup> 글라.”

“넬랑 가커들랑 상전님 먹을 점심이랑 촛고루<sup>761)</sup> 닷뒤에 믰물고루<sup>762)</sup> 소금 닷뒤 낭 점심을 허고, 나 먹을 점심이랑 논쟁이<sup>763)</sup> 닷뒤에 소금이랑 노는 체 마는 체 허영 점심을 험서. 범벅을<sup>764)</sup> 멘듭서.”

749) 계남입은: 누리장나무 잎은.

750) 새 비언: 새(풀) 베어서.

751) 누람지: 떠나 짚으로 둥글게 엮은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

752) 장항: 장독.

753) 익엇구나: 읽엇구나.

754) 곤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755) 애먹영: 애를 써서. 힘들어서.

756) 벳견: 벗겨서.

757) 피체골은: 동작이 재빠른 꼴을 나타내는 말.

758) 문딱: 전부.

759) 앓어: 가져.

760) 곶이: 같이.

761) 촛고루: 참가루.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 순수한 메밀가루.

762) 믰물고루: 메밀가루.

763) 논쟁이: 메밀을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 때, 가루를 쳐낸 그 나머지로 갈린 껍질과 가루가 섞인 나깨.

물은 타젠 허난,  
 “상전님이랑 새 물 탐서. 날랑 묵은 물을<sup>765)</sup> 타쿠다.”  
 새 물 타젠 허난 구쟁기 딱살<sup>766)</sup> 낯 물질메<sup>767)</sup> 딱허게 녹두난<sup>768)</sup> 와들랑탕 허난  
 “아이고, 상전님아. 새 물을 타젠 허민 물머리 ㅋ서<sup>769)</sup> 있어야 험네다.”  
 “어떻헤영 출리느니?”  
 씨암톡 잡아놓고 잘 출려사<sup>770)</sup> 험니덴 허연. 상다리가 부러지게 출런 제반상 삼  
 술<sup>771)</sup> 걸연 귀에 강 터난 탁탁 터난,  
 “아이고, 이거 봅서. 그만헤연 잘 먹고렌 헤염수게.”  
 구쟁기 딱살 앓아 두고  
 “상전님이랑 묵은 물을 탐서. 날랑 새 물을 탕 ㄱ르치멍<sup>772)</sup> 가쿠다.”  
 옛날은 새각시들 새서방 물머리 ㅋ서 문져<sup>773)</sup> 허는 법을 마련허엿유다.  
 가단가단 보난, 정이엇인 정수넴이 깊은 산전드레 들어가난 어떻허민 좋으리오.  
 정이엇인 정수넴이 저건 먹을 것만 좋아허난,  
 “오라 우리 정심이나 먹영 가젠.”  
 걸랑 기영 험셴 헤연. 높은 동산에서 정심을 먹젠 허난,  
 “오라, 험디 앓양<sup>774)</sup> 먹게.”  
 “아이고, 것사 무신 말이파. 모른 사름이 보민 두가시(夫婦)가 앓양 먹엄젠 허고, 안  
 사름이<sup>775)</sup> 보민 종광 한집이 먹엄젠 허고, 상전님 먹다 남은 건 개나 쥐나 먹고, 상  
 전님 먹다 남은 거 종이 먹고, 종이 먹다 남은 거 개나 쥐나뻘이 아니 먹읍네다.”  
 ㅈ청비 혼직 끊어 먹으난 짬만 짬짬허난,  
 이거, 느 앓아당<sup>776)</sup> 먹어불렌 허난 순작만씩<sup>777)</sup> 빙에기만씩<sup>778)</sup> 반찬, 출리영<sup>779)</sup> 문  
 딱 먹어놓고, 요 물은 먹젠 허난, 하도 짬 거 먹어노난, 그건 ㄱ다귀<sup>780)</sup> 죽은 물, 요  
 건 먹젠 허민 그건 구렁이<sup>781)</sup> 죽은 물, 요건 먹젠 허민 그건 베염이 먹은 물, 아이고,  
 그 물 못 먹읍네다.

764) 범벅을: 가루에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같이 넣어 익힌 음식.

765) 묵은 물: 현 말을. 오래된 말을.

766) 구쟁기 딱살: 소라 껍데기.

767) 물질메: 말안장.

768) 녹두난: 누르니.

769) 물머리ㅋ서: 말머리고사. 혼인잔치 따위에 신랑이 탈 말에게 지내는 고사(告祀).

770) 출려사: 차려야.

771) 삼술: 제상에 차린 음식물을 각각 조금씩 처음 걸어 모음.

772) ㄱ리치멍: 가르치면서. 길들이면서.

773) 문져: 먼져.

774) 험디 앓양: 같이 앓아서.

775) 안 사름이: 아는 사람이.

776) 앓아당: 가져다가.

777) 순작만씩: 메추라기만큼.

778) 빙에기만씩: 병아리만큼.

779) 출리영: 반찬이영.

780) ㄱ다귀: 각다귀

781) 구렁이: 구렁이.

“어떻허민, 어떤 물을 먹느니?”

가단가단 보난 짚은<sup>782)</sup> 짚은 현 물, 주천강 연휼뭇디가 잇엇구나.

“이 물 먹읍서.”

“어떻헨 먹느니?”

옷을 우알로 멘짜허게 벗읍서. 조름을<sup>783)</sup> 하늘 옥황더레 비짜허게 헤여 낱, 굽엿 할 쪽할쪽 먹읍센 허난, 쯤정빈 정이엇인 정수넴이 말대로 옷을 민짜 벗어놓고 조름을 하늘 옥황더레 비쪽허게 내여낱, 구부련 엇더전<sup>784)</sup> 할쪽할쪽 먹어가난, 그땐 입은 입 성도 낭 우터레<sup>785)</sup> 다 데껴불엇구나. 가시자왈더레 데껴부난

“요것이 문암성 문도령 궁예청 신예청 꽃놀이 허는 거우다.”

아이고, 요놈신디 속아지엇구나.

“저 옷이나 나 도라.”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나 말 잘 들으켄 허민 옷 안네쿠다.”

“느 말을 잘 듣젠 오랏주. 아니 듣젠 오랏이나?”

“게민 영 험서. 젓통이나, 몽실몽실 현 젓통이나 문직아<sup>786)</sup> 보게.”

“아이고, 나 젓통 문직는 거 보단 나 녹는 방에 강 가지깁일<sup>787)</sup> 문직아 보라. 그보다 더욱 좋아지다.”

“영 험서. 상전님아. 입이나 쪽허게 맞춰보게.”

“아이고, 나 입 맞추는 거 보다 나 녹는 방에 강 나팔을 불어보라. 그보다 더욱 좋아지다.”

“영 험서. 흘모게기나<sup>788)</sup> 혼번 문직아 보게.”

“나 흘모게기 문직는 거 보다 나 녹는 방에 강 은토시를 썬보라. 그보다 더욱 좋아지다.”

“상전님아, 영 험서. 볼끈 안앙 즘이나 자보게.”

“아이고, 나영 즘자는 거 보다, 나 녹는 방에 강 금상이불 한이불 원앙 치랑 잣베게 누워보민 그보다 더 좋아지다.”

경 정 허단 보난 해는 열락서산(連落西山) 다 지엇구나.

“아이고, 영 허나 정 허나, 이날 밤인 여기서 세엿당 가살거난<sup>789)</sup> 돌 헤당<sup>790)</sup> 움막이나 짓이라.”

움막은 짓이난

날랑, 안으로 불을 솔으크메<sup>791)</sup> 늘랑 베끼디로<sup>792)</sup> 강 불빛 나오는 냥 고망을<sup>793)</sup> 막

782) 짚은: 깊은.

783) 조름을: 엉덩이를.

784) 엇더전: 엇드려서.

785) 우터레: 위에.

786) 문직아: 만져.

787) 가지깁이: 개지. 늦그릇의 뚜껑.

788) 흘모게기나: 손목이나.

789) 가살거난: 가야할거니.

790) 돌 헤당: 돌 해다가.

791) 솔으크메: 피우겠으니.

으렌 허난,

“결랑 기영 협서.”

서른여덟 니빠디<sup>794</sup> 허우덩씩 웃엇구나.

정이엇인 정수넴이 베끼디 왕, 열 고냥 막으민 다섯 고냥 빵<sup>795</sup> 지더간다.<sup>796</sup> 다섯 고냥 막으민 세 고냥 빵 지더간다. 정이엇인 정수넴인 부수 막으멍,

“올로여.<sup>797</sup> 요 불빛이여. 요 불빛이여.”

헤가민, 안으로, 막당 보민 베끼달로 불빛 나오는 냥, 경 정 허단 보난, 동산새별 먼동 금동(金東) 대명천지 붉는<sup>798</sup> 날이 뒤편구나. 붉는 날이 뒤편이난, 꾀죽 곶이<sup>799</sup> 용심이<sup>800</sup> 불쑥불쑥 나가난

“정이엇인 정수넴아. 너는 왜 불쑥불쑥 용심을 내느냐? 나 동무릅더레 굽으라. 니나<sup>801</sup> 잡아 주마.”

늑단 꾀등<sup>802</sup> 견언 보난 벳모살이 흘친 듯,<sup>803</sup> 웬 꾀등<sup>804</sup> 걸천 보난 흑모살이 흘친 듯 헤엇구나. 좁진 닌<sup>805</sup> 놓아두고 훑은 닌<sup>806</sup> 독독독독 다 죽엇구나.

덩드령곶은<sup>807</sup> 흘모게기 가심더레 얼핏얼핏 들어와 가난, 아이고, 요건 행실머리가 꾀쌌허다.<sup>808</sup> 자굴씨<sup>809</sup> 잇이난 그거 꺾언 귀창에 꺾 박아부난 귀창 터전 오꼳 죽어 불엇구나.

귀창 터전 죽어부난, 쯤청빈 물 탄, 이 몰아 저 몰아 오라난 질로 집을 좇앙<sup>810</sup> 걸렌 허난, 집 좇안 오난,

“어머님아, 아바님아. 종이 아깝수과? 딸이 아깝수과?”

“것사<sup>811</sup> 무신 말이니? 종보다 딸이 더욱 아까와 지다만은 종은 경 해도 상전님 먹을 거고 이녁 먹을 거 오몽도<sup>812</sup> 허고 한다.”

계민 딸보다 더욱 아까운 종을 강 살려오쿠덴 헤연. 쯤청빈 남저 행착 출련,

---

792) 늘랑 베끼디로: 널랑 밖으로.

793) 거망을: 구멍을.

794) 니빠디: 이빨.

795) 빵: 빼서.

796) 지더간다: 빨감으로 불에 넣는다.

797) 올로여: 요기여.

798) 붉는: 밝는.

799) 꾀죽곶이: 팔죽같이.

800) 용심이: 화가.

801) 니나: 이나.

802) 늑단 꾀등: 오른쪽 꾀등.

803) 벳모살이 흘친 듯: 하얀모래가 흘린 듯.

804) 웬 꾀등: 왼쪽 꾀등.

805) 좁진 닌: 작은 이는.

806) 훑은 닌: 큰 이는.

807) 덩드령곶은: 덩드령같은.

808) 꾀쌌허다: 꾀쌌하다.

809) 자굴씨: 자귀나무.

810) 좇앙: 찾아서.

811) 것사: 그계.

812) 오몽도: 움직이기도.

삼도령이 부엉새 하나<sup>813)</sup> 맞천, 느 맞치고라. 나 맞치고라. 싸움발악 허염구나.

“야, 느네 무사 경 싸웁시니?”

“이 부엉새 하나 맞천 싸웁수다.”

경 말앙 그 부엉새 나신디 돈 석 냥에 풀아두고<sup>814)</sup> 느네, 훈 냥씩 갈랑 앓이렌<sup>815)</sup> 허연. 쥐 두고 부엉새 죽은 거, 마친 거 산, 서천꽃밭 꽃감관 꽃쟁인, 각시 말다 부엉 부엉. 서방 말다 부엉부엉. 부엉새 제완<sup>816)</sup> 짐을 못 자난, 이 부엉새 마치는 자. 광고 시견. 이 부엉새 마쳐 주는 사름은 단(單)뜰애기 사월 삼으켄 헤연. 광고 붙엿구나.

부엉새 마천. 꽃감관 꽃쟁인네 집이 서천꽃밭디, 활죽 헌 디 질런 꽃밭디 데견. 꽃 밧을<sup>817)</sup> 주악거려 가난<sup>818)</sup> 꽃감관 꽃쟁인이 허는 말이,

“어떻 헌 젊은이가 놈이 꽃밭디 기웃 거렘시니?”

허난,

“나 부엉새 마쳐관뉘<sup>819)</sup> 어디사 강<sup>820)</sup> 죽은지 몰란 영 주악 거렘수다.”

허난,

그 부엉새, 각시 말다 부엉부엉. 서방 말다 부엉부엉. 그 부엉새 마쳐주민 나 단뜰 애기 사위 삼으켄 허난, 보난, 부엉새 마쳐구나.

단뜰애기 사위를 삼앗구나. 가는 날 저녁 흘목이도 혼번 아니 심으난, 뒷날 아침 은<sup>821)</sup> 일어난,

“아바님아. 어머님아. 사위 너미 도고(道高) 높은<sup>822)</sup> 사월 허엿우다. 밤인 좀자젠 허 난 흘목도 혼번 아니 심는 사위우다.”

이젠, 뒷날은 사위신디 허는 말이

“무사,<sup>823)</sup> 우리 뜰 무음에가<sup>824)</sup> 엇이나? 어떻게 일로 흘목도 혼번 안 심엄시냐?”

“이 무음에<sup>825)</sup> 법은 어떻게허는지, 우리 국에 법은 과걸 강, 뵙 와사 부베간이<sup>826)</sup> 몸 허락을 허난 흘목이도 혼번 아니 심엿우다.”

“아이고, 양반이 집 즈식이<sup>827)</sup> 적실허다.”<sup>828)</sup>

이젠 꽃밭디 구경을 시기난,<sup>829)</sup> 어떤 사름은 그날 밤이 시기난, 즈청비가 웃통 벗언

---

813) 하나: 하나.

814) 풀아두고: 팔아두고.

815) 갈랑 앓이렌: 나누어서 가지라고.

816) 제완: 때문에.

817) 꽃밧을: 꽃밭에.

818) 주악거려 가난: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다녀가니.

819) 마쳐관뉘: 마쳤는데.

820) 어디사 강: 어디에 가서.

821) 아침은: 아침은.

822) 도고(道高) 높은: 거만하다는 뜻임.

823) 무사: 왜?

824) 뜰 무음에가: 딸 마음에가.

825) 무음에: 마을에.

826) 부베간이: 부부간이.

827) 즈식이: 자식이.

828) 적실허다: 확실하다.

829) 시기난: 시키니.

강, 꽃밭디 누웠, 정이엇인 정수넴이 혼령이 들언 배 우이 올라오난, 부엌새 할쭈헌 대로 꽃안, 그걸로 사위 삼앗젠 허는 어른도 잇입네다.

이젠 쯤청빈 피 오를 꽃, 슬<sup>830</sup>) 오를 꽃, 오장육보 간담 피부 오를 꽃, 쯤근쯤근<sup>831</sup>) ㄱ르치난<sup>832</sup>) 탄. 하나씩 콤에<sup>833</sup>) 콤어 두고,

서천꽃밭디선 나 강 옴<sup>834</sup>) 동안 상동낭 용얼레기<sup>835</sup>) 반착<sup>836</sup>) 꺾언 본메본짱<sup>837</sup>) 두 어두고, 쯤청빈 이 몰아 저 몰아 정이엇인 정수넴이 죽어난 디 좃앙 걸렌 허연 가난, 정이엇인 정수넴인 빼만<sup>838</sup>) 슬그랑<sup>839</sup>) 허엿구나. 피 오를 꽃 슬 오를 꽃 놓안. 삼 시 번 내훈두난 와들레기 살아났구나. 집이 오란, 어머니, 아버지. 똥보다 더 가까운 종 살려 오랏우덴 허난,

“아이고, 이 년아, 저년아. 사름을 죽이고 살리곡 허여지느냐? 너가 간쭈 나고가 라.”

내쭈까 부난,<sup>840</sup>) 쯤청빈 비세(悲鳥)골이<sup>841</sup>) 울멍 나오란 주천강 연훼뭇디 잇이난, 이거 주모할망 수양똥 돌앗구나.

수양똥 나난, 어멍 눈에 시찌나고<sup>842</sup>), 아방 눈에 골리난 나왓우덴 허난, 수양똥을 삼으라. 수양똥을 삼으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 서수왕에 장계 가젠 허난, 우리 집이 흥세미녕<sup>843</sup>) 멧겼구나.<sup>844</sup>) 흥세미녕이나 짜렌 허난, 알각절각 광주청 눈물 주용아방 연주지듯 비세골이 울어간다.

눈물은 털어지어 가난, 금바독도 드릴<sup>845</sup>) 놓앗구나. 옥바독도 드릴 놓앗구나. 공작 새(孔雀鳥)도 그려 지엿구나. 화기 새(花器 鳥)도 눈물자국으로 그려지엿구나.

그거 멧지비단 짜 놓안 올라난, 이거 누게 짜시넴? 허난, 우리 집 수양똥 애기가 찻젠 허난,

“그 수양똥 누게니?”

허난, 쯤청비엔 허난, 그 말 들엇단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 밤잡아<sup>846</sup>) 야사삼경(夜事三逕) 현, 현덜<sup>847</sup>) 밤이 나가 내려가켄 전갈을 허난, 쫓죽 할망<sup>848</sup>) 쫓죽 써 놓아 두

830) 슬: 살.

831) 쯤근쯤근: 자근자근.

832) ㄱ르치난: 가르치니.

833) 콤에: 품에.

834) 옴: 오는.

835) 상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 머리빗.

836) 반착: 반쪽.

837) 본메본짱: 증거물이 될 사물.

838) 빼만: 빼만.

839) 슬그랑: 쌓여있다.

840) 내쭈까 부난: 내쭈아 버리니.

841) 골이: 같이.

842) 시찌나고: 거슬리고.

843) 흥세미녕: 혼인잔치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가져가는 폐백인 무명.

844) 멧겼구나: 말겼구나.

845) 드릴: 다리를.

846) 밤잡아: 밤에.

고 문왕성 문도령 나오란

“이 문 올라.<sup>849)</sup> 이 문 올라.”

허난,

나가 하늘옥황 문어양성 문도령이노렌 허난, 문왕성 문도령이결랑 손가락을 내와 도렌 허난, 손가락을 내와 두난, 바농으로,<sup>850)</sup> 침을 꼭허게 손가락을 찢러부난, 인간은 서정허고 부정(不正)허다. 하늘옥황 도올라 불엇구나. 하늘옥황 도올르난, 쯤청빈 뒷날 아직은 주모 할망 꾀죽 썬 놓고 사위 오민 주젠<sup>851)</sup> 보난,

“언치낙<sup>852)</sup> 누게 아니 와서니?”

허난, 아이고, 이만 저만 헛우덴 허난, 난, 사위오민 문왕성 문도령 사위 삼젠 허단 보난,

“야, 경 허난 어멍 눈엔 골리나고 아방 눈엔 시찌나트구나. 나 눈에도 시찌나난 너가 강 중 나고가라.”

쯤청빈 이젠 어멍 눈에도 시찌나고 아방 눈에도 골리 나고, 수양어멍도 골리나고 시찌난, 어디 가코.

머리 깍안 중으로 들어가젠 헤연. 절간 법당 들어가난, 절간엔 들어 가난, 인간에 노력강<sup>853)</sup> 시권제삼문(勸濟三文)을 반양 오라. 시권제삼문을 반안 절간 법당더레 올라 가젠 허난, 발도 버물고<sup>854)</sup> 허난, 주천강 연훼못디서 발이나 싯젠 한탄을 허염시난, 하늘옥황에 궁예청 신예청 옥황에서 문왕성 문도랑 애열병이<sup>855)</sup> 난 인간에서 쯤청비 먹어난 물이라도 강 떠오렌 허난, 어느 것사<sup>856)</sup> 쯤청비 먹어난 물인지 몰란, 비세굴이 울염시난, 나가 그 물을 떠 주크메<sup>857)</sup> 날 하늘옥황더레 올려 줄티엔? 허난, 올려 주켤.

물을 삼세번 거려 먹언 물을 떠 주엇구나. 물을 떠 주난, 하늘옥황더레 올려주엇구나.

하늘옥황더레 올려주난, 쯤청빈 시권제삼문 받으레 문왕성 문도령네 집이 들어갓구나. 시권제삼문을 주난,

“높이 들렁 알려레<sup>858)</sup> 시르륵 시르륵 비웁서. 혼방울이<sup>859)</sup> 떨어지민 멍(命)도 복(福)도 떨어집네다.”

높이 들렁 알려레 시르륵 시르륵 비우난, 혼착 귀아진<sup>860)</sup> 내부난<sup>861)</sup> 알더레 털어지

---

847) 혼달: 한달.

848) 꾀죽할망: 팔죽할망.

849) 올라: 열라.

850) 바농으로: 바늘로.

851) 오민 주젠: 오면 주려고.

852) 언치낙: 어젯밤.

853) 노력강: 내려가서.

854) 버물고: 더럽고.

855) 애열병이: 가슴병이. 상사병이.

856) 어느 것사: 어느 것이.

857) 떠 주크메: 떠 줄 테니.

858) 알려레: 아래로.

859) 혼방울이: 한방울이.

엿구나. 좁음으로<sup>862</sup>) 방울방울 올리단 보난, 해는 열락서산 다 지엿구나.

밤인 뉘난 유저남이<sup>863</sup>) 잇엇구나. 팽저남이<sup>864</sup>) 잇엇구나. 유저남, 팽저남 우이<sup>865</sup>) 올라간.

“저 들(月)은 곱기는 곱다만은 계수나무 박혔구나.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만이 못 고와지다.”

무남성 문도령은 마당에 나오란,

“저 들은 곱기는 곱다만은 계수나무 박혔구나. 지하에 쯤청비만이 못내 고와지다.”

맞음짜이 뉘연 놀레가<sup>866</sup>) 뉘엿구나. 그림자를 바려보난 낭<sup>867</sup>) 우이 사름이 잇엇구나.

“너가 구신이나? 쟁인이나?”

구신이건 옥황도례 도올르고 쟁인이건 내려오렌 허난, 내려온 건 보난, 쯤청비랏구나. 머리 깎안 삭발 뉘엿구나.

“이거 어평헌 일이니?”

허난, 문왕성 문도령 생각허단 보난, 이 지경이 뉘우덴 허난, 방안내 들양<sup>868</sup>) 들어갓구나. 문왕성 문도령도 쯤청비 생각 허단보난, 먹는 밥이 이젠 다 맛이 엿언, 뒷날 부편, 아척부편<sup>869</sup>) 세숫물도 굿영<sup>870</sup>) 나오고, 밥도 혼사발 다 비영 나오곡, 영 허단 보난, 늦인덱이 정하님 필아곡절(必有曲折) 허다. 이상허다. 물도 굿영 나오고 세숫물도 굿영 나오곡, 밥도 혼사발 다 비왕 나오곡, 이거 어평헌 일이니? 허연. 손가락에 춤 적전<sup>871</sup>) 창 궁길<sup>872</sup>) 뜰환<sup>873</sup>) 보난, 곱닥헌 애기씨광 밥도 느도 혼직<sup>874</sup>) 나도 혼직, 세수도 느도 혼번 나도 혼번.

아이고, 이거 큰일났구나. 상전님 알아나민 나 청뎃섭에 목을 졸라 죽을 지경이 뉘엿구나. 상전님신디 강 널 아척이랑 곤젠<sup>875</sup>) 허난, 쯤청비가 허는 말이,

“문왕성 문도령님아, 아침이 강 아버지 어머니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레 가걸랑, 목은 것이 좋덴 허걸랑 나신디 장게 오고, 새것이 좋덴 허건 서수왕에 장게 갑서.”

문왕성 문도령님이,

“아바지 어머니. 목은 옷이 좁네까? 새 옷이 좁네까?”

860) 혼착 귀아진: 한쪽 모서리는.

861) 내부난: 내버리니.

862) 좁음으로: 짓가락으로.

863) 유저남이: 유자나무가.

864) 팽저남이: 팽나무가.

865) 우이: 위에.

866) 놀레가: 노래가.

867) 낭: 나무.

868) 들양: 데리고.

869) 아척부편: 아침부터.

870) 굿영: 더러워져서.

871) 춤 적전: 침 적셔서.

872) 창 궁길: 창 고망을.

873) 뜰환: 풀어.

874) 혼직: 한적.

875) 곤젠: 말하려고.

“새 옷은 어디 가젠 허민, 말쑥하게 입영 가젠 허민 새 옷이 좋다만은 방장부장 입젠 허민 묵은 옷이 좋아지다.”

“게건 새 장이 뚱네까?<sup>876)</sup> 묵은 장이 뚱네까?”

“새 장은 처음 먹을 때 좋주만은 짙은 맛은 묵은 장이 좋아지다.”

“어머니 아버지, 게건 사름은 새 사름이 좋읍네까? 묵은 사름이 좋읍네까?”

“새 사름은 처음 볼 때 곱다만은, 먼저 잇인<sup>877)</sup> 사름은 짙은 정 늦은 정 속 얘기 알긴 묵은 사름이 좋다.”

“게민 나 서수왕에 장게 아니 가쿠다.”

아이고, 이거 어떻 험 일인고 펡풍을<sup>878)</sup> 견언 보난, 곱닥헌 애기씨가 잇엇구나.

“너 나 며느리 뉘컨덜랑 숯 아홉 가멩이<sup>879)</sup> 비와 난,<sup>880)</sup> 구덩이<sup>881)</sup> 아홉 파 난, 숯 아홉 가멩이 비아 낱 칼선드리<sup>882)</sup> 낱, 불 피완, 칼선드릴 낱 발아갔다.<sup>883)</sup> 발아왔다 허민 나 며느리가 적실허다.”

허난,

“결랑 기영 협서.”

허연. 구덩이 아홉 파 놓고 숯 아홉 가멩이 비와 놓고, 불을 벌건케<sup>884)</sup> 피와 난, 칼선드리 낱 발아갔다. 발아왔다 허연 슬짝허게<sup>885)</sup> 내리난 뒤꿈치가 비어지엇구나.

“아이고, 어떻허난 놀랑내가 남시니? 놀핏내가<sup>886)</sup> 남시니?”

“여자엔 험 건, 열다섯 십오세가 넘으면 맨스 오는 법, 몸에 거 오는 법, 경도법(經度法) 마련협네다.”

경도법을 마련헤여 두고, 느네 부베간이 살아보렌 헤연. 살젠 허난, 서수왕에서, 서수왕 뜰애기 막편지 좃으레<sup>887)</sup> 가난, 서수왕님이 부아가 데짜지언<sup>888)</sup> 문왕성 문도령을 죽이기로 작정을 허엿구나.

죽이기로 작정은, 어떻 험 작정이냐 허면 세변난리(世變亂離)를 강 막앙 오렌. 세변난리를 강 막아오렌 허난, 삼천선비덜 술 혼잔씩 권허민 고암약주<sup>889)</sup> 한약주 열약주가 뉘연. 독약을 낱 혼잔씩 다 먹영 보내렌 허난, 문왕성 문도령 문<sup>890)</sup> 청헤연. 삼천선비덜이

“나 술도 혼잔 먹영 가라. 나 술도 혼잔 먹영 가라.”

876) 뚱네까: 답니까.

877) 먼저 잇이: 먼저 있는.

878) 펡풍을: 펡풍을.

879) 가멩이: 가마니.

880) 비와 난: 비워 놓고.

881) 구덩이: 구덩이.

882) 칼선드리: 여기서는 칼날이 위로 서게 걸쳐놓은 것을 뜻함.

883) 발아갔다: 밟아서 갔다.

884) 벌건케: 벌겋게.

885) 슬짝허게: 살짝.

886) 놀핏내가: 피 냄새가.

887) 좃으레: 찾으러.

888) 부아가 데짜지언: 화가 많이 난 상태.

889) 고암약주: 구암약주. 아홉 번씩이나 고아낸 술.

890) 문: 모두.

영 혈 때 즈청비가 허는 말이, 멩지바지<sup>891)</sup> 솜저구리<sup>892)</sup> 입영 강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호곰도<sup>893)</sup> 먹지 말앙 가심더레 문짜<sup>894)</sup> 비웁센 허난, 곁랑 기영 허렌 허연.

흔 잔씩 흔 잔씩 문딱 권허난,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요 솜, 바지 저고리더레 문 비우난, 문 흡수가 뒤엇구나.

흔잔도 아니 먹언 오단 보난, 주목잡이 주모할망 나 술이라도 흔잔 먹영 가렌. 나 술도 흔잔 권허난, 요 할망 주는 술은 어뎡 아니허카부덴 허난, 그 술이 도얌약주 한 약주 열약주가 뒤엇구나.

그거 먹으난, 문왕성 문도령 물 탄 오란, 저 올레 오란, 물 알더레 털어지엇구나. 물은 콧소리를 허난, 즈청빈 나오란 보난, 별써 문왕성 문도령은 죽엇구나. 방 안내 업어다 낱 녹지난,<sup>895)</sup> 삼천선비덜 죽엇인가? 살앗인가? 왕 보젠 왓구나. 벌 밑축, 콧소리 허는 밑축 잡아단 와다닥 와다닥 헤여가난, 아이고, 콧소리 헤염구나.

무쇄 방석 내여준다. 무쇄 즈베기<sup>896)</sup> 내여준다. 삼천선비덜 무쇄 방석에 무쇄 즈베기 하나도 못 먹언. 즈청빈 믈 즈베기<sup>897)</sup> 헤연 바득바득 씹어 먹어가난, 아이고, 저 건 사람이 아니랑 구신인가? 어뎡헨가? 겁난 짐에 들앗구나<sup>898)</sup>.

둔단 보난,<sup>899)</sup> 세변난리 서방 대신 막으레 가젠 허난, 이 강에서 저 강더레 가살거난,<sup>900)</sup> 강둑에 앓안 비세굴이 울엄시난 백강생인<sup>901)</sup> 죽언 바당더레 띠와부난 거북이 몸으로 환싱 허엿젠 험디다.

거북 몸으로 환싱 허난, 세변나리 막으레 갈 때 돌앙 가고, 돌앙 오고 헤연.

오라근에 부베간이 살아보젠 헤연. 즈청빈, 정이엇인 정수넴이 살려난 꽃으로 남인 가장 문왕성 문도령 살렸구나.

살련, 부베간이 살암시난, 어느 건 여자가 아니라. 꽃감관 꽃생인 툐애기신디 기다리렌 헤연. 이거 상동낭 용얼레기 주멍 허는 말이, 이만 저만 헨 일이 잇언, 정이엇인 정수넴이 죽언 살려올 땐, 서천꽃밭 꽃감관 꽃생인신디 들어간 때, 꽃감관 꽃생인 툐 부베간을 삼안 상동낭 용얼레기 반착 꺾언 남녀 구별법은 과걸 뵙<sup>902)</sup> 와사헌덴<sup>903)</sup> 헤연. 이거 본메본짱 이난 그디랑<sup>904)</sup> 선보름, 나상<sup>905)</sup> 후보름, 그디랑 선보름 허멍, 오멍가멍 흔 덜에 보름씩 살림 살겐 허난, 계곁랑 기영 허렌 허연.

문왕성 문도령 꽃감관 꽃생인신디, 툐애기신디 보낸 놔두난 그디 강 살단 보민

891) 멩지바지: 멩지바지.

892) 솜저구리: 솜저고리.

893) 호곰도: 조금도.

894) 문짜: 다.

895) 녹지난: 눅히니.

896) 무쇄 즈베기: 무쇠 수제비.

897) 믈 즈베기: 메밀 수제비.

898) 들앗구나: 달아났구나.

899) 둔단 보난: 달리다 보니.

900) 가살거난: 가얏거니.

901) 백강생인: 하얀 강아지는.

902) 뵙: 봐서.

903) 와사헌덴: 와야 한다고.

904) 그디랑: 그곳에서는.

905) 나상: 나한테는.

즈청비신디 올 땐 물안장도 거꾸로 씨영<sup>906)</sup> 오고 신도 거꾸로 신영 와가난, 나신디  
오기가 정 실평<sup>907)</sup> 저추룩<sup>908)</sup> 험구나 헤연.

흐를날은<sup>909)</sup> 인간더레 도노리젠 허난, 세번도원수 막을 때

“나라를 차지하겠느냐?<sup>910)</sup> 세경땅을 차지하겠느냐?”

영 허난, 여자라부난 세경땅을 차지허영 오곡농서 지영 먹켄 허영. 인간더레 내려완  
보난, 오곡 농선 다 지어불고 늦을 농서 믰물<sup>911)</sup> 농서 남앗구나.

다시 하늘 옥황 도올란, 믰물 농선 좃쟁이에<sup>912)</sup> 콤언 내려올 땐 문왕성 문도령도  
나도 혼디 가켄.

문왕성 문도령도 곶이 내려오단 보난, 나문 비연,<sup>913)</sup> 툫밥이 잇엇구나. 툫밥에 믰물  
씨 석언 피난<sup>914)</sup> 늦인 농선 믰물농서가 뉘고,<sup>915)</sup> 정이엇인 정수넴이.

“상전님아, 어디 간 옹데가?”

아이고, 베고프고 시장허난, 밥이나 어디 강 얻어 줍센 헤연. 밥이나 얻어줍센 허  
난,

젊은 청년덜 바령밭디<sup>916)</sup> 니<sup>917)</sup> 귀에 물모쉬 거느런 밧 불럼시난<sup>918)</sup>, 밧 호꿈 주렌  
허난, 저 젊은이들 줄 거랑 마랑. 우리 먹을 거도 엇젠 허난, 그 밧단,<sup>919)</sup> 씨 판씩허  
게<sup>920)</sup> 거두와 붙디다.

가단 보난, 할망 하르방이 쉼스렁 농서 허염구나.

“할마님아, 하르바님아, 우리 베고프고 시장허난 밥이나 호꿈 줍센.”

허난,

“동고랑착에<sup>921)</sup> 밧을 헤영 와신디 우리도 먹어 보지 안허여시난 반이랑 먹영 가고,  
반이랑 놔똥 가렌.”

허난,

“걸랑 기영 험센.”

허영. 동고랑착에 강 판씩허게 먹어두고, 그 밧단 무췌열음<sup>922)</sup> 췌열음 막게만씩 덩  
드령만씩, 옛날 조코구린 췌스렁 농선 잘 뉘덴 험네다.

---

906) 씨영: 씌어서.

907) 정 실평: 저렇게 싫어서.

908) 저추룩: 저렇게.

909) 흐를날은: 하룻날은.

910) 차지하겠느냐: 차지하겠느냐.

911) 믰물: 메밀.

912) 좃쟁이에: 겨드랑이에.

913) 나문 비연: 나무는 베어서.

914) 석언 피난: 섞어서 뿌리니.

915) 믰물농서가 뉘고: 메밀농사가 되고.

916) 바령밭디: 소나 말 따위가 드나들면서 짓밟혀진 밧을 가리키는 말.

917) 니: 네.

918) 불럼시난: 밧을 밟고 있으니.

919) 밧단: 밧에는.

920) 판씩허게: 아무것도 없게.

921) 동고랑착에: 자그마한 대(竹)그릇에.

922) 무췌열음: 무쇠 열매.

밭 불릴땐<sup>923)</sup> 배 고프른 사름 엇이 밥을 배불리 줘사 그 밧디 농서가 니 귀가 키짱허  
게<sup>924)</sup> 씨가 들어사는 법지법 마련허엿습네다.

상세경은 즈청비 중세경은 문도령 하세경은 정이엇인 정수냄이 동경(東) 가린석<sup>925)</sup>  
서경(西) 부림패<sup>926)</sup> 농잠대<sup>927)</sup> 밧갈라침<sup>928)</sup> 정칠월 백중대제일(百中大祭日) 불러 주  
고, 시만곡석(新萬穀食) 잘뉘게 허고, 사람 먹은이 덕도 세경이 덕, 죽어 움트감장 허  
기도 세경이 덕, 우리 살앙 걸어 덩기기, 짐자기 세경이 덕 아납네까. 세경 난수생 본  
을 풀엇우다. 본산국 과광성 신평엇우다. 집안에 올금년 이천 십팔년 무술년 백록 팔  
월 스무요드렛날 이 굿당에서 이천당 이불공 이적선 발원 드리는데, 천덕이나 만덕이  
나 오고가는 즈순 소원성취 장원성취 시겨줍서.

---

923) 밧 불릴땐: 밧 붉을 때는.

924) 키짱허게: 반듯하게.

925) 가린석: 밧갈 때 소의 멍에에 한 끝을 묶고 한 끝을 받가는 사람의 손에 쥐어 소의 방향을 조종하  
고 모는 밧줄.

926) 부림패: 가린석과 같음.

927) 농잠대: 쟁기를 일컫는 말.

928) 밧갈라침: 반 가르기.

## 초공본풀이

옛날 옛적 천하 임전국 대감님이 샅데다. 지하 짐전국 부인님이 샅데다.

입장 갈림<sup>929)</sup> 허연. 천하(天下)에 거부제(巨富者)로 살아가는디, 이십 스물 넘고 삼십 서른이 돼여도 남녀간에 즈식이<sup>930)</sup> 엇어지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은 흐를날은<sup>931)</sup> 강나룩<sup>932)</sup> 밧도<sup>933)</sup> 돌아보저. 초나룩<sup>934)</sup> 밧도 돌아보저. 두어 바둑, 장기도 두어 보저. 두어 바둑 장기 두단, 돈을 몰팍<sup>935)</sup> 몰귀 다 따난,

“대감님아, 집이 가민 어느 애기 잇영 주쿠과? 우리 갈라쥬 동<sup>936)</sup> 갑서.”

그 돈 혼 푼씩 갈라주어뵈 올는 게, 강나룩 밧 초나룩 밧 돌아보난, 말 모른 저 가막세<sup>937)</sup> 아방 본 셴<sup>938)</sup> 아방강골, 어멍 본 셴 어멍강골 허여가난, 이젠 내려오단 보난, 비주리 초막살이<sup>939)</sup> 영천강 웃임소리가 남시난, 얻어먹는 게와시(乞人)덜 무얼 보고 웃는고. 담고냥으로<sup>940)</sup> 눈을 쏘안 바려보난,<sup>941)</sup> 애기 흐나<sup>942)</sup> 놓안, 어멍 앞더레 걸어가민 아방이 웃어가고, 아방 앞더레 걸어가민 어병이 웃어가난, 얻어먹는 게와시덜토 저영 웃는디 우린 흐루종일 앓아도 웃을 일이 엇구넨 허연.

집이 오란 방을 잡안 누난, 짐진국 부인님은 대감님아, 대감님아. 나도 두 번은 아니 웃어도 혼 번은 웃을 일을 내어놓쿠넨 헤연. 은단평(銀唐瓶)에 서단마게<sup>943)</sup> 막안 춤썰<sup>944)</sup> 혼제 묵언 이레 동글 저레 동글 허난, 웃임이<sup>945)</sup> 아니 나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도 문을 잡안 누웠구나. 지하 짐전국 부인님도 문을 잡안 누웠구나.

이젠 어뎡허린. 동계남 은증절(東觀音殷在寺) 서계남 금법당(西觀音金法堂) 낭계 상상(上山) 메양 올라<sup>946)</sup> 한동절 부처 지컨<sup>947)</sup> 대서님이 인간땅에 느려 강<sup>948)</sup> 시권제삼문(勸濟三文)을 받아당, 현 당 현 절 수리 허민, 멩(命) 없는 자 멩을 주고, 복(福) 없는 자 복을 주고 생불 없는 자 생불을 처급(處給)허렌 인간 땅더레 도노립데다.

929) 입장갈림: 혼인.

930) 즈식이: 자식이.

931) 흐를날은: 하룻날은.

932) 강나룩: 발벼.

933) 밧도: 발도.

934) 초나룩: 찰벼.

935) 몰팍: 장기에서 ‘가’가 갈 수 있는 자리.

936) 갈라쥬동: 나눠주고.

937) 가막세: 까마귀.

938) 아방 본 셴: 아버지 본 새는.

939) 비주리초막살이: 아주 작은 초막살이.

940) 담고냥으로: 담고망으로.

941) 바려보난: 바라보니.

942) 흐나: 하나.

943) 서단마게: 마개. ‘서단-’은 ‘은단-’에 맞춘 조운(調韻)

944) 춤썰: 명주실.

945) 웃임이: 웃음이.

946) 메양 올라: 늘 올라서.

947) 지컨: 지킨.

948) 느려 강: 내려 가서.

인간 땅더레 도노리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님네 집더레  
“짓알로 도노리멍<sup>949)</sup> 소송 절이 뵈옵네다.”

짐진국이 부인님이 복지께를<sup>950)</sup> 내어놓아 시권제삼문을 내어 높이 들러 스크르스르  
룩 비와간다.

“훈 방울이<sup>951)</sup> 떨어지민 멩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집네다.”

가젠 허난

“대서님아, 대서님아. 원천강(袁天綱)이나<sup>952)</sup> 가집데가. 사주역(四柱周易)이나<sup>953)</sup> 가  
집데가.”

“원천강 가질 수가 잇우과? 사주역을 가질 수가 잇우과? 난 날<sup>954)</sup> 난 시<sup>955)</sup> 생년월  
일이나 곱아봅서.<sup>956)</sup>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과(五行八卦)나 짚어 보게마썸.”

단수육갑 오용팔과를 짚어 보난, 우리 법당에 왕 수륙(水陸) 들이민 아들이나 딸이  
나 남직 허덴 허난,

“게민 어떻 출령<sup>957)</sup> 갑네까?”

강납엔 강나룩 모납엔 모나룩, 가삭베(袈裟地)도<sup>958)</sup> 구만 장 송낙베도<sup>959)</sup> 구만 장  
염줄(念珠) 목닥<sup>960)</sup> 베 잔뜩 출령 오란, 밤인 원불((願佛) 낮인 수륙 원불당(願佛堂)  
전수륙, 만불당 만수륙 젓북제맛이 올립센 허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님이 잘 출런 절간 법당 들어가난, 니눈이  
반동개<sup>961)</sup> 드리쿵쿵 내쿠쿵 추감꾸나.

“저레 바라보라. 소서야.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님 수륙 드리레 올  
레 셋거든 법당 안터레 청허라.”

허연. 법당 안터레 청허연. 밤인 원불 낮인 수륙 원불당 원수륙 천불당 천수륙 젓북  
제맛이긋을 올리난, 석덜 열흘 백일 기도를 허난, 백근을 준준이 지율리난, 아이고,  
아흔아홉 근이로구나.

“천하 임전국 대감님아. 지하 짐전국 부인님아. 아들 즈순은 못 처급을 허고, 딸 즈  
순백인 못 처급허쿠다.”

허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이 허는 말이,

“배고픈 사름이 식은 밥 더운 밥 골릴 수가<sup>962)</sup> 잇입네까. 아들은 나민 어찌고 툇은

949) 짓알로 도노리멍: 아래로 내리면서.

950) 복지께를: 조금 오목한 꼭지 없는 바리뚜껍.

951) 훈 방울이: 한 방울이.

952) 원천강(袁天綱): 당(唐)의 점장이 이름.

953) 사주역(四柱周易): 사주(四柱) 보는 주역(周易).

954) 난 날: 태어난 날(日).

955) 난 시: 태어난 시(時).

956) 곱아봅서: 말해보세요.

957) 출령: 차려서.

958) 가삭베: 승려의 옷을 만드는 천감인 배.

959) 송낙베도: 고깔을 만드는 천감인 배.

960) 목닥: 목탁.

961) 니눈이 반동개: 네눈이 반동개. 눈이 네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

962) 골릴 수가: 따질 수가.

나민 어떻습네까. 톨도 좋고, 아들도 좋수다. 생불(生佛)만 줌센.”

허난,

“게건들랑 지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님 내려 강 꿈산에 강 꿈을 봅서. 해몽산(解夢山)에 강 해몽을 봅서. 합궁 날(合宮日) 합궁 시(合宮時) 무어<sup>963</sup> 봅서.”

절간 법당 소곡소곡 내려온다. 꿈산에 강 꿈을 보난, 청비둘기 한쌍이 두루막<sup>964</sup> 콤더레<sup>965</sup> 들어와 벤다. 치메콤더레 들어와 벤다. 부베간에 합궁날 합궁시에 무언, 천상 베필을 무으난,

아방 몸에 석 덜 열흘 어멍 몸에 석 덜 열흘 가마 춘삭(準朔) 찬 낳는 건 보난, 곱닥한 여중 애기씨가 솟아났구나. 앞니명엔<sup>966</sup> 해님 곱은<sup>967</sup> 애기씨 뒷니명엔 들(月)님 곱은 애기씨, 물아래 옥돌곱은 애기씨 제비새 젓늘게<sup>968</sup> 곱은 애기씨가 솟아나난, 아이고, 천하 임전국 대감님이 허는 말이,

“늦은덱이 정하님아, 저 산천이나 바레보라. 어느 만쫘이나 뉘엇이니?”

저 산철에 바레보난, 물은 들언, 낙하가 뉘연 입에 불긋불긋, 불근 물이 들언 다 털어지엄수덴 허난,

이 애기 이름이랑 쯔지명왕 애기씨, 이름 생명 녹하단풍쯔지명왕 애기씨로 이름 생명 지왓구나.

이름 생명, 쯔지명왕 애기씨로 이름 생명 지으난, 구시월이 난, 단풍이 물들언, 불긋불긋<sup>969</sup> 물드난, 애기씨, 녹하단풍 쯔지명왕 애기로 지완, 혼설 두설 열다섯 십오세가 뉘여가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은 천하 공서(天下公使) 살레<sup>970</sup> 읍서. 지하 짐전국 부인님이랑 지하 공서(地下公使) 살레 읍서. 영 허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님이 허는 말이,

늦인덱이 정하님아, 우리 천하공서 지하공서 살아 올 동안, 애기씨 궁기로<sup>971</sup> 밥을 주고 궁기로 물을 주멍 키암시렌 허난,

“결랑 기영 험서.”

아방 증근 통췌<sup>972</sup> 어멍이 감봉(監封) 두고, 어멍 증근 통췌 아방이 막음 두언, 수리감봉<sup>973</sup> 두언. 상거슴 통췌로 절로생강<sup>974</sup> 증갓구나.<sup>975</sup> 천하 공서 지하 공서 아바

963) 무어: 뗏어.

964) 두루막: 두루마기.

965) 콤더레: 품으로.

966) 앞니명엔: 앞 이마에는.

967) 곱은: 같은.

968) 젓늘게: 젓날개.

969) 불긋불긋: 불긋불긋.

970) 살레: 살러.

971) 궁기로: 구멍으로.

972) 증근 통췌: 잠근 통쇠는.

973) 수리감봉: 잠가서 봉한 표지를 하교의 뜻인 듯.

974) 절로 생강: 절로 승강.

975) 증갓구나: 잠갓구나.

지 살레가고, 어머니도 살레가고,

살레가난, 절간 법당 황금산(黃金山)에서 인간땅더레 굽어보난 우리 절간 법당에 완 수록 드령 난 애기씨, 녹하단풍 즈지명왕 애기씨로구나. 궁 안내 가두왔구나. 궁 안내 가둔 애기 시권제삼문 받앙 오민 절간 법당 정<sup>976)</sup> 뒤영 주켄 허난, 황금산 주접선성이 나가 갖당 오켄 허난, 주접선성 인간 땅더레 도노립데다.

저 올레로

“소승은 절이 웹네다.”

월앙소리가 낫구나. 아바님이 오시는다. 어머니가 오시는다.

“늦인덱이 정하님아. 저레 바라보라.”

“하늘이 속복헌<sup>977)</sup> 종이 대서가 오랏우다.”

“종이 대서가 왓이민 시권제삼문을 내여주라.”

늦인덱이 정하님 시권제삼문을 내여주난,

“아이고, 늦인덱이 정하님, 말(斗)로 섬으로 뉘로<sup>978)</sup> 주는 거 보단, 녹하단풍 즈지명왕 애기씨가 명이 부족하고 복이 부족허난, 그 손으로 시권제 문을 내어 주어사쿠덴.” 허난,

시권제삼문을 내여 드리젠 헤여도, 아방이 증근 통쇄 어멍이 감봉 두고, 어멍이 증근 통쇄 아방이 수리감봉 두어 지난, 시권제 내여주젠 헤도 문을 못 올안<sup>979)</sup> 못 내어 주쿠덴 헤염수덴.

허난, 게거들랑 나가 그 문을 올라 주크메<sup>980)</sup> 시권제삼문을 내여주크넨 들어보렌.

허난, 경 허켄 햄수덴 허난, 대서님이, 하늘옥황 도성문 올려 오던 천왕낙훤를<sup>981)</sup> 둘러받앙 혼 번을 둘러치민 천하가 요동, 또 혼 번을 둘러치민 지하가 요동. 일흔으뎝 상거슴 통쇄가 절로 쟁강 올라지엇구나.

절로 쟁강 올라지난, 녹하단풍 즈지명왕 애기씨 고팡에<sup>982)</sup> 들어간, 하늘이 볼 건가 흑(黑)너울을 둘러쓰고, 땅이 볼 건가 백(白)너울을 둘러썸, 아버지 먹단 항엔 간 보난 검은 줍이<sup>983)</sup> 일엇구나. 어머니 먹단 항엔 간 보난 흰 줍이 일엇구나. 녹하단풍 즈지명왕 애기씨 먹던 항엔 간 보난 곱닥허엇구나. 시권제삼문을 앓아내언 내여단, 혼방울이 떨어지민 명도 복도 떨어집네다. 높이 들령 알려레<sup>984)</sup> 시르륵 시르륵 비읍센 허난,

부처 지켄<sup>985)</sup> 대서, 황금산 주접선성이 혼짜<sup>986)</sup> 손은 하늘옥황 단수육갑 짚으레 갖

976) 정: 청.

977) 속독헌: 가득한.

978) 뉘로: 되로.

979) 올안: 열어서.

980) 주크메: 줄 테니.

981) 천왕낙훤를: 요령을 일컫는 말.

982) 고팡에: 고팡(庫房)에.

983) 줍이: 줍이.

984) 알려레: 아래로.

985) 부처 지켄: 부처 지킨.

986) 혼짜: 한쪽.

우다. 혼짝 권 입에 물고, 혼짝 권 손에 들렁 알더레 내부난, 야, 알더레 자르륵 허게  
털어지엇구나. 상거메를<sup>987)</sup> 삼세번 썰언.

“이 중 저 중 귀썸헌 중이로구나. 양반이 집이 덩기지<sup>988)</sup> 못 헐 중이로구나.”

이젠 나신디 옥햄주만은 석덜 열흘이 넘어가민 날 생각이 날거엔 허난, 송낙귀  
도<sup>989)</sup> 혼 귀야지<sup>990)</sup> 모지려온다.<sup>991)</sup> 장삼(長衫)귀도 혼 귀야지 모지려온다. 철쭉대도  
혼 귀야지 모지렷구나.

중근 통췌나 연거, 증가뿡<sup>992)</sup> 갑센 허난, 하늘옥황 도성 문 올려 오던 천왕낙훼로  
흔 번을 둘러치민 천하가 요동, 두 번을 둘러치민 지하가 요동, 삼세 번 둘러치난 일  
흔요덥 상거슴 통췌가<sup>993)</sup> 절로 쟁강 증가지엇구나.

흐루 이틀 지언, 혼 덜 두 덜이 지나가난, 밥엔 밥내<sup>994)</sup> 난다. 물엔 풀내 난다. 옷  
엔 펄내<sup>995)</sup> 난다. 국엔 장칼내가<sup>996)</sup> 난다. 시금시금 연더레도<sup>997)</sup> 먹고저라. 전가레도  
먹고저라. 오미저도<sup>998)</sup> 먹고저라. 영허난, 늦인덱이 정하님 송동바구리 들러 찬, 저산  
천에 올라갓구나. 아이고, 높은 낭에<sup>999)</sup> 열음이라<sup>1000)</sup> 딸 수가 엇구나.

“멩천(明天)골은 하늘님아, 저 높은 낭에 열매 모진 광풍이나 불어줍서. 우리 상전  
님, 애기씨 상전님. 먹영 살아나게 황금산 신령으로.”

모진 광풍을 불언 전가레도 탕구나. 오미저도 탕구나. 시금시금 연더레도 탕구나.  
송동바구리에 잔뜩 담안 오난, 혼 방울 먹으난 낭에 낭네<sup>1001)</sup> 난다. 풀에 풀내<sup>1002)</sup> 난  
다. 먹을 수가 엇엇구나. 애기썸 배도 불어오라가고, 손발도 붓어가고 영 허난, 죽을  
스경(死境)이 다돌앗구나. 천하 임전국 대감님아, 천하 공서 그만 살앙 혼저<sup>1003)</sup> 읍서.  
지하 짐전국 부인님아, 지하 공서 그만 살앙 혼저 읍서. 애기시 죽을스경이 다 돌앗  
수다. 천하 공서 지하 공서 다 살앙 오난,

“아방신디 선신(現身) 가젠 허민 어떻 가느니?”

늦인덱이 정하님이 허는 말이, 아버지신딘 소곡소곡 소곤정으로<sup>1004)</sup> 풀 죽은 치  
메<sup>1005)</sup> 입곡 갑센 해연. 소곡소곡 소곤정으로 가난,

987) 상거메를: 상가마를.

988) 덩기지: 다니지.

989) 송낙귀도: 고깔 귀도.

990) 귀야지: 모서리.

991) 모지려온다: 끊어온다.

992) 증가뿡: 잠가 두고.

993) 일흔요덥 상거슴통췌가: 자물쇠청이 마흔 여덟이나 걸리는 자물쇠.

994) 밥내: 밥 냄새.

995) 펄내: 펄 냄새.

996) 장칼내가: 장 냄새가.

997) 시금시금 연더레도: 시금시금 연다래도.

998) 오미저: 오미자.

999) 낭에: 나무에.

1000) 열음이라: 열매라.

1001) 낭내: 나무 냄새.

1002) 풀내: 풀 냄새.

1003) 혼저: 어서 빨리.

1004) 소곤정으로: 늘상 부친에 대해 지닌 정으로.

1005) 치메: 치마.

“아이고, 서론 애기야. 어평허난 눈은 곰방눈이<sup>1006</sup> 뉘엇이니?”

“아버지, 어머니 하도 아니암젠 담고냥<sup>1007</sup> 문고냥으로 눈을 쏘아부난 곰방눈이 뉘엇우다.”

“어평헤연 입은 작박입이<sup>1008</sup> 뉘엇이니?”

“하도 울어부난 작박입이 뉘엇우다.”

“벤 어평허난 두릉둥 베가<sup>1009</sup> 뉘엇이니?”

“아이고, 늦인덱이 정하님, 흡삼시(삼三時)<sup>1010</sup> 마련허렌 허난, 뉘삼시 마련허여부난 두릉 둠 베가 뉘엇우다.”

“어평허난 손은 덩드렁 손이 뉘엇이니?”

“어평허난 발은 곰베발이<sup>1011</sup> 뉘엇이니?”

아이고, 이젠, 아바님신디 선신 간,  
 “어머님신딘 어평 선신 가느니?”

“어머님은 승허물이<sup>1012</sup> 엇이난 풀산 치메 입곡 자직자직<sup>1013</sup> 자진정으로 선신문안(現身問安) 갑서.”

선신문안 가난,  
 “아이고, 이거 기냥<sup>1014</sup> 일이 아니로구나.”

젓가심을<sup>1015</sup> 견언 보난, 젓줄이 샷구나.  
 “궁 안내도 보름이 드느냐?”

은대양에 세숫물 떠 놓안 은수제 걸천 굴메<sup>1016</sup> 바라보난, 종이 즈식이 서이<sup>1017</sup> 들 어갓구나. 아이고, 이거 어평허민 조코. 이제랑 앞बाट디랑<sup>1018</sup> 작수 걸라. 뒷बाट디랑 작 두 걸라. 조강눔을<sup>1019</sup> 불르라. 죽일팔노 헤가난,  
 “아이고, 대감님아, 대감님아. 앞서서 즈식 죽는 꼴 어평 보네까?”

“게민 어평허민 좋느니?”

이간강중 나고가렌 험서. 늦인덱이 정하님 죽이젠 허민, 애기씨 나 쥬우다. 애기씨 죽이젠 허민 나 쥬우다.  
 “혼 목숨 다섯 목숨 죽일 필요가 잇우과. 나고가렌 헤영 내보내여 봅서.”

게민 걸랑 기영 허렌 헤영.

---

1006) 곰방눈이: ‘곰박’에 난 구멍과 같이 일그러진 모양.  
 1007) 담고냥: 담구멍.  
 1008) 작박입이: 주걱처럼 생긴 입모양이 큰 것을 표현함.  
 1009) 두릉둥 베가: 두루뭉술한 배가.  
 1010) 흡삼시(삼三時): 세끼 한 흡 밥을 먹음.  
 1011) 곰베발이: 발이 곰방매처럼 생긴 뭉툭한 발을 일컫는 말.  
 1012) 승허물이: 흥허물이.  
 1013) 자직자직: 허리를 뒤로 찌고 걷어가는 모양.  
 1014) 기냥: 그냥.  
 1015) 젓가심을: 젓가슴을.  
 1016) 굴메: 그림자.  
 1017) 서이: 세 명이.  
 1018) 앞बाट디랑: 앞발에.  
 1019) 조강눔을: 형을 집행하는 자.

어명은, 나고가젠 허난, 열두폭 대홍대단(大紅大緞) 홀단(單) 치메 내여 준다. 아바 지, 계도<sup>1020</sup>) 애기상에 모음이라.<sup>1021</sup> 금봉첼<sup>1022</sup>) 내여주멍 질이<sup>1023</sup>) 아니 날 때민 이 거 둘러치민 길이 날거난 가곡,

이거 모두 강, 서천강(西天江) 연드리<sup>1024</sup>) 내여주엇구나.

서천강 연드리 내여주멍, 아방 눈에 시찌나고<sup>1025</sup>) 어멍 눈엔 골리난 검은암쇄에<sup>1026</sup>) 혼 설 적에 입단 입성(服), 두 설 적에 입단 입성, 열다섯 십오 세 안내 입단 입성 즈근즈근<sup>1027</sup>) 좃엉<sup>1028</sup>) 늦인덱이 정하님이영 이거 저 베깃디<sup>1029</sup>) 나간 허난, 아야산이 근당(近當) 허엇구나.

“늦인덱이 정하님아, 어떻허난 아레서 우터레<sup>1030</sup>) 불이 헛헛 붙엄시니?”

“부모 가심에 불 지더부난, 아야산, 부모 놉똥<sup>1031</sup>) 즈식 먼저 가민 가심에 불 붙으는 법입네다.”

가단보난 물이 출렁출렁 알로 우터레 물이 지침시난,<sup>1032</sup>)

“어떻허난, 저건 물이 우터레 알려레 털어지어 사는디 저건 우터레 올람시니?”

허난,

“저건 거은물<sup>1033</sup>) 거은드리가<sup>1034</sup>) 뉘어집네다. 부모 놉똥 애기 문쳐<sup>1035</sup>) 가민 거은물 거은드리가 뉘엇우다.”

가단보난, 동이청산 근당허다. 청수와당(靑水海) 넘어들엇구나. 서이백산 백수와당(白水海) 넘어들엇구나. 남이백산 남수와당 넘어들엇구나. 흑수와당 넘어들엇구나. 넘어들언 가단보난, 이 강에서 저 강더레 넘어가젠 허민,

“검은암쇄도 느 갈 길 가라.”

내난, 곡석 밧디<sup>1036</sup>) 들엇구나.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검은암쇄 곡석 밧디 들엇우다.”

“이년아, 저년아 본 디 본말 브리라.<sup>1037</sup>) 들은 디 들은 말 브리라.”

허여두고, 금봉체로 뜨리난<sup>1038</sup>) 질이 낮구나. 가단보난 낙수와당(洛水海) 수삼천리

---

1020) 계도: 그래도.

1021) 모음이라: 마음이라.

1022) 금봉첼: 금부채를.

1023) 질이: 길이.

1024) 연드리: 연다리.

1025) 시찌나고: 거슬리고.

1026) 검은암쇄에: 검은 암소에.

1027) 즈근즈근: 차근차근. 차곡차곡.

1028) 좃엉: 주어서.

1029) 베깃디: 밖에.

1030) 우터레: 위로.

1031) 놉똥: 놉두고.

1032) 지침시난: 끼얹고 있으니.

1033) 거은물: 거슬로 흐르는 물.

1034) 거은드리: 거슬러 오르는 다리. 자식이 먼저 죽어간다든지, 웃어른의 말을 거스른다든지, 불효한다든지 하는 따위.

1035) 문쳐: 먼저.

1036) 곡석밧디: 곡식밭에.

1037) 브리라: 버리라.

(數三千里)길이 뒤편구나. 낙수와당 수삼천리 길을 근당허연 올라가단 보난, 아버지  
드리 준 거, 드리 폐완 풀아근, 그 드리 뽕으멍<sup>1039)</sup> 올라가젠 허난, 물이 근당허연 거  
북이가 나오란,

거북이 등에 탄 가단 보난, 건지산에<sup>1040)</sup> 간 건지허고<sup>1041)</sup> 분상시<sup>1042)</sup> 허여간다. 세  
갑머리<sup>1043)</sup> 육갑에 다완, 건지 육겹, 분상시, 거울상시 허연.

올라 가젠 허난, 열두 문이 근당허난, 열두 문 근당허난, 치메 벗언 열두 폭 인정  
거난,<sup>1044)</sup> 허리만 남으난, 늦은덱이 정하님 치메, 여섯폭에 갈랑 입언.<sup>1045)</sup>

가단보난, 황금산이 잇엇구나. 황금산에 옆데허난<sup>1046)</sup> 황금산 주접선성 좃아오고  
렌<sup>1047)</sup> 허난,

날 좃앙 오랏건<sup>1048)</sup> 초나록 세 동이 내여주멍, 요것 착쓸 엇이<sup>1049)</sup> 깡<sup>1050)</sup> 올리렌  
허난, 콧으로 까저<sup>1051)</sup> 콧 아프고, 입으로 까저 이빨 아프고 영 허난,

무정눈에 쯤이 들엇구나. 무정눈에<sup>1052)</sup> 쯤이 드난, 천왕새(天皇鳥) 인왕새(人皇鳥)  
지왕새(地皇鳥) 오조조조 허연. 일어난 보난, 새가 고득앗구나.<sup>1053)</sup>

“이새 저 새. 주어 저 새.”

놀아 가난, 체는 체대로 착쓸 엇이, 은동이 늦동이 체동이 췌동이 깡 올리난, 경 헤  
도 중은 부베간을 아니 허여준다. 불도땅으로 내려가렌 헤연. 불도땅(佛道地) 시왕(十  
王) 곱은 연질이<sup>1054)</sup> 뒤편우다.

시왕 곱은 연질 불도땅으로 내려오란, 애산 친구월(九月) 초여드레(初八日) 당허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알로<sup>1055)</sup> 낫저. 아버지도 아니 본 구뭇.<sup>1056)</sup> 노단 젓쟁이<sup>1057)</sup> 허우여 튼언<sup>1058)</sup> 본명  
두가<sup>1059)</sup> 좃아난다. 열두, 열여드레 당허난,

1038) 딱리난: 때리니.

1039) 뽕으멍: 밟으면서.

1040) 건지산에: 산 이름.

1041) 건지허고: 땀머리를 하고. 건지머리를 하고. 머리를 올려 결혼했음을 나타냄.

1042) 분상시: 화장.

1043) 세갑머리: 세 가닥으로 갈라 땀은 머리.

1044) 열두폭 인정거난: 열두문에 치마를 찢어서 인정(財物) 거니.

1045) 갈랑 입언: 나눠 입어서.

1046) 옆데허난: 옆드리니.

1047) 좃아오고렌: 찾아왔다고.

1048) 좃앙오랏건: 찾아왔으면.

1049) 착쓸 엇이: 반쪽 쌀 없이.

1050) 깡: 까서.

1051) 콧으로 까저: 손톱으로 까니.

1052) 무정눈에: 몹시 괴로운 일을 당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처지인데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  
리적으로 즐리면서 스를 감기는 ‘철없고 무정한 눈’이라는 뜻.

1053) 고득앗구나: 가득했구나.

1054) 곱은 연질이: 구부러진 길.

1055) 알로: 아래로.

1056) 구뭇: 여자 성기.

1057) 노단 젓쟁이: 오른쪽 겨드랑이.

1058) 허우여 튼언: 모질게 뜯어.

1059) 본명두가: 본명두. 장남의 이름.

“아야 배여. 아야 배여.”

알로 낫저. 아버지도 아니 본 그릇이여. 노단 젓쟁이 성<sup>1060</sup>) 나난, 웬 젓쟁이<sup>1061</sup>) 허우여 튼언. 신명두가<sup>1062</sup>) 솟아나고, 애산 친구월 스무여드레 당허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살아살축 삼명두,<sup>1063</sup>) 오목가슴 허우여 튼언 솟아나난, 아들 삼형제 솟아나난,

이 애기덜 공부허젠 허난, 돈도 엇고 거무선성신디 굴묵지기<sup>1064</sup>) 베리지기,<sup>1065</sup>) 청 소허겐.

삼형제가 들어간, 공부 허는디 이 애기덜은 자기장 엇언 글도 못 쓰고, 책 엇영 익 지도<sup>1066</sup>) 못허난, 굴묵 지덩, 재 끈끈, 손으로 끈끈 녹드령<sup>1067</sup>), 그디서<sup>1068</sup>) 글씨 공부 도 허고 배운 거 들엇당 쓰고 익고 허단 보난,

서울 상시관(上試官)이 과걸 본덴 허난, 삼천서비덜 과거 보레 가젠 허난, 이 애기 덜 돌앙가민<sup>1069</sup>) 느네<sup>1070</sup>) 과거 낙방헌덴 허난,

이 애기덜 떨어뵈 가젠 허난, 경 헤도<sup>1071</sup>) 훈디<sup>1072</sup>) 가단, 배좌수 고을 당허난,

“너네, 이 배낭<sup>1073</sup>) 우이 올라간 배 삼천 방울 땅 와사<sup>1074</sup>) 돌앙가키여.”

허난, 걸랑 기영 험셴 헤연. 굽은 디 굽억 굽은 디 굽억 허연. 올라가단 보난, 삼천 선비들은 문 돌아나 불고,<sup>1075</sup>) 배, 종이(中衣)바지<sup>1076</sup>) 가달더레<sup>1077</sup>) 배 탕 노난,

올라도 노려가도 못허연. 이 애기덜 배낭 우이서 밤세낭 비세굴이 울어간, 배좌수 꿈에 선몽(現夢) 허길. 청룡이 배낭 우이 감아지고 흑룡이 감아지고 일어난 보난,

애기덜 삼도령이 잇엇구나.

“너네 뵈허레 그디<sup>1078</sup>) 올라갓느냐?”

허난, 삼천선비덜 배 삼천방울 땅 오민 과거 보는디 돌앙가켄 허연에 배 따레 올라 왔우덴 허난,

“설운 애기덜아, 바지에, 중이에, 옷고름 클러불렌.”

헤연. 바지에 다님<sup>1079</sup>) 클르난<sup>1080</sup>) 배 알더레 털어져 부난 아기덜 내려오랏구나.

---

1060) 성: 형.

1061) 웬 젓쟁이: 왼쪽 겨드랑이.

1062) 신명두가: 신명두. 차남의 이름.

1063) 삼명두: 삼명두. 막내아들의 이름.

1064) 굴묵지기: 온돌 아궁이 불 때는 사람.

1065) 베리지기: 베투지기.

1066) 익지도: 읽지도.

1067) 녹드령: 놀러서.

1068) 그디서: 거기서.

1069) 돌앙가민: 데려가면.

1070) 느네: 너희들.

1071) 경 헤도: 그래도.

1072) 훈디: 같이.

1073) 배낭: 배나무.

1074) 땅 와사: 따 와야.

1075) 돌아나불고: 달아나버리고.

1076) 종이바지: 고의. 적삼.

1077) 가달더레: 바지에.

1078) 그디: 거기에.

설운 애기덜 돈 석냥 주멍, 이거 앓양 과거 보레 가렌 허난, 궁이 아덜 삼형제 돈단 보난<sup>1081</sup>) 간 북문(北門)지기 다 잡앗구나. 서문(西門)지기 다 잡앗구나. 베루전<sup>1082</sup>)에 베루 다 거두왔구나. 먹전에 먹 거두왔구나. 종이전에 종이 다 거두완 엇엇구나.

수양청버드남섭 아래 강 누웁 데싸져다 갈라져다 허당, 풋죽 할망<sup>1083</sup>) 잇인디 정심 이나<sup>1084</sup>) 사 먹젠 들어시난

“느넨 어떻게연 과거 보레 아니 간, 어떻게연 이디 잇이니?”

허난, 삼천선비덜 배 삼천방울 따 오민 돌양 가켄 헤연. 지네만 다 돌양 가불고 이 제사 미참이 뉘엿우덴 허난,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게걸랑 글이나 쓰렌 헤연. 할망 베루 내여준다. 글 쓰난 천왕베포 지왕베포 인왕베포 국베포 영허연. 천지혼합(天地混 습) 천지개벽(天地開闢) 다 썬. 할망, 풋죽할망신디 올리난, 지동토인 옆으로 강 올리 난, 삼천비덜은 글 낙방이여.

이 글 쓴 사름 누구넨? 허난, 엇엇구나. 수양청버드남섭 아래 강 데싸져다 갈라져 다. 놀암시난, 돌아단 ,

“이글 내가 썼느냐?”

“예. 제가 썼습네다.”

입으로 헛헛 쓴다. 발로 헛헛 쓴다. 손으로 헛헛 쓰난, 맞구넨 헤연.

과걸 주난,

“양반이 집 즈식은 과걸 아니 주고, 종이 즈식은 과걸 줍네께.”

헤난, 어떻허민 종이 즈식을 알아지넨 허난,

“도임상(到任床)을 출려<sup>1085</sup>) 봅서. 알아질 도리가 잇우덴.”

허난, 도임상을 출리난, 술과 귀긴<sup>1086</sup>) 아니 먹으난, 저거 봅서. 종이 즈식 적실허 지 아니허우켄 영 헤연.

제반 삼술<sup>1087</sup>) 견영. 옛날은 새각시덜 밥 혼 숟가락씩, 새각시 주는 애기덜 무 똥<sup>1088</sup>) 베끼디<sup>1089</sup>) 사시민<sup>1090</sup>) 주는 법 마련헤영. 제반 삼술은 안터레 상 알러레 노 난, 글 낙방 활 낙방 시켰구나.

글 낙방 활 낙방 시기난, 이젠 연주문(延秋門) 맞추는 자. 글도 장원, 활도 장원 주 켜 허난, 삼천선빈 연주문을 못 마쳤구나.

젯부기네 삼형제, 종이 아들 삼형제 큰성은 느단에,<sup>1091</sup>) 두번체 아신<sup>1092</sup>) 원편에,

1079) 다남: 대남.

1080) 클르난: 풀어버리니.

1081) 돈단보난: 달리다보니.

1082) 베루전에: 벼루전에.

1083) 풋죽할망: 팔죽할망.

1084) 정심이냐: 점심이냐.

1085) 출려: 차려.

1086) 귀긴: 고기.

1087) 삼술: 제상에 차린 음식물을 각각 조금씩 처음 걸어 모음.

1088) 무똥: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

1089) 베끼디: 밖에.

1090) 사시민: 서있으면.

1091) 느단에: 오른쪽에.

세 번째<sup>1093</sup>) 가운데 복판을 맞이한 절로 생강 맞이한, 연주문은 알러레 성강허게 털 어지란, 과걸 주엇구나.

과걸 주난, 청일산(靑日傘)도 내여준다. 백리산(白日山)도 내여준다.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와라치락 와라치락 내려오난,

삼천선비덜 늦인덱이 정하님신도 돌아오란.

“너네 상전 글 낙방 활 낙방 시겨똥 오민, 우리 돈 삼천냥 모두왕<sup>1094</sup>) 주키여.”

허난, 늦인덱이 정하님 어명은 심어단 삼시왕(十王)에 가두와불고 머리 퍼지곡 헤연 과거 뵙 암시난,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큰상전님은 죽어근 출병허엿우다.<sup>1095</sup>) 과걸 허민 뵙 헐거짜.”

옛날은 부모가 돌아가시민 쥬인의 몸이 뉘영<sup>1096</sup>) 과거도 돌아가라. 청일산도 돌아가라. 백리산도 돌아가라. 삼만관속 육방하인 돌아가라. 와라치락 과거 보내여 두고, 두루막 벗언 ㄱ루<sup>1097</sup>) 걸치고, 행경(橫經) 벗언 우편 두건<sup>1098</sup>) 쓴거. 마련 허연 어머님 초메장 헌디 간 보난, 물명지 단속곳 하나 묻엇구나. 그거 판 이젠 어딜 가코.

웨하르방 좃앙<sup>1099</sup>) 가주 허연. 웨하르방 좃안 가난, 베석(拜席)자리 내여주엇구나. 베석자리 내여주난, 우리 어머님 어딜 가민 좃읍니켄 허난, 황금산 주접선성 아방 좃앙 가렌 허난, 아방 좃아근 황금산 주접선성신디 올라갈 때 베석자리 끈 건<sup>1100</sup>) 걸영 가렌 헤연.

걸영 와난 법으로 우리 심방덜 스가칩<sup>1101</sup>) 굿허레 가민 신자린 걸영 오는 법 마련 헤엿우다.

아방 좃앙 황금산 올라가난, 누게 좃앙 올라오랏이넨?

“우리 아버지 좃안 오랏우다.”

“느네 아방 누게고?”

우리 아버지 황금산 주접선성이엔 허난, 우린 양반이 즈식 든 적 엇젠 허난, 어떻게 민 아버지 허쿠겐 허난, 머리 대공단 고칼<sup>1102</sup>) 들영 머리 삭발 허영 중이 뉘민 아방 아들 허켄 허난,

“어명만 좃은덴 허민 그건덜 어려웁네까.”

대공단 고칼 들영 머리 삭발 허엿구나. 머리 삭발 허난,

“나 즈식이 분명허다.”

---

1092) 두 번째 아신: 두 번째 동생은.

1093) 세 번째: 세 번째는.

1094) 모두왕: 모아서.

1095) 출병허엿우다: 가매장하였습니다.

1096) 뉘영: 되어서.

1097) ㄱ루: 가로.

1098) 두건: 주로 상이 났을 때 베로 만들어 상주나 친척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

1099) 좃앙: 찾아서.

1100) 끈 건: 끈 것은.

1101) 스가칩: 사가칩.

1102) 대홍단 고칼: 머리 삭발하는 고칼.

어머님 좃으컬랑<sup>1103</sup> 팔즈(八字) 굿어산덴<sup>1104</sup> 허난, 심방질 허렌 허난,

“어멍만 좃은덴 허민 심방질인덜 어려웁네까.”

“설운 애기덜 어떻 행<sup>1105</sup> 이꼬지<sup>1106</sup> 완디?”

“하늘 보멍<sup>1107</sup> 오랏우다.”

하늘천 제(天字) 내여준다.

“땅 보멍 오랏우다.”

“따지 제(地字) 내여준다.”

“물으멍 오랏우다.”

“물을문 제(問字) 내여준다.”

저 산천에 올랑 물사옥이 새사옥이 비어단, 혼 통은 즐란 절간 법당 북통헌다. 혼 통은 즐라당<sup>1108</sup> 올랑국<sup>1109</sup> 설련헌다.<sup>1110</sup> 혼통은 즐라당 장귀통<sup>1111</sup> 설련헌다. 하늘 옥황 전농록이 아들 불런 백몰레 왓디<sup>1112</sup> 근당 허영. 아끈 몰레<sup>1113</sup> 한 몰레<sup>1114</sup> 상 단궐 중단궐 하단궐에 간 쉼 동녕<sup>1115</sup> 허영. 아버지 나무 신칼 내여준다. 나무 상 잔<sup>1116</sup> 내여준다. 나무 천문<sup>1117</sup> 내여주난, 그거 본메로<sup>1118</sup> 아끈 불미<sup>1119</sup> 한 불 미,<sup>1120</sup> 아끈 지께 한 지께, 아끈 도간<sup>1121</sup> 한 도간 신칼 지어간다.

천문 상잔 지엇구나.

“설운 애기덜 과거보레 가난, 큰아덜은 뭐가 좋더냐?”

“도임상(到任床)이 좁데다.”

“초감제상<sup>1122</sup> 받으라.”

“셋아덜은 뭐가 좋더냐?”

“삼만관속(三萬官屬) 좋읍데다.”

“셋아덜랑 초신맛이<sup>1123</sup> 허라.”

---

1103) 좃으컬랑: 찾고싶으면.

1104) 팔즈(八字) 굿어산덴: 심방이 되어야 한다고.

1105) 어떻 행: 어떻게 해서.

1106) 이꼬지: 여기까지.

1107) 보멍: 보면서.

1108) 즐라당: 잘라다가.

1109) 올랑국: 무악기(巫樂器). 북과 징 등을 일컫는 말.

1110) 설련헌다: 마련한다.

1111) 장귀통: 장구통.

1112) 벳몰레 왓디: 하얀 모래밭에.

1113) 아끈 몰레: 작은 모래.

1114) 한 몰레: 큰 모래.

1115) 쉼 동녕: 쇠 동냥.

1116) 나무 상잔: 나무로 만든 잔. 술잔처럼 생긴 무점구(巫占具).

1117) 나무 천문: 무구의 하나. 엽전 모양의 놋쇠판에 천지문 또는 천지일월 등이라 새겨져 있음.

1118) 본메: 본틀. 형(型)

1119) 아끈 불미: 작은 풀무(治).

1120) 한 불미: 큰 풀무(治).

1121) 아끈 도간 한 도간: 작은 매듭 큰 매듭.

1122) 초감제상: 모든 무의(巫依)의 첫머리에 하는 제차명(第次名)으로 신을 청해들이는 의식이다.

1123) 초신맛이: 초감제 다음에 떨어진 신을 청(請)해 들이는 제차(第次).

“죽은아들은 뭐가 좋더냐?”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와라치라 어수에 비수에 좋습니다.”

허난,

“널랑 대신맞이<sup>1124</sup>라.”

영 허영 어머니님 짚은 궁에 갓건<sup>1125</sup> 앞은<sup>1126</sup> 궁에 내놀립서. 앞은 궁에 갓건 짚은 궁에 내놀립서. 올랑국 범천왕 소리<sup>1127</sup> 옥황더레 도올리난, 삼시왕 갓힌 어멍 내여보 내영 저 올레 엄뜻엄뜻 어머니 얼굴 보이난 어머니 상봉 허엿구나.

아이고, 우리 어멍 어주에 서강베포 땅 들어 강 탕저남은<sup>1128</sup> 비어단 마흔요덥(四十八) 상간주 집을 마련허고, 유저남은<sup>1129</sup> 비어당 서른요덥(三十八) 이간주 집을 마련허고, 신평낭은<sup>1130</sup> 비어단 스물여덥(二十八) 하간주 집을 무엇구나.<sup>1131</sup>

보름 불민 보름 뚜벽, 뜻불민 뜻뚜벽, 동산 새별, 새별 뜨민 보름 붙어가는 대로 뜻 붙어 가는 대로, 어머니님 연양당주 육고비 동심절 본메 놓앙 지케영 잇엇당<sup>1132</sup> 누계 왕 풀렌 헤도<sup>1133</sup> 풀지 말고. 도렌 헤도<sup>1134</sup> 주지 말고. 수양 양제(養子) 삼양, 이 조 상 물립센 헤영.

양반이 원수 갓은 허젠 허영. 어주에<sup>1135</sup> 삼녹거리(三車里) 가단 보난, 너사무 너도 령 잇구나.

“느넌 누계니?”

허난, 우린 너사무 너도령이우덴 육형제 무언,<sup>1136</sup> 어머니신디 인계 헤영, 신평낭(小巫講) 마련헤여 두고 가단 보난, 아방 좃아근 가단 보난, 유정승 또님 애기 삼도전 거리에서 놀암시난, 파란 주멩기에<sup>1137</sup> 육간제비<sup>1138</sup> 콤에 체완<sup>1139</sup> 내여주엇구나. 육간제비 체우난, 유정승 뜨님애기 혼 일곱에 눈 어둑언<sup>1140</sup> 열일곱에 눈 튼다.<sup>1141</sup> 열일곱에 눈 튼, 스물일곱에 눈 어둑언 서른일곱에 눈 튼. 마흔일곱 눈 어둑언 쉬운 일곱 눈 튼. 예순일곱 눈 어둑언 일흔일곱 눈 튼, 어주쟁이 더루쟁이 미추쟁이 광질다리 뉘연.

1124) 대신맞이: 대신왕연맞이. 시왕(十王)에게 축원하는 곳 이름.

1125) 갓건: 갓으면.

1126) 앞은: 앞은.

1127) 올랑국 범천왕 소리: 무악기 소리. 북과 징 등을 일컫는 말.

1128) 탕저남은: 탕자나무는.

1129) 유저남은: 유자나무는.

1130) 신평낭은: 평나무는.

1131) 무엇구나: 지엇구나.

1132) 지케영 잇엇당: 지켜 있다가.

1133) 풀렌 헤도: 팔라고 해도.

1134) 도렌 헤도: 달라고 해도.

1135) 어주에: 어귀에.

1136) 무언: 맺어서.

1137) 주멩기에: 주머니에.

1138) 육간제비: 엽전 모양으로 6개 있음.

1139) 콤에 체완: 품에 채워서.

1140) 어둑언: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

1141) 눈 튼다: 눈 뜬다. 눈이 보이게 되었다는 뜻.

아랫녘이 조복장제 단똥애기 죽언. 열두메에 묶언 ‘아이고 데고’ 허여가난, 들어간. 어떻게언 울엄수겐 허난, 단똥애기 열두메에 묶언, 죽언에 묶엇젠 허난,

“요래 문전더레 쓸 놓고 물 놓고 상불 피와놔 봅서.”

멕은 짚으난 대명은 잇고 소명은 갖구나. 곁명은 가고 속명은 잇구나. 공신가신(恭神降神) 제저남산 본은<sup>1142)</sup> 임부역 서준낭 서준공서 영허언 네 귀에 올련, 쓸 싨 나 가근, 백보 베끼디 나강<sup>1143)</sup>

“소양계곰 한계곰<sup>1144)</sup> 물영 살아나건 날 좃앙 왕 굿 험서.”

허난,

“걸랑 기영 험서.”

백보 베끼디 나가난 아랫녘에 조복장제 단똥애기 소양계곰 산계곰 물영 살아나난, 어주에 삼녹거리 좃앙 가난 굿 헤여 줍센 허난, 신소미도 엇고, 올랑국 범천왕 대제 김 소제김도<sup>1145)</sup> 엇어 지엇구나.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 좃앙 가난, 저 올레에 었데 허난, 백 근을 채우난 신소미도 내여줄 수 없다. 올랑국 범천왕 대소제김 내여 줄 수 없다. 무당서(巫堂書) 삼천 권 내여주멍 이거 앓앙 강 통달허여 오렌 허난, 무당서 삼천 권 통달 헤언. 저 올레로 었데허난, 열두 가막세 은저울로, 꽃가막세 은저울로 저울이난 백 근을 찾구나.

약밥 약술 내여주라. 올랑국도 내여주라. 범천왕도 내여주라. 신소미청 내여주렌 헤 연. 아랫녘에 조복장제 단똥애기네 집이 간, 천도천왕 지도지왕 인도인왕 삼간제(三綱) 오륜(五倫)제법으로 천왕기 지놋추고<sup>1146)</sup> 지왕기 지놋추고 천지 염렛대 질이예기 양산기<sup>1147)</sup> 나부줄전기<sup>1148)</sup> 좌우듯기로 만서 소해당클 출사메연 굿헤연 오란.

그 집이 그 애기 살아낭 처음부터 잘 살아나켄 헤엿이민 명의 명점이 뉘엿일 건디, 쓸 싨근 살아나건 험서. 아는 것도 반 모르는 것도 반 영 허난,

큰 굿 헤연 오란 잇입네다. 초공 임전국 상시당(上試堂)<sup>1149)</sup> 마누라님 여 선성님네 간장(肝腸) 섞던 선성님네, 솔 섞던<sup>1150)</sup> 선성님네 일부 혼잔 독주점 계란 안주로 주잔 덜 권고드립니다예.

---

1142) 본은: 근본은.

1143) 베끼디 나강: 밖에 나가서.

1144) 소양계곰 한계곰: 작은거품 큰거품.

1145) 대제김 소제김: 복을 일컫는 말.

1146) 지놋추고: 낮추고.

1147) 양산기: 큰곳을 할 때 세우는 기.

1148) 나부줄전기: 큰곳을 할 때 매다는 나비 모양의 하얀 종이 조각.

1149) 초공 임전국 상시당(上試堂): 초공신을 일컫는 말.

1150) 솔 섞던: 살 섞던.

## 이공본풀이

네. 이공본풀이우다.

옛날 옛적 짐진국 대감님광 원진국 대감님이 삽데다. 원진국 대감님도 입장 갈림을<sup>1151)</sup> 허고 짐진국 대감님도 입장 갈림 허연 살아가는다.

이십 스물이 넘고 삼십 서른이 뒤편이 되여도 얘기가 엇어지난, 짐진국 대감님은 천하 아래 가난허고 원진국 대감님은 천하 거부제(巨富者)로 잘 살아지난,

흐를날은<sup>1152)</sup> 동계남 은증절(東觀音殿在寺) 서계남 금법당(西觀音金法堂) 낭계 상상(上上) 메양<sup>1153)</sup> 올라, 한동절 부처 지컨<sup>1154)</sup> 대서님신디 원수륙(願水陸)을 가난,

짐진국은 가난허난, 갓영<sup>1155)</sup> 갈 거 엇이난 모음 정성, 몸 정성 찬물 한 그릇 정성을 험데다.

원진국은 천하 아래 거부제로 사난, 강납엔 강나룩,<sup>1156)</sup> 모납엔 모나룩, 초납엔 초나룩,<sup>1157)</sup> 가삭베도<sup>1158)</sup> 구만장 송낙베도<sup>1159)</sup> 구만장 염질(念珠) 목닥<sup>1160)</sup> 베 잘 출런.

낮인 원불 밤인 수륙 원불당(願佛堂)엔 원수륙 천불당엔 천수륙 만불당엔 만수륙 젓북제맛이 굿을 허난, 백 근을 채우난 원진국은 잘 출령 가도 제우리난<sup>1161)</sup> 아흔아홉 근입네다. 짐진국은 못 살양 모음 정성 몸 정성 찬물 한 그릇 정성을 허여도 백 근을 찻데다.

이젠, 내려오단, 짐진국 대감님광 원진국 대감님이 허는 말이,

“웁서. 우리 수륙 드령 얘기랑 낱건, 아들 톨 허민 사돈 허곡, 아들은 아들 허고, 톨은 톨허민 게로형제 허기가 어떻 험네까?”

“걸랑 기영 허렌.”

허영. 내려오난, 짐진국은 아들을 낱데다. 원진국은 톨을 나난, 혼 설 두 덜 열다섯 십오 세가 넘어가난, 현 약속도 잊어지난, 원진국 대감신디 사돈 허겐 허난, 가난허고 서난허난 사돈 안허켄 허난, 원강아미,

“아버지 나 시집 가쿠다.”

허연. 부베간(夫婦)을 삼읍데다.

부베간 삼으난, 사라도령 뒤편, 꽃감관 꽃생인 살레오렌 허난, 원강아미 애긴 베언 테독(胎毒)골이<sup>1162)</sup> 불언. 나도 골이 가쿠덴 헤연. 꽃감관 꽃생인님광 밤낮 주야정천

---

1151) 입장갈림을: 혼인을.

1152) 흐를날은: 흐룻날은.

1153) 메양: 늘.

1154) 지컨: 지킨.

1155) 갓영: 가지고.

1156) 강나룩: 발벼.

1157) 초나룩: 찻벼.

1158) 가삭베도: 승려의 옷을 만드는 천감인 배.

1159) 송낙베도: 고깔을 만드는 천감인 배.

1160) 목닥: 목탁

1161) 제우리난: 저울리니.

1162) 골이: 같이.

걸어가는디.

날은 정그난<sup>1163</sup> 묵은각단<sup>1164</sup> 새각단 밧디<sup>1165</sup> 어욱폐기 의지혜연 앓앗구나. 밤은  
깊엉 동산새별 먼동 금동<sup>1166</sup> 대명천지 붉는<sup>1167</sup> 날이 뉘젠 허난, 천하(天下)독은<sup>1168</sup>  
목을 들루고 지하(地下)독은 출기<sup>1169</sup> 들런 즈지반반 울어올 때 원강아민,

“사라도령님아, 사라대왕님아, 꽃감관 꽃생인님아, 저건 어디 독 소리펜”

허난,

“제인장제 만년장제 집이 독 우는 소리엔.”

허난, 어욱폐기 의지 허엿단 일어사명 손을 비엇구나. 어욱폐기 그루엔 덩체기  
엔<sup>1170</sup> 벌경허게<sup>1171</sup> 피가 칠헤여지난, 어욱폐기 빨린<sup>1172</sup> 벌경허는 법 마련허고,

“천연장제 만년장제 집이 강 날 풀아뉘 차비 노소 허영 갖다 읍서.”

허난,

“결랑 기영 허라.”

천연장제 만년장제 천연장제 집 강

“종이나 삽서.”

“큰똥애기야, 저 종 사느냐?”

“사질 맵서. 우리 집이 망혈 종이우다.”

“족은똥 애기야 저 종 사느냐?”

“사지 맵서. 우리 집이 신세 먹꿀 종이우다.”

족은똥 신디 간,

“저 종 사느냐?”

“아이고, 저 종 삽서. 어멍이랑 물하님으로 부리고 배에 애긴 나건, 아들랑 나건 장  
남으로, 똥랑 낫건 물하님으로 부리는 게 어뎡 험니켤.”

허난, 아방도 귀가 솔끗허연.

“얼마를 받을티?”

허난, 어멍은 돈 백냥을 받으쿠다. 아방은 벤 애긴 은 백냥을 받으쿠다 허난, 돈 백  
냥에 은 백냥에 사놓고, 우린 종광 한집 이별허젠 허민. 이별상을 출려 줍센 허난, 꽃  
감관 꽃생인신디 원강아미,

“벤 애긴 나민 무시거엔 이름 생명 지으느넨?”

허난, 아들랑 낳건 한락궁이, 똥랑 낳건 한락덱이 이름생명 지어시렌 헤여두고, 상  
동낭 용얼레기<sup>1173</sup> 반착 꺾언<sup>1174</sup> 본메로<sup>1175</sup> 갖언 반착씩 앓언 꽃감관 꽃생인 살레

---

1163) 정그난: 저무니.

1164) 은 각단: 오래된 띠.

1165) 밧디: 밭에.

1166) 금동: 금동(金東). 동쪽 하늘이 밝아옴.

1167) 붉는: 밝는.

1168) 천하(天下)독은: 천하 닳은.

1169) 출기: 꼬리.

1170) 덩체기엔: 큰 나무의 밑둥에는.

1171) 벌경허게: 빨강게.

1172) 빨린: 뿌리는.

꽃밭디<sup>1176</sup>) 도올르고.

원강아민 그날 저녁 줌을 자젠 허난, 제인장제 만년장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이 국에 법은 어찌 허는지, 우리 국에 법은 벤 애기 낱아 뒤사 몸 허락 험네다.”

벤 애기 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허여가난, 이 국에 법은 어찌 허는지, 우리 국에 법은 이 애기가 켕 능장(稜杖)대  
짚영 어르적적 밧을<sup>1177</sup>) 갈아사 몸 허락을 험네덴 허난,

이 애기 켕, 어르적적 밧을 갈아 가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허여도 문을 아니 몰아 주난, 제인장제 뉘벌역(罰役)을<sup>1178</sup>) 시겻구나. 어멍이랑 굽  
터진 항에 물 질어 놓고 아덜랑 남천바리 허여오렌 허난, 그 벌역도 다 허엿구나.

흐를날은<sup>1179</sup>) 부아가<sup>1180</sup>) 나난, 조 혼섬 앓영 간 뿌려근, 오늘 고추일 멸망일(滅亡  
日) 하와일이난 강 다 담양 오렌 허난, 쯤씨 혼섬 빼연<sup>1181</sup>) 갈아두언 끄서귀로<sup>1182</sup>) 꾀  
언 마무리 헤연 집이 오난, 오늘 멸망일 고추일 하와일이 뉘여지난 강 담양오렌 허  
난, 비세굴이 올멍 밧디 강 보난, 장계염지덜<sup>1183</sup>) 겨울 양석허젠 문<sup>1184</sup>) 모다 놓앗구  
나.

담안 오난, 혼 방울이 떨어졌저. 다시 재차가난 장계염지 쯤씨 혼 방울 물언 고망더  
레 들어가젠 허난 가운데 간 바락허게 볼르난<sup>1185</sup>) 멜록허게 바끄난<sup>1186</sup>) 장귀통을 설  
련허웁데다.<sup>1187</sup>)

뉘벌역, 이 벌역도 면신 시기난, 신산만산 한락궁인,

“어머님아, 콩이나 혼쭤 볶아 쭤서.”

콩장막 털언 콩을 볶으는디

“어머님아, 저 올레서 제인장제 불림수다.”

올레 가분 세에 남술이여<sup>1188</sup>) 족박이여<sup>1189</sup>) 비치락이여<sup>1190</sup>) 다 곱저 두고,<sup>1191</sup>)

1173) 상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 머리빗.

1174) 반작 꺾언: 반으로 꺾어서.

1175) 본메로: 증거가 될 사물.

1176) 꽃밭디: 꽃밭에.

1177) 밧을: 밧을.

1178) 뉘벌역: 힘든 일.

1179) 흐를날은: 하룻날은.

1180) 부아가: 화가.

1181) 빼연: 뿌려서.

1182) 끄서귀로: 밧을 갈고 나서 바닥을 고르거나 다지는 도구.

1183) 장계염지덜: 큰개미들.

1184) 문: 모두.

1185) 볼르난: 밟으니.

1186) 바끄난: 뺏으니.

1187) 장귀통을 설련허웁데다: 장구를 마련합데다.

1188) 남술이여: 남죽. 넓적 길쭉한 나무로 만든 죽젓개여.

1189) 족박이여: 조그마한 바가지여.

“어머님아, 혼저 읍서. 콩 캄수게.”

아이고, 남박이여<sup>1192</sup>) 족박이여 비차락 다 곱져부난 엇엇구나. 콩은 타탁 튀어가난,

“어머님아, 손으로라도 젓읍서.”

손으로 젓젠 허난 흘목에<sup>1193</sup>) 솟창더래<sup>1194</sup>) 눌렛구나.

“우리 아버지 누게짜?<sup>1195</sup>) 바른 말을 험셴.’

허난,

“이 손 노라. 이 손 노라.”

손을 놓으난, 느네 아버지 꽃감관 꽃쟁인 사라도령 살레 갓젠 허난,

“게건 어머님아, 죽어지고 데나, 나 간 곳을 곧지<sup>1196</sup>) 말고 범벅 소금 짜게 놓앙 두 덩어리만 허여 줍서.”

“결랑 기영 허라.”

범벅 두 덩어리 허여 주난, 아방 좃앙 서천꽃밭디레 올라가는데 천리둥이가<sup>1197</sup>) 좃아<sup>1198</sup>) 온다.

“천리둥이야, 느도 종이여. 나도 종이여. 요거 먹영 어서 가불라.”

범벅 혼 덩어리 훅허게 데끼난 그 범벅 짤짤한 거 먹언, 물 먹으레 천리만씩 가부난, 천리만씩 돌아간다. 조끔시난<sup>1199</sup>) 만리둥이 좃아오라 가는구나.

“느도 종이여. 나도 종이여. 나 물영 가봤자 종 팔져 면송 못허난, 요거 먹영 혼저 가불라.”

범벅 혼 덩어리 훅허게 데끼난 그 범벅 짤짤한 거 먹언, 물 먹으레 만리만씩 가분세에 만리만씩 돌아간다.

가단보난, 발등 친 물 잇엇구나. 야게<sup>1200</sup>) 친 물, 존등<sup>1201</sup>) 친물, 야게 친물 잇엇구나. 수양청버드남섭이 보였구나.

수양청버드남 우에 강 올라앗안 닛급<sup>1202</sup>) 썩션, 물을 닛급 썩션, 피착은 물더레 바까부난, 인간에서 열다섯 십오세 안내에 사발엔, 남박세기 사기 사발에 밥먹단 애기덜 물 잉어다근,<sup>1203</sup>)

서천꽃밭디 부제칩 애기덜은 늦사발에 물 잉어 강 물주민 번성 꽃 뒹고, 가난헌 집이 애기덜은 남박세기 물 질영<sup>1204</sup>) 가당 사기 사발에 물 질영 가당 마이정당 쉼정

1190) 비치락이여: 빗자루여.

1191) 곱져 두고: 숨겨 두고.

1192) 남박이여: 나무 박세기.

1193) 흘목에: 손목에.

1194) 솟창더래: 솟창에.

1195) 누게짜: 누구입니까.

1196) 곧지: 말하지.

1197) 천리둥이: 개이름.

1198) 좃아: 쫓아.

1199) 조끔시난: 조금 있으니.

1200) 야게: 모가지.

1201) 존등: 잔등이.

1202) 닛급: 이빨.

1203) 잉어다근: 이어다가.

1204) 질영: 길어서.

당<sup>1205</sup>) 발을 걸런 물 못주민 인간더레 돌아상

“나 난 어멍 나 난 형제간 우리 남박세기 값 보내어 줘서. 은둥이 값 보내어 줘서.”

비세굴이 올라가민 송엄도<sup>1206</sup>) 뉘고 피착은 물더레 뿌려부난 검뉴울꽃이<sup>1207</sup>) 뉘어 가난, 꽃감관 꽃생인 궁예청 신예청 아랫 정고리<sup>1208</sup>) 후려가난, 수양청버드남섭 우이 무지력 총각이 앓안 닛굽 쑤션 물러레 바까부난 핏물이 뉘연 꽃은 검뉴울꽃이 뉘염수 덴 허난, 꽃감관 꽃생인 나오란

“너는 누게가 뉘느냐?”

허난,

“우리 아버지 좃안 오랏우다.”

“느네 아바진 누게고?”

우리 아바진 꽃감관 꽃생인 뉘네덴 허난,

“본메본짱<sup>1209</sup>) 잇겠느냐?”

“잇입네다.”

상동냥 용얼레기 내어주난, 꼭허게 맞앗구나. 남리에 은둥에 초둥에 물을 떠 상손가 락에 피를 짠 물러레 뱅뱅 돌단 합수가 뉘엇구나. 아방 아들 분명허엇구나.

“설운 애기야, 오단 보난 필아곡절(必有曲折) 허는 일 엇어넨.”

허난, 발등 친 물 잇입디다. 존등 친 물 잇입디다. 야게 친 물 잇입디덴 허난

“느네 어멍, 느 이레<sup>1210</sup>) 와부난 초대김<sup>1211</sup>) 이대김 삼대김 받은 물이여.”

아이고 설운 애긴 서천꽃밭 들어간 피 오를 꽃 솔 오를 꽃 심장 오를 꽃 말 굴을 꽃 즈근즈근<sup>1212</sup>) 타고,

“멜망악심(滅亡惡心) 제인장제 집이 강 시겨볼라.”

수레멜망악심<sup>1213</sup>) 내어주엇구나. 이젠 내려오단 보난, 천연장제 만년장제 죽이젠 허 난,

“나 좋은 재주 베왕 오랏이난, 나 재주 보양 죽입서.”

“일가방상 제줏간 다 모입서.”

일가방상 다 모이난, 싸움 혈 꽃 내어 놓안 와글와글 흔들어 가난, 니 머리 내 머리 싸움발악 허엇구나. 검뉴울꽃 내어 놓안 와글와글 흔들어 가난, 노릇노릇 다 죽엇구 나. 장방<sup>1214</sup>) 알로<sup>1215</sup>) 나오멍 제인이 족은뜰 아이고,

“상전님아, 날 살려줍서.”

1205) 마이정당 쉼정당: 땡땡이 덩굴의 한 가지.

1206) 송엄도: 흉도.

1207) 검뉴울꽃이: 시든 꽃.

1208) 정고리: 아랫도리.

1209) 본메본짱: 증거가 될 만한 사물.

1210) 이레: 여기.

1211) 초대김: 첫 번째 다짐.

1212) 즈근즈근: 자근자근.

1213) 수레멜망악심: 사람을 죽여 멸망시킴.

1214) 장방: 상방 구석에 그릇을 놓게 만든 공간.

1215) 알로: 아래로.

“느가 상전이주. 나가 상전이냐?”

“오라바님아, 날 살립서.”

“어평헌 느네 오라방이고. 우리 아방이 느네 어멍신디 가 가나시냐, 우리 어멍이 느네 아방신디 가시냐.”

경 헤여도 우리 어멍 간 곳이나 골렌<sup>1216)</sup> 허난,

두에 신돔박냥<sup>1217)</sup> 아래, 청대 고대 아래 묻엇수덴 허난, 어머님 신첸 보난, 왕대 죽대 몸으로 깨어지언 다 나오랏구나.

어머님, 빼 강골 슬 강골 조근조근 좃영 죽냥 막대기 삼세번 피오를 쫓 슬 오를쫓 오장육부 간담 오를 쫓 놓안. 부모신디 메 허는 건 불흠니덴만은 살아납셸 허연 때리는 맵네덴 허연. 삼시 번<sup>1218)</sup> 후리난<sup>1219)</sup> 와들랭이<sup>1220)</sup> 살아나난, 어머님 누워난 흠인 들 내불리야. 복복허게 꺾여근<sup>1221)</sup> 방울방울 고리동벽 안동벽,<sup>1222)</sup> 굻 혈 때엔 소가칩인 앳은제엔 고리동벽 일곱 개, 소당클 매영 굻 혈때엔 열니 방울, 심방칩인 스물여덟 방울 마련허는 법. 신가심, 굻 헤어나민 두 개로 반듯이 열리는 건 신가심 열리는 법입네다. 애기방울 방울방울 조순덜 그늘랏주고<sup>1223)</sup> 번성 시겨주는 법입네다.

이거, 어머님은 저싱 유모어멍 마련허고, 아바진 저싱 쫓밭 쫓감관 쫓쟁인 마련허고, 아들은 신산만산 한락궁인, 아미처서(差使)를 마련허영 제인장제 족은똥 애기 돌양가부난 아미처서 마련허영. 이공서천 도산국 난산 본산국 과광성 신티엿습네다.

---

1216) 골렌: 말하라고.

1217) 신돔박냥: 동백나무.

1218) 삼시번: 삼세번.

1219) 후리난: 때리니.

1220) 와들랭이: 벌떡 일어나는 모양.

1221) 꺾여근: 꺾여서.

1222) 고리동벽 안동벽: 쌀로 만든 방울 모양의 떡.

1223) 그늘랏주고: 돌봐주고.

## 삼공본풀이

옛날 옛적 우옛녘엔 강이영서 이서불이<sup>1224</sup> 사옵데다. 아랫녘엔 궁에궁전 너실부인<sup>1225</sup> 사옵데다. 아랫녘에도 송년이<sup>1226</sup> 드난 우옛녘더레 얻어 먹으레 올라감구나.

우옛녘에도 강이영서 이서불이 아랫녘에 풍년 들머시카부덴 내려오단 보난, 여중 감중 증등에서 강이영서 이서불허고 궁에궁전 너실부인 만났구나.

“영감님아, 어디 가는 중이꽈?”

“난 아랫녘이서 우잇녘더레 얻어먹으레 올라감수다.”

“아이고, 난 우잇녘이서 아랫녘더레 얻어먹으레 내려감수다.”

“우리 곶은<sup>1227</sup> 팔즈(八字)가 뉘난 부베(夫婦)간을 삼앙 살게마썸.”

궁에궁전 너실부인허고 부베간을 삼앗구나. 부베간을 삼안 사는 게 은장아기 솟아 난다. 늦장아기 솟아난다. 감은장아기 솟아나난, 천하아레 거부제(巨富者)로 잘 삼데 다.

잘 살아가난,

흐를날은<sup>1228</sup> 우옛녘에 강이영서 이서불광 아랫녘에 너실부인 비도 오고 촉촉허난, 심심허고 허난, 큰똥애기 불러간다.

“야, 은장아기 이레 오라보저. 넌 누게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느님도 덕이우다. 지하님도 덕이우다. 어머니 아버지 덕인줄 아옵네다.”

“어마 나똥애기 착허다. 너 방으로 건너가라.”

셋똥애기 불러단,

“넌 누게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느님도 덕이우다. 지하님도 덕이우다. 어머니 아버지 은덕이 큰줄 아옵네다.”

“어마 나똥 착허다. 너 방으로 물러가라.”

가문장아기 불러단,

“죽은똥 너는 누게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아버지, 하느님도 덕입네다. 지하님도 덕입네다.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준 덕입네 다만은 나 베포롱<sup>1229</sup> 아레 선그똥이 나 덕인줄 압네다.”

허난, 이년 저년 꺾똥헌 년 훈 설 적에 입던 입성(服) 두 설 적에 입던 입성 열다섯 십오세 안네 입던 입성 시꺼<sup>1230</sup> 어서 너강 난 중 나고가렌 내쫓아불엇구나.

내쫓아 부난, 이거 가문장아긴 절에 나가가난, 큰 성 은장아긴,

“아이고 나 동싱<sup>1231</sup> 혼저 가불라. 혼저 가불라. 아버님 몽뎡이 들렁 왓저. 어머니

1224) 강이영서 이서불: 가문장아기의 부신명(父神名). 또는 그 출생지.

1225) 궁에궁전 너실부인: 가문장아기의 모신명(母神名). 또는 그 출생지.

1226) 송년이: 흥년이.

1227) 곶은: 같은.

1228) 흐를날은: 하룻날은.

1229) 베포롱: 배꼽.

1230) 시꺼: 싯고서.

1231) 동싱: 동생.

몽뎡이 들렁 왁져.”

걸름<sup>1232</sup>) 우터레<sup>1233</sup>) 올라 사난, 굶뎡이 몸으로 환싱(還生)허연 걸름 속더레 움막 들어가분다.

늦장 아긴,

“아이고 나 동싱 혼저 가불라. 혼저 가불라. 아바님 몽뎡이 들렁 왁져. 어머니 몽뎡이 들렁 왁져.”

담 우터레 올라사난 주녕이<sup>1234</sup>) 몸으로 환싱허연 땅 속더레 들어가분다.

계도,<sup>1235</sup>) 어머니 아바진 어느만쫘이나 감신고, 지방 우이 올라상 보주 헤연. 일어 사난 문대방에 이멍이<sup>1236</sup>) 폐난 아방도 당달봉서<sup>1237</sup>) 어명도 당달봉서 혼 날 혼 시에 좋은 재산 다 망허연 먹엇구나. 감감무중 뉘엇구나. 얻어먹는 신세가 뉘엇구나.

가문장애긴 가단 가단 보난, 큰마통이 마 팜구나.

“어딘 가민 인간처가 잇우파?”

“난 모름네다.”

가단 보난 셋마통이 마 팜구나.

“어딘 가민 인간처가 잇우파?”

“난 모름네다.”

가단 보난 작은마통이 마 팜구나.

“어딘 가민 인간처가 잇입니쎈.”

허난,

“올로 저레 강 보민 오두막 살이가 잇이난 그디<sup>1238</sup>) 강 봅센.”

허난, 올로 저레 가단 보난 오막살이 집이 잇엇구나. 어떻헌 할망이 잇엇구나.

할마님아, 주위나 호곰<sup>1239</sup>) 빌립센 허난, 우리 큰아들 큰마통이 오고 셋아덜 셋마통이 오고, 작은아들 작은마통이 오건 들어봐사 헌덴 허난, 호곰 시난<sup>1240</sup>) 우르릉탕 우르릉탕

“할마님아, 저건 무신 소리가 뉘네까?”

“우리 큰마통이 마 팜 오는 소리여.”

집이 오란, 아이고, 손님 방이나 빌립센 헤연 잇젠 허난, 마 숲양<sup>1241</sup>) 주난, 어명은 꼴렝이<sup>1242</sup>) 준다. 손님은 덩체기<sup>1243</sup>) 준다. 진<sup>1244</sup>) 한복판에 거 먹엇구나.

---

1232) 걸름: 거름.

1233) 우터레: 위에.

1234) 주녕이: 지네.

1235) 계도: 그래도.

1236) 이멍이: 이마.

1237) 당달봉서: 눈이 안보임.

1238) 그디: 그곳에.

1239) 호곰: 조금.

1240) 시난: 있으니.

1241) 숲양: 삶아서.

1242) 꼴렝이: 꼬리.

1243) 덩체기: 밑둥.

1244) 진: 자기는.

호꼼 시난 우르릉탕 우르릉탕 허여 가난,  
 “할마님아, 저건 무신 소리짜?”  
 “우리 셋마통이 마 팡 오는 소리여.”  
 셋마통이 마 팡 오난,  
 “손님 들었저.”  
 만 숲양 주난, 꼴렁인 손님 머린 어멍을 안네엿구나. 진 가운데 복판을 먹엇구나.  
 호꼼 시난 다시 우르릉탕 우르릉탕 소리가 나난,  
 “저건 무신 소리짜?”  
 “우리 족은마통이 마 팡 오는 소리여.”  
 족은마통이 마 팡 오난,  
 “아이고, 손님 들었저.”  
 “예. 잘 들었우다.”  
 만 숲안 꼴렁이광 머린 자기가 먹고 가운데 복판은 어머님광 손님을 안네엿구나.  
 이젠 어머니 허는 말이,  
 “큰마통이야, 저 손님 방으로 들라.”  
 눈도 아니 거듭 튼다.  
 “셋마통이야, 저 손님 방으로 들라.”  
 눈도 아니 거듭 튼다.  
 족은마통이 손님 방으로 들렌 허난, 서른여덟 닛바디<sup>1245)</sup> 허우덩씩<sup>1246)</sup> 웃언 부베간  
 을 삼앗구나.  
 대백미 쏘 내어 놓안 밥 허연 큰마통이신디 먹으렌 허난, 우리 조상에도 안 먹어난  
 밥 아니 먹켄. 버랭이<sup>1247)</sup> 밥. 앓영 나가렌. 셋마통이신디도 강 먹으렌 허난, 버랭이  
 밥 아니 먹으켄. 족은마통인 순작만씩<sup>1248)</sup> 빙에기만씩<sup>1249)</sup> 먹엇구나.  
 큰마통이 마 파난 딘 간 보난 굼벵이만 바글바글. 셋마통이 마 파난 딘 간 보난 구  
 령이만<sup>1250)</sup> 바글바글. 족은마통이 마 파난 딘 간 보난 금은보화가 잔뜩 잇엇구나. 금  
 은보화 담야단 천하아래 거부제로 살앗구나.  
 천하아래 거부제로 살안, 이젠 어머님 아바님 좃으구정<sup>1251)</sup> 허연. 걸벵이 잔치를 허  
 엿구나. 걸벵이 잔치 석덜 열흘 벅일을 허연 마곳대<sup>1252)</sup> 날은 아버지 어머니가 오랏  
 구나.  
 저 올레로 오라가난, 이레 출령 노민, 상 요레 앓아불고, 저레 출령 노민 저레 앓아  
 불고, 영 허단, 가문장 아긴 앞더레 완.

1245) 닛바디: 이빨.

1246) 허우덩씩: 매우 기뻐서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꼴.

1247) 버랭이: 벌레.

1248) 순작만씩: 메추라기만씩.

1249) 빙에기만씩: 병아리만씩.

1250) 구렁이만: 구렁이만.

1251) 좃으구정: 찾고싶어서.

1252) 마곳대: 끝나는. 마칠 때.

“아이고, 요 술 혼잔 먹읍서.”

어디서 온 누게펜? 허난, 스실<sup>1253</sup> 말을 곱앗구나.<sup>1254</sup>

“우리 살아난 역사가 곧건<sup>1255</sup> 들읍서. 난 우엿녁에 강이영서 이서불이웨다. 할망은 아랫녁에 궁에궁전 너실부인 얻어먹는 신세가 뉘여신디.

이젠 여중 감중에서 만나난 우리 혼 팔저가 뉘난 부베간을 삼으게마썸 허연. 부베간을 삼양 살아가는디 은장아기 늦장아기 가문장장아기 솟아나난 천하 아레 거부제로 살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가난.

흐를날은 심심허곡 비도 오곡 허난, 큰똥애긴 누게 덕에 사느냐? 어머니 아바님 덕이우다. 셋똥애긴 누게 덕에 사느냐? 어머니 아버지 덕이우다. 족은똥애긴 누게 덕에 사느냐? 어머니 아버지 덕인 중 압니다만은 나 베포롱 아레 선그릇이 덕 인증 압네덴 허난, 너강 난중 나고가렌 보내여부난, 좋은 재산 간 날 간 시 혼 날 혼 시에 다 일러 불고 엇어지어 불고 얻어먹는 거렁뱅이가 뉘고 눈도 안명천지(眼盲天地)가 뉘고 큰똥애기도 엇어져 불고,<sup>1256</sup> 셋돌애기도 엇어져 불고 족은똥애기도 엇어져 불고 이젠 얻어 먹는 거렁뱅이 신세가 뉘엿우다.”

“아이고, 어머니. 나 술 혼잔 받읍서. 나, 은장아기, 늦장아기, 감은장아기, 족은똥애기가 뉘엿우다.”

번쩍 트난,<sup>1257</sup> 아이고, 튼 봉서가 뉘연. 눈이 판칙 텃구나.

삼공본 풀땀 상잔(賞鑿)에 술 놓아근 탁 노민 데싸지민<sup>1258</sup> 눈 꿈은<sup>1259</sup> 사름은 엇고, 옆어지민 그 집이 눈 봉서가 잇젠 영 허여. 아이고, 탁 트민, 이 집이 오늘 삼공 난산국이우다.

나님 곶은<sup>1260</sup> 전상, 드님 곶은<sup>1261</sup> 전상, 신구산 대전상, 글허기 전상, 활허기 전상, 농업허기 전상, 사업허기 전상, 이녁만씩 전상이 잇어지는 법입네다. 궂인 전상이 랑 먼 정 살장더레 내놀리고, 어질고 순헌 전상, 먹을연 입을연 나수와 주는<sup>1262</sup> 전상, 금전 재물 나수와 주는 전상, 집안에 편안허게 허는 전상 안으로 나수와 줍센 허연. 삼공 난산국 신평엿습네다.

---

1253) 스실: 사실.

1254) 곱앗구나: 말했구나.

1255) 곧건: 말하건.

1256) 엇어져 불고: 없어져 버리고.

1257) 번쩍 트난: 반짝 뜨니.

1258) 데싸지민: 뒤집어지면.

1259) 눈 꿈은: 눈 감은.

1260) 나님 곶은: 나가는 임 곶은.

1261) 드님 곶은: 들어오는 임 곶은.

1262) 나수와 주는: 나오게 도와주는.

## 맹감본풀이

날(日)은 어느날, 돌(月)은 어느 돌, 올 금년 해(日)는 갈롭길 이천십팔년도 무술년 돌(月) 중에는 백록 팔월달 쓰무허고 아흐렛날 뵈네다.

오늘 천수방액(天授防厄)을 막져 허시는다. 이 액을 방액 막는법은 옛날 주녕국 소소만이가 사옵데다.

장겐 가는 것이, 장승상 또님애기영 부베(夫婦)간을 삼으난, 애긴 낳는 게 아들 툐 밀고루<sup>1263</sup>) 보리고루 오망삭삭 나난 가난허고 서난협데다.

가난하고 서난허난, 어린 애기덜은 배고프난, 밥 줍센 각각 울어가난, 주녕국 소서만이 각신 머리 끈언<sup>1264</sup>) 주녕국 소소만이신디 강,

“장에 강,<sup>1265</sup>) 이거 풀양<sup>1266</sup>) 쏘<sup>1267</sup>) 반양 읍센.”

허난, 걸랑 기영 허렌 헤연. 각시 머리 끈은 거 앓양<sup>1268</sup>) 강 포난,<sup>1269</sup>) 돈 석냥을 받았구나. 돈 석냥을 받으난 혼편더레 바려보난, 부지땡이 곶은<sup>1270</sup>) 거 놓안 두상두상 허엿구나.

“요건 무시거<sup>1271</sup>) 허는 거파?”

“노는<sup>1272</sup>) 썩에 불 질르민 절궁절강 맞아집네다. 뛰는 노리에 불 질르민 절궁절강 맞아집네다.”

이건 얼마니나 험니겐 허난, 주녕국 소소만이한테 풀아사 험니덴 허난,

“나가 주녕국 소소만이가 뵈네다.”

“얼마 받으쿠과?”

돈 석냥을 받으쿠편 허난, 돈 석냥을 주언. 마세조총을 산 뚜러메영<sup>1273</sup>) 오람구나. 소만이 각신 어느제랑 장에 강 머리 풀양 쏘 반양 오민 배고픈 애기덜 밥 줍서. 각각 우는 애기들 배불리 밥 멕이코 허단 보난, 소소만인 오는 게 부지땡이 닳은 거 뚜러메영 오람구나.

이 어른아, 저 저른아. 쏘 반양 오민 애기덜 배불리 밥 헤영 먹이젠 허단 보난, 부지땡이 곶은 거 상 오람수겐 허난,

이 사름아, 나 곧건<sup>1274</sup>) 들어보라. 쏘은 밥 헤영 혼때 먹어불민 다시 내일은 배가 고평거고 이 마세조총 상 온건. 노는 썩에 불 질르민 절궁절강 맞아지고. 뛰는 노

---

1263) 밀고루: 밀가루.

1264) 끈언: 끊어서.

1265) 강: 가서.

1266) 풀양: 팔아서.

1267) 쏘: 쌀.

1268) 앓양: 갖고.

1269) 포난: 파니.

1270) 부지땡이 곶은: 부지땡이 같은.

1271) 무시거: 무엇.

1272) 노는: 나는.

1273) 뚜러메영: 둘러메고.

1274) 곧건: 말하는 거.

리<sup>1275</sup>)에 물 질르민 절궁절강 맞아진덴 허난,

소만이 각신 앞집이 간 쏘 혼뉘 꾸어단 메를 헤연. 소만인 저 산천에 올랐구나. 올락 내력 올락 내력 허는디 해는 열락서산 다 지엿구나. 어욱폐기 의지헤연 묵은각단<sup>1276</sup>) 새각단 영덕<sup>1277</sup>) 돌 의지헤연 앓아시난, 이밤 저밤 야사삼경이 뉘여가난,

“주녕국 소소만아, 소소만아. 땡땡 그르르 땡땡 그르르.”

아이고, 바싹 무습고<sup>1278</sup>) 꿈작 안헤연 잇당,<sup>1279</sup>) 날이 흰허게 먼동 금동<sup>1280</sup>) 대명천지가 붉아오난, 소만이가 불르는 짝더레 간 보난 백년 데구리가<sup>1281</sup>) 잇입데다.

백년 데굴이가 말을 허뉘,

“소만아, 느 가진 총은 나 건디. 난, 허정승 아들인디 한라산 산 좋고 물 좋고 구경처 좋덴 헤연 오랏단, 비바람에 난 죽언 백년 데굴이가 뉘엿구나. 날 돌아당<sup>1282</sup>) 상물<sup>1283</sup>) 숲양<sup>1284</sup>) 목욕 시기고 고팡(庫房)에 모성 초호루 보름 헤여주민, 너네 집이 천하 거부제로 잘 살게 해주키여.”

허난,

“결랑 기영 협서.”

멩텡이에 백년 데굴이 담안 오란 상물 숲양 목욕 시견 고팡에 상단에 모성 초호루 보름 헤여가난, 난 꿩에 불 질르민 절궁절강 맞앗구나. 노는 노리에 불질르민 절궁절강 맞앗구나.

천하 아레 잘 살아집데다. 큰집도 허영 살고, 밧도<sup>1285</sup>) 헤영 살고 부제팔명(富者八命) 뉘게 잘 살아지어가난,

흐를날은<sup>1286</sup>) 주녕국 소소만이가 꿩 사농 메 사농 허레 가불고 연양 상고팡에서 백년 데굴이가 옥황에 천기를 짚정보난, 옥황에서 삼 처서가 주녕국 소소만이 잡으레 내일 모레 소오시 날은 내리켄 허난,

“아이고, 나 엇이민 는 어떻 살명, 느 엇이민 난 어떻 사느니. 소만아, 소만아. 나 잇어난 디 돌아다<sup>1287</sup>) 도라.”

땡땡그르르 땡땡그르르 헤여가난, 소만이 각신 불 숲단 이놈이 백년 데굴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서 가난 노망 헤염젠 헤연. 백년 데굴이를 부지깽이 콧고냥 꿩어단 뒷 밧더레 데껴부난, 그날은 꿩 사농 메 사농 가난 제수가 하나도 엇어지엿구나. 집이완

---

1275) 노리: 노루.

1276) 묵은각단: 오래된 띠.

1277) 영덕: 언덕.

1278) 무습고: 무섭고.

1279) 잇당: 있다가.

1280) 금동: 금동(金東). 동쪽 하늘이 밝아옴.

1281) 데구리가: 해골이.

1282) 돌아당: 데려다가.

1283) 상물: 향 가지를 넣고 끓인 물. 신성하게 쓰려고 어느 자리에 뿌리거나 얹하여 입관을 하려 할 때 시신을 씻거나 함.

1284) 숲양: 삶아서.

1285) 밧도: 밧도.

1286) 흐를날은: 하룻날은.

1287) 돌아다: 데려다.

보난,

“소만아, 땡땡그르르 땡땡그르르.”

혜염시난,

“아이고, 조상님. 어떻게연 이디 나옴데가?”

“너 널 모리 소오시날은 옥황에서 삼 처서(三差使)가 널 잡으레 오는디 느 엇이민 난 어떻 살명, 난 엇이민 느 어떻 사느니 나 잊어난 디 돌아다 도라.”

소만아, 소만아, 땡땡그르르 땡땡그르르 헤여가난,

“조상님아, 죽을 일은 알고 살 일은 모릅네까?”

“계건덜랑 큰굿 전세남<sup>1288</sup> 허라.”

바깳디론 천도천왕 지도지왕 인도인왕 삼간제(三綱) 오륜(五倫)제법으로 천왕기 지 늦추고<sup>1289</sup> 지왕기 지늦추고 좌우듯기 질이예기 양산기<sup>1290</sup> 나부줄전지<sup>1291</sup> 안으로 만서 소해당클 출사메연 큰굿 전세남 허고,

백보 베깃디 강 잘 출려 놓앙, 삼 처서 관장님에 의복 입성(服) 금동이에 금도 만 량, 은동이에 은도 만량, 대백미도 일천석 소백미도 일천석, 저싱돈 은폐지전, 이싱돈 지화금전, 절간돈 다라니, 의복 입성, 신발 잘 출려 놓앙, 옆데헤연 팽풍 지어근 뒤에 소소만이엔 지방을 붙여 놓고 옆데헤연 잇이렌 허난,

옥황에서 모리 뒷날 소오시가 뒤난 삼 처서가 소만이 잡으레 내려오람구나. 아이고, 삼 처서가, 혼 처서가 허는 말이,

“요런 때 소소만이 신발이나 주엇이민 곧 서른 소고전명(小故電命) 잇엇주켈. 배 고 픈 때 밥이나 주엇이민 소고전명 잇어주켈. 차비노소나 요런 때 주엇이민 곧 서른 소 고전명 잇어주켈.”

허난, 혼 처서가 말을 허뒤

“아이고,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나. 그런 말 허지 말렌.”

허단 보난, 잘 출려 뉘 뒤구나. 배고픈 처서는 음식을 먹어 간다. 신발 엇인 처선 신발 신어 간다. 차비 노수 엇인 처선 돈을 갓언. 팽풍 등어리에 글 삼제(三字)를 보 난, 주녕국 소소만이 잇엇구나.

아이고, 주녕국 소소만이 잘 뒤엇구나. 돌앙 가젠 허난,

“아이고, 사자님아, 사자님아. 혼 베코만<sup>1292</sup> 누겨 줍서.<sup>1293</sup> 우리 집이 강 부모님 처가속 어린 애기들신디 잘 살암시렌 말을 골아두영 가쿠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써신디 그만헌 베푼사 못 허느니.”

혜연. 집인 돌안가난 안으론 만서 서해당클 출사메연 삼처서 안으로 청혜연 잘 대 접허연. 소만이 돌앙 가젠 허난, 소만이 나이 든 부모님.

“아이고, 사자님아. 우릴 돌앙 갑서.”

1288) 전세남: 앓았을 때 생명을 살려주십사고 비는 곳.

1289) 지늦추고: 낮추고.

1290) 양산기: 큰굿을 할 때 세우는 기.

1291) 나부줄전기: 큰굿을 할 때 매다는 나비 모양의 하얀 종이 조각.

1292) 혼 베코만:

1293) 누겨 줍서: 늦추어 주세요.

처가속도,

“날 돌양 갑서.”

애기덜토 바지가달에 몬 돌아지영 우리도 돌양 갑센 헤여가난, 주녕국 소소만이 대신 소소필이를 심영갓구나.<sup>1294)</sup>

소필이 심영 저싱은 가난, 저싱 염라대왕님이 인간에 간 뉘물을<sup>1295)</sup> 먹었으니 삼처서를 죽이젠 헤연 전옥에 하옥 시겓구나.

하옥을 시기난 지동토인신디 혈말이나 엇겓느냐? 혈 말은, 주녕국 소소만이 곧 서른 소고전명이 아니라 우터레<sup>1296)</sup> 열십제 씨어<sup>1297)</sup> 놓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앓저 줍센 허난,

“결랑 기영 허라.”

지동토인신디 문세(文書)를 쓰게 멘들야<sup>1298)</sup> 두고 모리 뒷날 소오시가 뉘여가난, 방에갈 씨원 죽이젠 헤여가난, 염라대왕님이 허는 말이,

“넌 혈 말이나 엇겓느냐?”

“예. 죽을 때 죽어도.”

삼처서 관장님이 허는 말이,

“다시 소소만이 곧 서른 소고전명인가 봐 줍서,”

지동토인신디 전갈을 허난, 동방세기 삼천년 도업(都業) 허렌 헤엿우다. 석삼 제(三字) 우에 열십 제(十字) 굿어 놓고, 놀아가는<sup>1299)</sup> 새 혼 마리 짝으난, 동방세기 삼천년 도업허렌 헌 법이 잇입네다.

주녕국 소소만이라도 곧 서른 소고전명이 메기라도<sup>1300)</sup> 관디(冠帶) 삼베, 띠 삼베, 은 동이에 대백미, 늦동이에 소백미 수술이 남동이에 잔뜩 시꺼근<sup>1301)</sup> 천수방액 삼처서 관장이 막으난, 주녕국 소소만이 곧 서른 소고전명이 동방세기 삼천년 도업허렌 헤엿우다.

그 법으로 우리 인간 백성덜 운수내기 불길허민, 쉼<sup>1302)</sup> 없어 물로나,<sup>1303)</sup> 물 없이 쉼로나, 쉼로 데령 물로 데령 허는 법. 적송베오기(赤胸白玉鷄), 적송베오기 엇이민, 지레 맞인<sup>1304)</sup> 잘라지<sup>1305)</sup> 발에 맞인<sup>1306)</sup> 발강게 남동이에엔 대백미 늦동이에엔 소백미 은도 천량 돈도 구만량 허영 천수방에 막는 법입니다예.

1294) 심영갓구나: 심어서 갓구나. 잡아 갓구나.

1295) 뉘물을: 뇌물을.

1296) 우터레: 위에.

1297) 씨어: 씨.

1298) 멘들야: 만들어.

1299) 놀아가는: 날아가는.

1300) 메기라도: 없어도.

1301) 시꺼근: 실고서.

1302) 쉼: 소.

1303) 물로나: 말로나.

1304) 지레 맞인: 키에 맞는.

1305) 잘라지: 기원자(祈願者)의 키로 재어 연령수에 맞은 길이의 피륙.

1306) 발에 맞인: 발에 맞는.

## 문전본풀이

날(日)은 어느 날, 돌(月)은 어느 돌. 올 금년 해(日)는 갈롭긴 이천십팔년 무술년  
돌 중에 백녹 팔월 스무아흐렛 날 일문전(一門前) 난수생 신평건 본산국 더레 제노립  
서.

옛날 옛적 남선고을 남선비가 사옵데다. 여산국에 부인이 사옵데다. 부배(夫婦)간  
입장 갈림<sup>1307</sup> 헤연 애기사 낳는 게, 아들이 일곱 성제 솟아나난, 가난허고 서난허난  
먹을 건 엇어지고, 오동나라 오동고을 물건 시세가 좋덴 허난, 초각 메역<sup>1308</sup> 시경  
강<sup>1309</sup> 무곡(貿穀)이나 바깥<sup>1310</sup> 오저.

남선빈 초각 메역 전배독선(全船獨船) 시경 보름 불어 가는데로, 풍선 상선 탕 가는  
것이 오동 나라 오동 고을 들어가난 노일저데귀일이 풀이,

“어디서 온 영감이 뉘옵니까?”

나는 남선고을 남선비고 초각 메역 시경 오랑 무곡이나 바깥 가젠 오고렌 허난,

“우리 집이 가민 안서랑(內舍廊)도 좋고 밧서랑(外舍廊)도 좋고 내외서랑도 좁네다.  
우리 집이 가게마썸.”

헤연 가는 것이, 투전 놀음 허는 디 강, 투전 놀음 허단 보난, 전배독선 시경 간 초  
각메역 배 차<sup>1311</sup> 오꼴허게 일러부난, 남선비는 갈 디 올 디 엇어지난, 노일저데귀일  
이 풀 사는 디<sup>1312</sup> 좃앙<sup>1313</sup> 간 보난, 거적문에 웨돌처기<sup>1314</sup> 돌안<sup>1315</sup> 굽영 들고 굽  
영 나는 디<sup>1316</sup> 살암구나. 체죽단지<sup>1317</sup> 옆이 찬 살암구나.

체죽만 썩 먹어가난, 남선비 눈은 안명천지(眼盲天地) 뉘옵데다. 집이선 여산국에  
부인님은,

“설운 애기덜아, 느네 아방 감감무래 뉘엿이난, 초신이나 혼 베씩 삼아다 도라.”

아덜 일곱성제가 초신 혼 베씩, 일곱 배 사당<sup>1318</sup> 안내난, 삼아단 안내난, 상동낭  
용얼레기<sup>1319</sup> 촘썰<sup>1320</sup> 혼제에 묶언 은단팽(銀唐瓶)에 서단마게<sup>1321</sup> 막아놓고 저 바당  
저 성장에 간, 남인 가장님 살앗건 혼저<sup>1322</sup> 읍서. 죽엇건 본메본짱<sup>1323</sup> 머리커럭<sup>1324</sup>

1307) 입장갈림: 혼인.

1308) 초각메역: 미역.

1309) 시경 강: 실고 가서.

1310) 바깥: 바깥서.

1311) 배 차: 배 채.

1312) 사는 디: 사는 곳.

1313) 좃앙: 좃아서.

1314) 웨돌처기: 외돌쩌귀.

1315) 돌안: 달아서.

1316) 나는 디: 나는 곳.

1317) 체죽단지: 겨죽단지.

1318) 사당: 사다가.

1319) 상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 머리빗.

1320) 촘썰: 명주실.

1321) 서단마게: 마개.

1322) 혼저: 어서 빨리.

1323) 본메본짱: 증거가 될 사물.

하나라도 올라옵센 허난,

머리커럭 하나도 아니 올라오고 영 허난, 설운 애기덜 좃안 오란,

“설운 애기덜아, 느네 아방 산 거 닳다. 저 산에 올라 강 올곧고 실곧은 냥<sup>1325)</sup> 헤여당 상선이나 짓어도라.<sup>1326)</sup> 중선이나 짓어도라. 하선이나 짓어도라.”

상선 중선 하선은 당장 못 짓으난, 올곧고 실곧은 냥 허여근, 엮어근 테위선 멘들안 풍선 돌안 보름 가는 냥,<sup>1327)</sup> 절 가는 냥 가는 것이,

오동 나라 오동 고을 들어가난, 지장뵈디 애기씨 선창머리 내리난,

“요새야, 저새야 밥줄이 옥은 새야, 너무 옥은 체<sup>1328)</sup> 허지 말라. 아이 못은 청그물<sup>1329)</sup> 든다. 남선비 옥은 깁에도 노일저데귀일이 툐 호탕에 들언. 전베독선 다 망허고 눈도 안명천지 뉘여근 체죽단지 옆이 찬 살암젠 요 새 저 새 주어 저 새.”

허난, 여산부인 말을 허뉘,

“애기씨 그 말 혼 곡지 더 골아도라.<sup>1330)</sup> 갑서뎡기 끊어주마”.

“나 새 다올리는<sup>1331)</sup> 말 뵈이 아니 골앗우다.”

허난,

“다시 혼 번 골아도라.”

허난,

“요 새야, 저 새야 밥주리 옥은 새야 너미 옥은 체 허지 말라. 아이 못은 그물에도 든다. 남선비 옥은 깁에 노일저데귀일이 툐 호탕에 들언 전베독선 다 망허고 눈은 안명천지 뉘엇저. 요 새 저 새 주어 저 새.”

허난,

어디쯤 사느넨? 허난,

“요 제 념영 강 뵈서. 저 제 념영 강 뵈서.”

요 제 념곡 저 제 념고 간 보난, 대추낭 꽃가마귀 집에 거죽문에 웨돌처기 돌안 굽영 들고 굽영 나는 디 살암구나. 들어 가명 여산국 부인님.

“주연이나 호곰 빌립서.”

“나그네도 염치 엇인 나그네우다. 집을 보명 주연을 빌립센 험서.”

“난 디 나명<sup>1332)</sup> 집을 지영<sup>1333)</sup> 납네까? 난디 나명 밥을 지영 납네까?”

계건 요 무똥이라도<sup>1334)</sup> 호곰<sup>1335)</sup> 빌립센 허난,

“결랑 기영 험서.”

---

1324) 머리커럭: 머리카락.

1325) 실곧은 냥: 튼튼한 나무.

1326) 짓어도라: 만들어 주라.

1327) 냥: 대로.

1328) 옥은 체: 약은 척.

1329) 못은 청그물: 뜬 그물.

1330) 골아도라: 말해주라.

1331) 다올리는: 내쫓는.

1332) 난 디 나명: 나간 데 나가면서.

1333) 지영: 저서.

1334) 무똥이라도: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이라도.

1335) 호곰: 조금.

무똥을 빌리난,

“솥을<sup>1336</sup> 호끔 빌립서.”

솥을 빌리난, 솥두껍이 올안 보난<sup>1337</sup> 체죽만 썰 먹어나난, 누냉이<sup>1338</sup> 닷말 닷뉘  
눌엇구나. 앞बाट 놀려들언<sup>1339</sup> 삼수세기<sup>1340</sup> 걷어단, 초불<sup>1341</sup> 이불<sup>1342</sup> 제삼불 판씩  
허게<sup>1343</sup> 씻어두언. 대백미 쌀 내여 난 요 밥을 먹읍센 허난, 남선빈 비세굴이 울어간  
다.

“어떻헤연 울미꽈?

“본말이나 잇우꽈?”

“본말도 들은 말도 엇영 나 살아온 역사나 곧건<sup>1344</sup> 들읍서. 난 남선고을 남선비고  
우리 부인 여산국 부인이고 아들 일곱 성제 난 가난허고 서난허연 먹을 건 엇어지고  
초각 메역 시경 왕, 무곡이나 바깥 가젠 허단 투전판에 들엇당, 전베독선 다 망허고  
벤 문딱 일러불고 차비 노소허연 오고 가지도 못허는 신세가 뉘연. 눈도 안명천지가  
뉘엿우다.”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나 여산국이 부인이 뉘네다.”

번씩 뜬<sup>1345</sup> 것이 뜬 봉서가 뉘엿구나. 아이고, 울단도 웃언. 만단정화(萬端情話) 굴  
아가난,<sup>1346</sup> 웃어가난 노일저데귀일이 뜰 놈이 피, 방에<sup>1347</sup> 찝단 치메 귀아지에<sup>1348</sup>  
체<sup>1349</sup> 혼 쓸박<sup>1350</sup> 썩 오란,

“요 놈아. 저 놈아. 죽일 놈아. 잡을 놈아. 대동강에 목 벨 놈아. 난 놈이 체죽이라  
도, 피 방에라도 찝어단, 체죽이라도 베 뽕글랑허게<sup>1351</sup> 처 먹여가민 넘어가는 질칸나  
인 빼칸나인 돌아앗언 웃임놀이 험젠.”

허난,

아이고, 그런게 아니라 우리 큰부인 날 좃앙 왓젠 허난,

“아이고, 큰부인인증 알앗이민 나가 무사 경 험네까. 형님아, 남인 가장 돌양 가불  
민 난 어떻험네까. 난 집이 강 물하님이라도 허크메 나도 훈디<sup>1352</sup> 돌랑<sup>1353</sup> 가쿠다.”

---

1336) 솥을: 솥을.

1337) 올안 보난: 열어 보니.

1338) 누냉이: 누룽지.

1339) 놀려들언: 달려가서.

1340) 삼수세기: 한삼덩굴.

1341) 초불: 한번.

1342) 이불: 두 번.

1343) 판씩허게: 깨끗하게.

1344) 곧건: 말하건.

1345) 번씩 뜬: 반작 뜬.

1346) 굴아가난: 말해가니.

1347) 방에: 방아.

1348) 치메 귀아지에: 치마 모서리에.

1349) 체: 겨.

1350) 혼 쓸박: 한 쓸박세기.

1351) 뽕글랑허게: 배가 튀어나오게.

1352) 훈디: 같이.

1353) 돌랑: 따라.

“결랑 기영 허라.”

“성님아, 더운디 오라나시난 읍서 목욕이나 가게.”

“결랑 기영 허라.”

주천강(酒泉江) 연훼못(蓮花池디 몸목욕 가난, 옷을 우알로<sup>1354</sup>) 헤딱허게 다 벗언 물을 자락자락 짓데기단<sup>1355</sup>) 노일저데귀일이 떨어 허는 말,

“영 험서. 성님,<sup>1356</sup> 등 밀어 주쿠다.”

“아이고, 느 부떠<sup>1357</sup>) 밀어주마.”

“아이고, 성님아. 우이로 내리는 물 발등드레 집네다. 성님 부떠 밀어 주쿠다.”

계결랑 기영 허렌 허영 등을 내미난 혼번 미는 체 두 번 미는 체 세 번 미는 체 허 단 ,과락허게 주천강 연훼못더레 밀려부난, 쉬운대자 방패머리 허울허울 올라오젠 허 민 밀려불고, 올라오젠 허민 밀려불고 쉬운대자 방패머리 허울허울 죽엇구나.

큰어명이 입영 간 옷 조근조근 좇어 입언 남선비신디 완,

“그년, 저년. 노일저데귀일이뜰 행실이 귀썸허연 죽여될 오랏우다.”

“그년 잘 죽여될 오랏저. 그년 때문에 난 눈은 안명천지 뉘고 전베독선 다 망헤시 난 우리 혼저 집이 가불게.”

“결랑 기영 험서.”

배 탄, 배꼭지 돌령 오는 것이 큰아덜은 아바님이 오시는다. 어머니가 오시는다. 큰 아들 멩건<sup>1358</sup>) 벗언 득리<sup>1359</sup>) 논다. 두 번째 아들 두루막 벗언 득리 논다. 세 번째 아들 바지 벗언 득리 논다. 네 번째 아들 저고리 벗언 득리를 논다. 다섯 번째 아들 행 경 벗어 득리 논다. 오섯 번째 아들 보선<sup>1360</sup>) 벗어 득리 논다. 일곱 번째 아들 칼선득 리 노난.

“아이고, 설운 나 동싱아. 너느 어찌하여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 오ندي 칼선득 리<sup>1361</sup>) 노느냐?”

“아바지는 우리 아버지가 뉘여도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우다. 나 허는 양 만<sup>1362</sup>) 험서.”

“기여 경 허라.”

“아바지랑 조름에<sup>1363</sup>) 사고 어머니랑 앞 삽서. 우리 즈식은<sup>1364</sup>) 메조름에 삽네다.”

생전 뎡겨나지 아니 헌 질이난 이 골목 주악 저 골목 주악.

“아이고, 멀미끼가 난 집을 못 좇앙 가키여. 혼저 집을 좇앙 글라.”

---

1354) 우알로: 위아래로.

1355) 짓데기단: 지치다가.

1356) 성님: 형님.

1357) 느 부떠: 너 먼저.

1358) 멩건: 망건.

1359) 득리: 다리.

1360) 보선: 버선.

1361) 칼선득리: 칼날이 위로 향하게 세워진 다리.

1362) 허는 양만: 하는 대로만.

1363) 조름에: 꿈무니에.

1364) 즈식은: 자식은.

집 좃앙 오난, 밥을 험셴 허난, 아버지 앞이 가는 상은 아덜 앞더레 가 간다. 아덜 앞이 가는 상은 아버지 앞더레 가 간다. 선후도착(先後倒錯), 그릇도 선후도착이 뒤엿구나. 밥을 험셴 허난, 밥상을 먹어 놓안 수군수군, 저거 봅서. 우리 어멍 아니우덴 수군수군 헤여가난,

노일저데귀일이 톨, 흐를날은<sup>1365)</sup>

“아야 배여. 아야 배여.”

사라 배로구나.

“당신 좃앙 덩기멍<sup>1366)</sup> 몸에 신병 나난 어디 강 문점(問占)이나 헤여줍서.”

“어디 가민 문점 허는 사름 잇이니?”

“저 삼도전 거리에 강 보민 멩텅이 쓴 종이 잇우다.”

걸랑 기영 허렌 허연. 삼도전 거리에 걸영 가는 새에 남선비, 노일저데귀일이 톨 뒷담 쫄락 튀영 간 멩텅이<sup>1367)</sup> 썸 앓았구나.

“아이고, 문점 허레 왔우다.”

“어떻헤연, 각시 아판 왔구나마썸.”

“아이고, 잘 알암수다.”

“아덜은 일곱성제 나신게마썸.”

“아이고, 맞수다.”

“각시 신병 좋젠 허민 아덜덜 일곱성제 애 내어<sup>1368)</sup> 먹어사 신병 좋으쿠다.”

“아이고, 이것사 무신 말이과?”

그말 대답 아니헤연. 집이 걸언 오논디 노일저데귀일이 톨은 뒷담 쫄락허게 튀언 집이오란 남선비 와가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헤가난,

“문점이나 강 헤여 읍데가.”

“문점은 행 와신디 아덜덜 일곱성제 엘 내영 먹어사 좋으켄 헤염서.”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험도 헛우다. 아덜덜 일곱성제 어떻게연 엘 내어 먹습니까. 게민 다른 디<sup>1369)</sup> 강 점 행 읍서.”

어디 강 점 행 읍서. 세 밧디<sup>1370)</sup> 강 들으난, 노일저데귀일이뜰이 골아노난 다 맞았구나. 아덜덜 일곱성제 애 내영 먹어사 좋으켄 허난,

“게거든 흘 수 엇우다. 아덜덜 일곱성제 애 내얼 먹영 나 신병 좋앙 혼 배에 두 개 썸 쌍둥이로 세 배만 나쿠다.”

허난, 걸랑 기영 허렌. 영 허난, 남선빈 은장도 칼 내여 놓앙 슬금슬짝 고노렌 허난, 동네 청태산이 마고할망 불 담으레<sup>1371)</sup> 오랏단

1365) 흐를날은: 하룻날은.

1366) 덩기멍: 다니면서.

1367) 멩텅이: 망태.

1368) 애 내어: 간을 내어.

1369) 다른 디: 다른 곳에.

1370) 세 밧디: 세 곳에.

“남선비님아, 남선비님아, 어떻게연 칼 골암시니?”<sup>1372)</sup>

“아이고, 곧도 말고 이르지도 맙서. 우리 큰부인 날 좃아 덩기단 신병 나난, 어디 강 문점 허난, 아덜덜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어사 신병이 조키엔<sup>1373)</sup> 헤영 칼 골암수다.”

아이고, 것사 무신<sup>1374)</sup> 말이랴. 아덜덜 일곱성제 신디 간, 너네 아방 호첩에 말 들 영 느네 일곱성제 애 내젠 칼 골암젠 허난, 이제랑 족은아들이,

“설운 성님네야. 경 울지 말앙 잇입서. 올레에 사십서.”

집이 들어간,

“아바지, 무시거 허젠<sup>1375)</sup> 칼 골암수파?”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느네 어멍 날 좃아 덩기명 신병 나난, 어디 강 문점허난 아덜덜 일곱성제 애 내영 먹어사 좋으켄 허난, 홀 수 것이 애 내젠 칼 골암져.”

옛날은 부모님이 죽으렌 허민 죽고, 살렌 허민 살 때난 홀 수 없는 일이고구나만은, “아바지 칼 일곱 번을 대젠 허민 가슴인덜 일곱 번을 아니 아프명 우리 일곱 성제 죽 이민 일곱 번 저당,<sup>1376)</sup> 문곡 파곡 덮으곡<sup>1377)</sup> 허젠 허민 어떻게연 허쿠과? 경 말 앙.<sup>1378)</sup> 그 칼을 날 주민, 성님네 굴미굴산 아야산 짚은 곳디<sup>1379)</sup> 들어강 성님네 엘 내어 오랑 먹영 어머니가 살아나건 날랑 죽이지 말곡, 아니 살아나건 아버지 손으로 혼 번에 간단허곡 십곡 좋을 거 아니우파.”

“것도 경 허라.”

물 멩텅이 내여 준다. 성님네 돌안 저 산천더레 들어간다.

“어머님아, 어딜 갑데가? 살앗건 혼져 읍서.”

죽엇건 혼정으로라도 우릴 살려 줍셴 허단 보난, 산노리<sup>1380)</sup> 일곱이 내려왓시난, 산노리 일곱을 잡셴 허난, 우린 산짐승이난 잡지 말고 우리 조름으로 산툯<sup>1381)</sup> 일곱머리 내려왓시난 앞이 건, 씨전중(-傳種) 놓아 두고, 조름에 건 여섯 마리 잡앙 가렌 허난, 걸랑 기영 헉셴 헤연.

노리 꼴랭이<sup>1382)</sup> 문착 끊어두고, 잠지폐기에<sup>1383)</sup> 백지(白紙) 혼장씩 앓아 내언 지전(紙錢), 잠지팩에도 붙여 간다. 이멍거리에도<sup>1384)</sup> 붙여간다. 풀다시에도<sup>1385)</sup> 붙여간다. 노린 얼룩베기 뉘는 법<sup>1386)</sup> 마련허엿습네다. 산노리 일곱 내려왓시난, 산툯 일곱 머리

1371) 담으레: 담으러.

1372) 골암시니: 같고 있느냐.

1373) 조키엔: 좋을거라고.

1374) 무신: 무슨.

1375) 무시거 허젠: 무엇을 하려고.

1376) 저당: 저다가.

1377) 덮으곡: 덮고.

1378) 경 말앙: 그렇게 하지 말고.

1379) 짚은 곳디: 깊은 곳에.

1380) 산노리: 산노루.

1381) 산툯: 멧돼지.

1382) 꼴랭이: 꼬리.

1383) 잠지폐기에: 불기짝.

1384) 이멍거리에도: 이마에도.

1385) 풀다시에도: 팔뚝에도.

내려왓시난, 앞이 건 씨전중으로 놓아두고 뒤에 거 요섯 머리 앨 내언 물 멩텅이에 놓아 두고, 궤긴<sup>1387</sup>) 멩게냥<sup>1388</sup>) 석단불 이랑이랑 피와난, 익어신가 혼점. 설어신가 혼점 끊어먹단 보난, 일곱머리 다 먹어지엇구나.

해는 열락서산 다 지엇구나.

“성님아, 방위마다 사십서. 살앗건 몸천으로 담아듭서. 죽엇건 삼흔정으로 담아듭서 허걸랑 왈각달각 담아 됍서.”

허난, 걸랑 기영 허렌 해연. 집이 들어 간,

“어머님아, 요걸 먹영 살아납서.”

아이고,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설운 애기덜 약 먹는 디 아니 베린다.”

나가렌 해연.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다 자리 알더레<sup>1389</sup>) 묻어 두고, 하나만<sup>1390</sup>) 더 먹어시민 콩 방울만이 현 거 목 알더레 소로록허게 내려가기엔 허난,

“게민 어머님아. 하나만 더 먹어시민 좋으쿠과?”

“하나만 더 먹어시민 좋으키여.”

“영 험서. 방이나 치와똥<sup>1391</sup>) 나가 죽으쿠다. 이부자리나 치왕 나가 죽으쿠다.”

“중병 든 디 이부자리 아니 치웁나.”<sup>1392</sup>)

“니나<sup>1393</sup>) 잡아두영 나가 죽으쿠다.”

“아이고, 설운 애기야. 병든 딘 니도 아니 잡나.”

요년. 저년. 궤썸헌 년. 죽일 년. 잡을 년. 대동강에 목 벨 년이로구나. 이불, 앓안 치와똥, 혼쪽<sup>1394</sup>) 손에 세 개씩 여섯 개 심언 지봉상상<sup>1395</sup>) 즈추모루<sup>1396</sup>) 올라 간,

“요 동네사람들아. 다슴어멍<sup>1397</sup>) 잇고 다슴애기 잇는 사름 우리 방 정 다십서.”<sup>1398</sup>) 설운 성님네 살앗건 혼저 읍서. 죽엇건 삼흔정으로 담아 됍서.”

허난, 동서 남북으로 왈각달각 담아들어 가난, 남선빈 저 올레에 돌단<sup>1399</sup>) 정살낭에<sup>1400</sup>) 목메연 목 꺾어전 죽엇구나.

노일저데귀일이 뜯은 변소간에 간 쉬운데자 수페머리에<sup>1401</sup>) 목 메연 죽엇구나. 어머님 원수 갚음 허저. 마당드레 끄집어 내언. 머린 돌환<sup>1402</sup>) 저 바당으로 데껴부난 지

1386) 열룩베기 뉘는 법: 열룩베기 되는 법.

1387) 궤긴: 고기는.

1388) 멩게냥: 청머리덩굴.

1389) 알더레: 아래에.

1390) 하나만: 하나만.

1391) 치와똥: 치워두고.

1392) 치웁나: 치운다.

1393) 니나: 이나.

1394) 혼쪽: 한쪽.

1395) 지봉상상: 지봉 위.

1396) 즈추모루: 상마루 맨 위 꼭대기.

1397) 다슴어멍: 계모.

1398) 다십서: 다스리세요.

1399) 돌단: 달리다가.

1400) 정살낭에: 정낭.

1401) 쉬운데자 수페머리: 길고 형클어진 머리.

칭으로 면사님으로 마련한다. 눈은 돌환 천리통, 코는 침통, 권 요세 전화걸언 ‘여보 세요.’ 허기 마련한다. 꺾자락은 돌좌단 작박을<sup>1403)</sup> 한다. 젓통아린 돌환 가지깡이<sup>1404)</sup> 한다. 손톱 발톱은 돌좌단 저 바당에 데껴부난 쉼금벗 하레비금벗 물금벗<sup>1405)</sup> 마련한다. 발은 곰베로<sup>1406)</sup> 마련한다. 열 손가락은 글깡이로<sup>1407)</sup> 마련한다. 양다린 듯집<sup>1408)</sup> 짓고 디딜팡<sup>1409)</sup> 놓기 마련한다. 데가린 두 개 반득이 벌려단 하나는 대수값음 하나는 돛도고리<sup>1410)</sup> 마련허고 허단 남은 거 박박, 도고방에에<sup>1411)</sup> 모사단<sup>1412)</sup> 산중에랑 곡다귀<sup>1413)</sup> 몸 해경에랑 모기 몸에 환싱허고, 웅웁 울어가민 이녁냥으로 이녁 볼 차기 맞기 마련허연.

어머님 원수 값음 헤엇구나. 어머님 좃앙 간 보저. 주천강 연휘못디 간 보난, 물은 퍼도 그만이, 아니 퍼도 그만이 주천강 연휘못디 물이 봉봉허엇구나.<sup>1414)</sup> 비세(悲鳥) 곶이<sup>1415)</sup> 울엄시난, 광세란<sup>1416)</sup> 양반이 넘어가단,

“느네 무사<sup>1417)</sup> 경<sup>1418)</sup> 울엄디?”

“이 물 소곱에<sup>1419)</sup> 어머니 신체 잇인디 좃지 못헿 울엄수다.”

“설운 애기덜 나 등더레 타라.”

노리 고기 일곱 점을 마련 헤연. 광허민 혼 점 물리곡, 광허민 혼 점 물리곡 허단 혼 점은 알더레 털어져부난, 물릴 거 엇이난 동무름에 술<sup>1420)</sup> 돌좌단 멕이난,<sup>1421)</sup> 동무름에 술은 없는 법 마련허고.

서천꽃밭디서 피 오를 꽃, 솔 오를 꽃 오장육부 간담 피부 오를 꽃 조근조근 탄 오란. 죽냥<sup>1422)</sup> 막데기로 봉봉 헌 물에 혼번 두 번 삼세번 두드리난 버 짱 싹구나.<sup>1423)</sup> 물도 들엇닥 싹닥 허는 법 마련허고, 돈도 잇엇당도<sup>1424)</sup> 엇고, 엇엇당도 잇는 법 마련허연.

1402) 돌환: 도려내어.

1403) 작박을: 바가지를.

1404) 가지깡이: 개지뚜깡.

1405) 쉼금벗 하레비금벗 물금벗: 딱지조개의 일종.

1406) 곰베로: 곰방매로.

1407) 글깡이로: 굵는 도구로.

1408) 듯집: 돼지집.

1409) 디딜팡: 제주 재래식 변소에서 뒤를 볼 때, 밝고 앉아 일을 볼 수 있게 만든 돌.

1410) 돛도고리: 돼지 먹이를 주는 그릇.

1411) 도고방에에: 방아에.

1412) 모사단: 찢어서.

1413) 곡다귀: 각다귀.

1414) 봉봉허엇구나: 물이 짱 싹구나.

1415) 곶이: 같이.

1416) 광세란: 광하게 우는 새라는.

1417) 무사: 왜.

1418) 경: 그렇게.

1419) 소곱에: 속에.

1420) 술: 살.

1421) 멕이난: 먹이니.

1422) 죽냥: 대나무.

1423) 버 짱 싹구나: 바 짱 싹구나.

1424) 잇엇당도: 있었다가도.

어머님 뻘<sup>1425)</sup> 솔그랑<sup>1426)</sup> 헤여시난 복복 담안 피 오를 꼳 솔 오를 꼳 오장육부 오  
를 꼳 간담 피부 오를 꼳 다 난. 죽냥 막대기 삼세번 두드리난 와들렉이 살아난,

“봄 잠이라 너미<sup>1427)</sup> 자 젓저.”

“나 어머님이 적실허구나.”

어머님 누워난 흠은 복복 담안 께언. 큰성도 혼 고냥,<sup>1428)</sup> 셋성도 혼 고냥, 세 번째  
성도 혼 고냥, 네 번째 성님 다섯 번째 성님 요섯 번째, 일곱 번째 툐롤 디가<sup>1429)</sup> 엇  
이난, 동수굴은 주먹으로 바락허게 가운데 간 툐루난 시리 고냥은 일곱 개 나고,

정월 대보름 날 시리떡<sup>1430)</sup> 모듬떡 지어먹기 마련허영, 재수가 좋젠 허민, 징징이  
놓앙<sup>1431)</sup> 잘 익고, 재수가 굿젠 허민<sup>1432)</sup> 서는<sup>1433)</sup> 법을 마련허고.

어머님. 집 좃앙 걸읍센 허난, 고짜허게<sup>1434)</sup> 좃안 왓구나. 어머님 물에 좌정(坐定)  
헤여 나시난<sup>1435)</sup> 조왕할망으로<sup>1436)</sup> 들어산, 초덕 초허루<sup>1437)</sup> 초이틀, 이덕 초사흘 삼  
덕 할마님 조왕할마님으로 어머님이랑 들어삼서.

“성님들은 어디로 가쿠과?”

“난 동방청대장군(東方靑帝將軍).”

둘째성님 서방백대장군(西方白帝將軍). 세 번째 성님 남방적대장군(南方赤帝將軍).  
네 번째 성님 북방흑대장군(北方黑帝將軍). 다섯 번째 중앙황신장군(中央黃神將軍) 들  
어산다.<sup>1438)</sup> 상성주 중성주 하성주로 들어산다. 죽은 아들 녹디생인 일문전 들어산다.  
어머님은 조왕할망 사고,<sup>1439)</sup> 아바님은 저 올려레 돌단 죽으난 정살지기<sup>1440)</sup> 올레지  
기 마련허고, 노일저데귀일이똥은 변소에 간 쉬운데자 수페머리 목메언 죽으난, 서각  
동토<sup>1441)</sup> 불러주고, 변소에 가민 옛날은 광난이증<sup>1442)</sup> 불러주영 얻어먹고, 변소에 건  
조왕에 오민 동티가 나는 법. 조왕에 건 변소에 가도 동티가 아니 나는 법 마련허고,  
막음 방 튼 방 삼살(三殺) 연살 요섯 번째 돌아가멍 웨우로 돌고<sup>1443)</sup> 노다<sup>1444)</sup> 돌고,

1425) 뻘: 뼈는.

1426) 솔그랑: 뼈만 모여 있는 모습.

1427) 너미: 너무.

1428) 혼 고냥: 한 구멍.

1429) 툐롤 디가: 똥을 곳이.

1430) 시리떡: 시루떡.

1431) 징징이 놓앙: 층층이 놓아서.

1432) 굿젠 허민: 나쁘고 하면.

1433) 서는: 익지 않는.

1434) 고짜허게: 곧게.

1435) 나시난: 있었으니.

1436) 조왕할망으로: 부역신으로.

1437) 초허루: 초하루.

1438) 들어산다: 신으로 들어선다는 뜻.

1439) 사고: 신으로 좌정하고의 뜻.

1440) 정살지기: 올레 어귀에 정살을 꿰어 걸치도록 구멍을 파 세워 놓은 주목(柱木)과 정살의 신.

1441) 서각동토: 동티. 금기에 의해 손을 대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신의  
노여움을 사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1442) 광난이증: 미치는 증세.

1443) 웨우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1444) 노다: 오른쪽.

우로 도는 건 삼살 연살, 좌로 도는 건 막음 방 튼 방 허는 법 마련하였습네다.

이 집안과 오늘 일문전 난수생 신평어 올렸습네다. 들 적에도 문전 날 적에도 문전. 들고 나고 허는 디 일문전 난수생 신을 풀어 드리시난, 집안에 올 금년 만성덕 소원 성취 장원정, 성신이 개괄시경 소원성취 시겨줍서. 일문전 난수생 과광성 신평엇습네다.